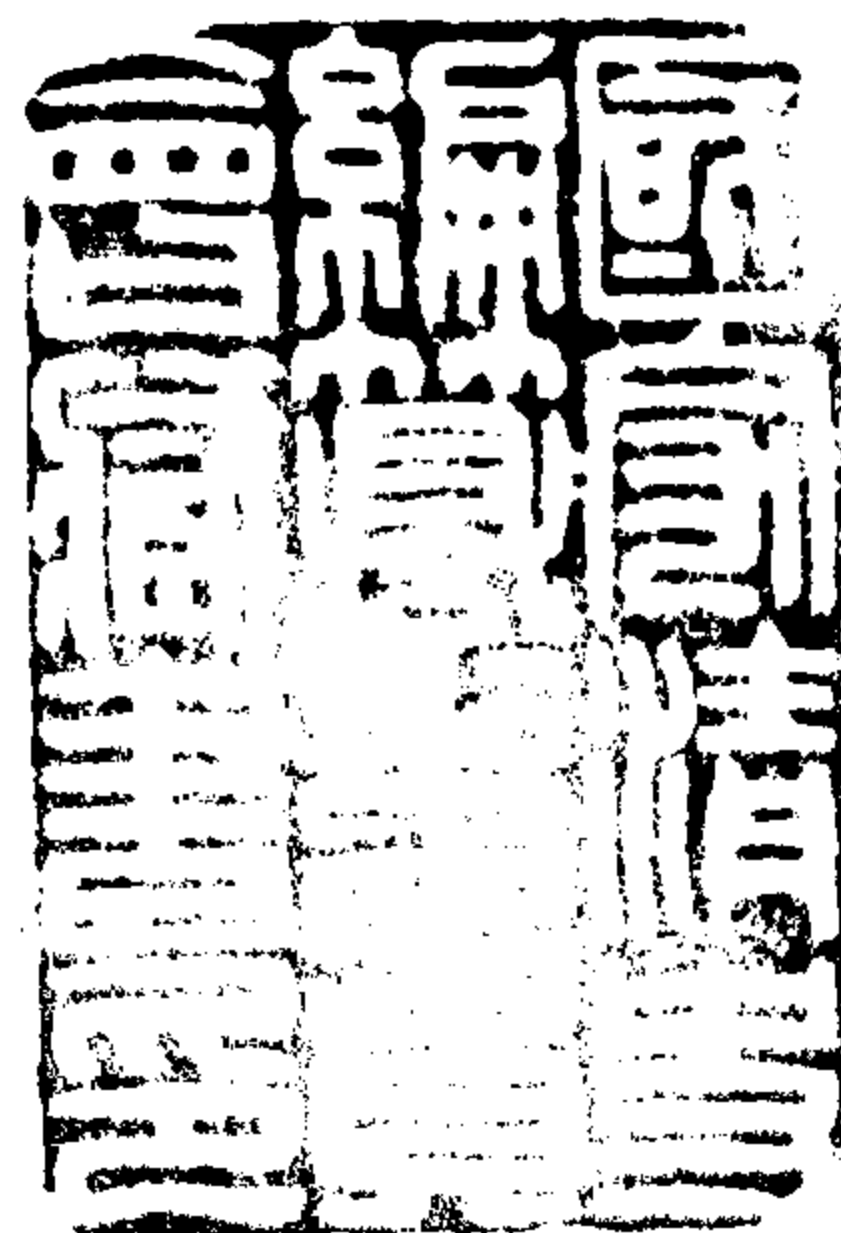


0084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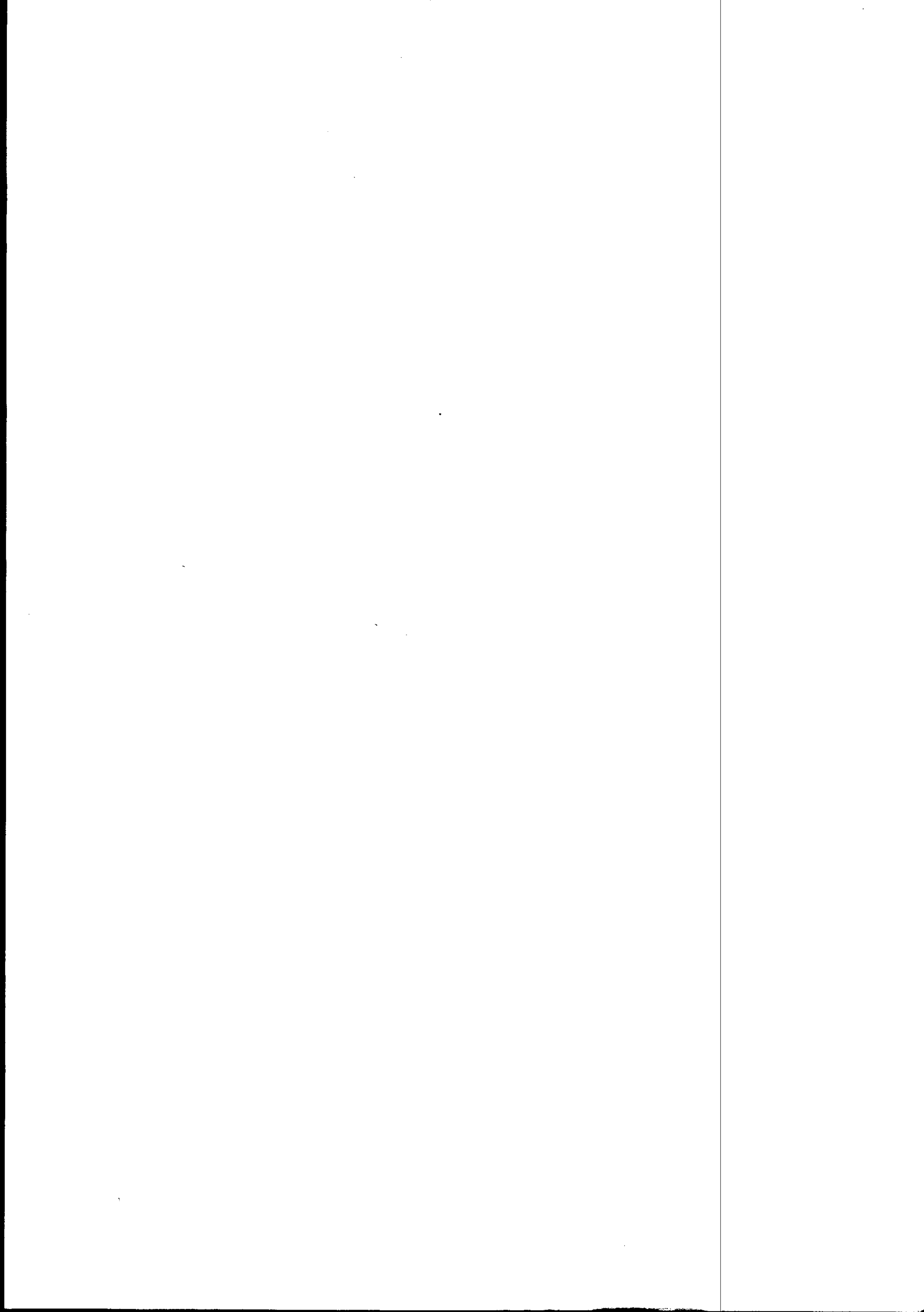
林基中編

燕行錄全集

94



東國大學校出版部



燕行錄은 韓國의 외교사절들이 明나라와 淸나라 때 中國을 다녀와서 써놓았던 우리 민족의 중요한 記錄遺産이다. 明나라 때 中國을 다녀온 기록은 朝天錄이라 이름 붙인 것이 많고, 淸나라 때 中國을 다녀온 것은 燕行錄이라 이름 붙인 것이 많다. 그래서 흔히들 朝天錄과 燕行錄이란 用語를 그렇게 辨別하여 使用하려고 하는 傾向도 있다. 그러나 明나라 때 中國을 다녀온 記錄에도 燕行錄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 있어서 이 책의 이름을 『燕行錄全集』이라 붙였다고 들었다. 따라서 이 책은 韓國人이 元과 明과 淸朝에 中國을 다녀와서 써놓은 中國使行錄全集인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이름 붙인다면 가령 이전 王朝의 記錄도 이 全集의 수록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며, 中國使行錄은 中國人의 使行錄으로 誤認될 素地도 있어서 燕行錄이란 이름이 無難할 것으로 여겨진다.

燕行錄은 高麗末부터 朝鮮末까지 五百餘年 동안 韓國人들이 外交的인 通路로 中國에 나가서 보고들은 見聞과 先進文物에 대한 體驗들을 自由롭고 創意性 있게 記錄한 것이다. 여기에는 韓國과 東亞細亞, 東亞細亞와 世界外交의 力學關係, 公式 非公式의 國際貿易과 經濟的 狀況, 多様な 文化交流와 尖端 學術交流 등 아주 多様하고 많은 情報의 양이 生생한 모습으로 알알이 박혀 있다. 따라서 東亞細亞 어느 分野의 研究에서도 參考하지 않을 수 없는 彪대한 記錄의 寶庫라고 할 수 있다.

이 全集의 編者인 林基中 教授는 우리 대학 國語國文學科에서 梁柱東 教授님의 指導로 鄉歌를 研究한 분이시다. 이 분은 母校의 教授로 있으면서 이미 몇 가지 學界가 注目할만한 일을 해낸 바 있다. 우리 대학의 支援으로 中國 北京大學에 專家教授로 가서 實體가 없는 것으로 알려저 있었던 廣開土王碑 原石拓本 4種을 찾아내어, 그 碑文을 새롭게 읽어냄으로써 一百餘年 동안의 昏迷를 거듭해온 東亞細亞 學界에 새로운 研究地平을 열었으며, 얼마

전에는 韓國의 歌辭文學原典을 모두 모아 『歷代歌辭文學全集』 全 50卷을 펴낸 바 있다. 이 作業은 우리 대학과 韓國政府의 支援을 받아 韓國歌辭文學 註釋研究로 계속 進行되고 있어 머지않아 學界에 크게 寄與할 수 있는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믿는다. 이번의 『燕行錄全集』은 國內外에 散漫하게 흩어져 있어 그 全貌나 實體把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資料들을 林教授께서 30年 가까이 執拗하게 蒐集하여, 이를 整理해낸 東亞細亞關係史料의 한 集大成이다. 이 全集은 그 編輯期間만해도 一年六個月이나 所要된 巨帙이다. 이것을 우리 대학이 開校 百周年을 앞에 두고, 全 100卷의 全集으로 出版하여 東亞細亞 學界에 내놓게 된 것은 참으로 榮光된 일이며, 東國學統의 底力을 새삼스럽게 確認할 수 있는 快舉가 아닐 수 없다. 이 全集에 漏落된 것은 林教授께서 私費出版으로도 續編을 펴내 마무리할 意志를 가지고 準備를 繼續하고 있으므로 不遠 그 뜻이 成就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現在 世界는 人文學의 危機라는 또 다른 도전에 直面해 있다. 이런 狀況論理 속에서 韓國人文學이 世界的인 競爭力을 確保하기 위해서는 그 든실한 土臺 마련을 하면서 새롭게 出發할 必要가 있다. 이 『燕行錄全集』은 그러한 側面에서도 世界 學界에 여러 모로 寄與할 수 있을 것으로 展望하면서, 여러 經濟的인 負擔을 무릅쓰고 韓國과 東亞細亞 學界를 위해서 이 全集을 세상에 내놓기로 勇斷을 내린 것이다. 아무쪼록 이 全集이 韓國은 물론이고 東亞細亞와 世界 學界에 크게 寄與하는 바가 있기를 바란다.

2001年 8月 10日

東國大學校總長 宋錫球

人文學은 探究의 對象이 自由롭고 廣範하다. 人文學은 知識을 삶의 直接的 手段으로 應用하려는 自然科學이나 社會科學과는 달리 知識이 그런 實用性에서 無限히 自由로워질 수 있게 하려는 學問이다. 人文學은 豊富한 對象을 통해서 생각하기, 말하기, 글 쓰기, 行動하기를 重視하는 學問이다. 생각하기의 靈感性和 多樣性, 말하기와 글 쓰기의 體系性,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한 行動하기는 삶의 質을 높이고 人間 社會를 圓滑히 돌아가게 하는 原動力이 된다. 따라서 人文學은 人間의 삶을 支撐하는 土臺라는 側面에서 볼 때 恒常 基礎學問이라는 本質的 屬性을 가지고 있다. 이 『燕行錄全集』은 韓國 人文學의 土臺가 되기에 充分한 資料의 하나이다.

燕行錄은 朝鮮王朝 5百年 동안 韓國과 中國 사이의 交涉關係를 自由롭게 記錄한 우리 民族의 記錄遺産이며, 당시 韓國과 東亞細亞, 韓國과 世界 여러 나라와의 交流에 關한 가장 彪大한 記錄이다. 燕行錄은 東亞細亞의 文學과 哲學, 文化와 歷史, 外交와 交易, 學問과 批評 등에 關한 실로 廣範하고 多樣的 記錄의 寶庫이다.

나는 한글보다 漢文을 먼저 배운 世代이다. 내가 처음 文字를 接한 것은 한글이 아니라 漢字였다. 내가 할아버님께 推句를 배울 무렵에 나는 할아버님께 유충렬전을 읽어 드렸다. 推句는 謹嚴한 音聲으로 統制되었으나 유충렬전은 재미있는 想像의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러나 그 후 나는 점점 繼續되는 中國文化의 餘震 속에 彷徨하면서 正작 내가 가야 할 길을 찾아나가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 같은 混亂에 빠져들 때가 많았다. 내가 韓國文學을 專攻하게 된 것은 中國學이 아닌 韓國學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다. 韓國人의 생각을 韓國式의 글자와 韓國式의 글 쓰기 方式으로 쓴 文學은 西紀 42年頃の 龜旨歌라는 노래가 처음이다. 그 뒤에 漢字를 빌어서 鄉札이라는 韓國式 글자로 쓴 鄉歌文學이 나타나며, 이어서 우리 글자로 쓴 한글문학이 나타나 오늘에 이르렀다. 다

른 한편으로는 紀元前 17年 韓國人의 생각을 中國式의 漢字와 中國式의 글 쓰기 方法으로 쓴 黃鳥歌라는 作品이 있다. 이러한 傳統을 잇는 文學이 三國과 高麗를 거쳐서 朝鮮王朝 末까지 韓國人의 생각하기와 글 쓰기 方式의 主流를 形成하여 왔다. 이와 같은 韓國文學의 두 갈래의 흐름이 있기는 하지만, 두 갈래 모두 中國文化와 떼어 수 없는 密接한 關係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나는 韓國文學의 中國影響 問題를 綿密하게 살펴보지 않고서는 韓國文學의 獨創性을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먼저 韓·中文學의 影響의 授受關係를 살펴보고 하였다. 文獻記錄을 根據로 論據를 提示할 수 있는 影響의 通路를 찾다보니 燕行錄이라는 큰 鑛脈이 發見된 것이다. 그래서 燕行錄을 調査하기 始作한 것이 1970年代 중반이다. 틈틈이 燕行錄을 調査하여 目錄을 만들고 資料를 모으는 일을 1978年 말까지 繼續하였다. 그 結果 豫想 밖으로 그 量이 尙大하고 몇 년 안에 다 찾아내서 整理할 수 있는 作業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찾아낸 資料마다 대체로 前人未踏의 새로운 것들이 많아서 그것을 읽는 時間 또한 몇 년 안으로 될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그 무렵 恩師님 몇 분께서 學位論문을 提出하지 않고 燕行錄의 世界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나를 보고 強力하게 方向轉換을 要請하였다. 燕行錄으로 韓·中文學의 影響 授受關係를 밝혀 學位論文으로 提出하려던 꿈을 不可避 점을 수밖에 없는 狀況에 이르게 된 것이 다. 나는 처음 構想하였던 順序를 바꾸어 鄉歌研究로 學位論文을 쓰고, 燕行錄研究는 다음 차례의 研究課題로 삼기로 하였다. 未練을 버리지 못하고 그 후 繼續 資料를 蒐集하여 오던 터에 1980年代 母校의 부름을 받고 研究室을 東國大學校로 옮기게 되었다. 木覓山이 바라보이는 研究室에 들어가던 첫날 나는 三希堂이라는 堂號를 만 들어 걸었다. 大學時節부터 構想하였던 세 가지 學問의 바람을 이루어 보려고 發願을 담아서 걸어본 것이다. 세 가지의 發願이란 첫째 새로운 方法의 鄉歌 研究와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鄉歌의 正確한 現代語譯, 둘째 歌辭文學의 原典全集 編纂과 그 註釋全集 出刊과 그 研究, 셋째 燕行錄 原典全集 編纂과 重要한 燕行錄의 翻譯全集 出刊과 그 研究였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成就된 것이 별로 없다. 첫째 것은 『新羅歌謠와 記述物의 研究』와 『우리 의 옛 노래』로 출간되었고, 둘째 것은 『歷代歌辭文學全集』으로 出刊된 바 있으며 進行中인 歌辭註釋作業이 그것

이다. 그중 燕行錄의 研究는 평 대신 닭으로 끝날 공산이 가장 커서 이 全集이라도 서둘러 펴내 學界에 多少라도 도움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出版을 決心하였다. 그동안 枝葉적으로 接近하여 보았던 『燕行歌辭原典 研究』와 『燕行錄研究』는 校訂 중에 있으므로 早晚間 出刊 될 것이다.

燕行錄은 大略 5百餘種이 存在할 것으로 推定된다. 그러나 내가 確認한 것은 400餘種이다. 앞으로 繼續하여 追跡調査를 해볼 計劃이다. 그중 380餘種을 모으는데 걸린 時間과 努力, 經濟的인 負擔과 발 품의 苦痛은 後日譚으로 남길 수밖에 없다. 나는 몇년 전에 民族文化推進黨에 韓國文集의 影印本 出版을 提案한 일이 있다. 그때 國庫로 影印本을 出版한다고 하여 學界에 否定的인 見解들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 들은 바 있다. 그러나 오늘날 그 作業이 韓國 人文學界에 얼마나 많은 寄與를 하고 있는가는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 『燕行錄全集』도 이번 出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障壁들이 隨時로 이 일의 推進黨을 가로막아 왔다. 그런 고비 고비마다 성균관대학에서 출간한 『燕行錄選集』 두 권과 民族文化推進黨에서 翻譯 出刊한 『國譯 燕行錄選集』 몇 권이 많은 慰勞를 하여주었다. 그리고 中國과 日本에서 이 全集의 出版이 궁금하여 일부러 찾아와 激勵하여 준 學者들과 國內의 뜻 있는 學者 몇 분의 激勵이 큰 慰勞가 되었다. 특히 韓國의 高柄翊 교수, 李佑成 교수의 指導助言과 黃元九 교수, 朴泰根 교수의 激勵이 많은 힘이 되었다. 中國 北京大學의 樂黛雲 교수, 浙江大學의 金健人 교수, 日本 京都大學의 夫馬進 교수의 激勵도 큰 힘이 되었다. 나와 이분들의 생각은 이번에 出版하는 『燕行錄全集』이 15世紀부터 20世紀까지 東亞細亞의 一級史料라는데 認識을 같이 하고 있었다. 燕行錄은 東亞細亞의 政治·經濟·外交·學術·文化에 관한 가장 自由로운 記錄이며 가장 彪大한 記錄遺産이다. 그리고 燕行錄의 擔當階層은 東亞細亞를 이끌어간 最上層部에 속하는 特殊集團이다. 燕行錄은 東亞細亞뿐 아니라 世界에 하나밖에 없는 特殊한 類型의 記錄遺産이다.

이 책이 東國大學校 出版部에서 나오게 된 데는 特別한 因緣이 있다. 1999年 가을 中國 北京大學에서 文學·史學·哲學 分野 韓·中 學術 세미나가 있었다. 東國大學校 宋錫球 總長께서 첫날 主題發表를 하고 이어서

이들 간 두 나라學者들의 個別發表가 있었다. 宋總長께서는 異例적으로 다른 日程을 뒤로 돌리고 開會式에서부터 閉會式 때까지 이 세미나에 參與하였다. 그 때 내 發表는 19世紀 燕行錄에 關한 것이었다. 發表가 끝나자 中國側의 여러 學者들이 이 問題에 많은 關心을 보였다. 中國 여러 地域의 몇 大學에서 燕行錄에 關心을 가진 研究者들이 資料 때문에 여러 번 韓國訪問을 하였으며, 그 때마다 東國大學校의 어느 教授가 『燕行錄全集』을 編纂하고 있으므로 머지않아 出刊될 것이라고 들었는데, 그 일이 어떻게 進行되어 가고 있는지는 質問이 쏟아져 나왔다. 質疑應答을 통해서 的確한 出版事情을 들은 宋總長께서 韓國과 東亞細亞의 學界를 위해서 東國大學校가 『燕行錄全集』 出版하는 問題를 積極 檢討하여 보겠다는 趣旨의 말씀을 하였다. 그 다음날 宋總長께서 歸國할 때 金浦空港에 迎接 나온 東國大學校 關係者들에게 곧바로 『燕行錄全集』 出版檢討를 指示함으로써 여러 차례 번거로운 節次를 거쳐 이번 出刊에 이르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全五十卷의 全集을 만들기로 하였으나, 옛날 複寫하여 編輯해 두었던 資料들이 狀態가 좋지 않고 編輯 또한 問題가 있어서 再作業을 하는 한편 資料를 補充하다 보니 全五十卷으로 消化할 分量을 훨씬 超過하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처음 編輯이 한 쪽 한 면으로 된 것이어서 한 쪽을 네 면으로 編輯하여 全五十卷으로 줄일 形便도 못 되었다. 一次 複寫한 原稿를 確認節次를 거친 다음에 다시 크기를 一定하게 複寫하고, 그것을 오려 臺紙에 붙여서 쪽 차례를 確認하고, 燕行時期를 찾아 그것을 燕行의 時期別로 整理·配列하고, 燕行錄 作者의 出生年代를 찾아 그것을 다시 作者의 出生年代順으로 配列하여 全一百卷으로 分冊한 뒤 卷別로 쪽을 매겨서 印刷所에 넘기는 아주 지루한 作業을 하였다. 이름 잡아 總 7萬餘張을 複寫하였으므로 重複된 資料를 골라내는 일 또한 쉽지 않았다. 編輯期間이 1年 3個月이나 걸렸으며 編輯 마무리 段階의 몇 달간은 編輯空間이 좁아서 講義室 크기의 房을 別途로 마련하여 編輯作業을 進行하였다. 이 全集의 차례를 처음에는 燕行年代順으로 配列하려고 모든 燕行錄의 作者와 燕行年代를 確認하였다. 그렇게 配列을 하여 살펴본 結果한 作者가 여러 차례 燕行을 한 경우 한 곳에 모여 있던 作品들이 여러 곳으로 散漫하게 흩어지는 問題가 發生하였다. 이 問題를 克服하려고 한 것이 이 全集에서 택한 燕行錄 作者가 태어난 時代順 配列方法이다.

이 『燕行錄全集』은 單純하지 않은 編纂作業을 한 사람이 單獨으로 遂行하였기 때문에 어려움이 특히 많았으며, 이로 인한 得失이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資料가 하나밖에 없는 行草書로 된 筆寫本 古書이거나 이런저런 資料들 속에 깊숙이 끼어 들어 있는 것을 찾아내 모은 것들이어서 冊體制의 均齊性이나 印刷의 鮮明性에 多少 滿足치 못한 部分이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흠어져 가려지고, 헤쳐 消滅되어 가는 東亞細亞의 貴重 文獻資料 燕行錄을 이렇게 한곳에 모아 책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이에 관한 그 어떠한 作業도 圓滿하게 遂行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것이 이 全集 刊行의 가장 큰 意味이다. 이제 이 全集으로 現代活字化가 可能하고 翻譯과 註釋 作業이 可能하게 되었다. 이번에 이 全集에 수록하지 못한 作品들은 續集으로 補完하여 마무리 할 豫定이다. 續集의 마무리 段階에서 解題集을 別冊으로 出版할 豫定이다.

이 全集을 펴내는 과정에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특히 東國大學校 宋錫球 總長님의 東亞細亞 學界를 위한 出版決斷에 感謝를 드린다. 그리고 貴重한 資料를 使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명지학원 兪榮九 理事長님, 연세대 黃元九 名譽教授님, 창영성씨 이현공과 成長慶 宗會長님, 동국대학교 鄭用吉 企劃人事處長님, 尹鐘燮 辯護士님과 일일이 舉名하지 못하는 많은 분들과 여러 關係機關에 고마운 뜻을 표한다. 일년 넘게 編輯室에서 默言으로 苦痛을 같이한 용지인쇄주식회사 金章燮 전무님의 勞苦를 잘 알고 있는 나로서는 感謝에 앞서 그 분께 먼저 慰勞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東國大學校 出版部 家族들도 어려운 일을 맡아서 進行하느라고 勞苦가 많았다. 이 모든 분들께 깊은 感謝를 드린다.

2001년 7월 20일

東峰涼月之室에서

林基中 씀

- 이全集의 이름에 쓰인 燕行錄이라는 表現은 朝天錄類 燕行錄類 瀋陽日記類 漂海錄類를 모두 總括하는 用語로 쓴 것이다.
- 이全集에 수록한 燕行錄은 寫本과 刊本、單行本과 文集本、國內本과 國外本을 蒐集하여 體系的으로 整理한 것이다.
- 이全集에 수록한 몇 種類의 燕行錄은 研究에 必要하다고 判斷되는 重要 異本을 같이 수록하였다.
- 이全集에는 이 分野 研究에 꼭 必要하다고 判斷되는 몇 種類의 燕行路程記 燕行別章帖 燕行地圖를 수록하였다.
- 이全集에 수록한 燕行詩 赴燕詩 등은 一定한 體系를 갖추고 있어서 이 分野 研究에 必要하다고 認定되는 것만 選別하여 수록하였다.
- 이全集의 燕行錄은 原典의 狀態를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하는데 主眼點을 두었으나 原典을 수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不得已 現代活字로 바꾸어서 수록하였다.
- 이全集의 燕行錄 配列은 作者의 出生年代順으로 하였으며、出生年代가 未詳일 때는 燕行年代順으로 하고、둘 다 未詳일 때는 맨 뒤로 配列하였다.
- 이全集의 燕行錄 配列順序를 作者의 出生年代順으로 한 까닭은 燕行錄을 作者別로 한 곳에 모으기 위함이었기 때문에、이全集의 別冊 目錄集에는 作者出生年度順 目錄 燕行年代順 目錄、燕行錄 이름의 가나다順 目錄、作者 이름의 가나다順 目錄을 別途로 作成하여 누구나 찾아보기 쉽도록 配慮하였다.
- 이全集에 수록하지 못한 國內本과 國外本은 곧 이어서 燕行錄全集 續集으로 續刊할 豫定이다.
- 이全集의 編輯이 마무리 될 때까지 編者가 入手하지 못한 燕行錄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東亞細亞의 學界를 위하여 續

集에는 꼭 들이 갈 수 있도록 아래 資料의 所藏者들께서는 積極 協助하여 주시기를 懇曲하게 付託드린다.

(연락처 : 02-543-5415° 02-2260-3146° FAX 02-543-5485° 02-2263-7093° e-mail: lmkz@donguk.edu)

- 갑인연행록(甲寅燕行錄), 황재(黃梓) 1689~), 필의재유고(畢依齋遺稿), 英祖10雍正12甲寅 1734
- 경오연행록(庚午燕行錄), 황재(黃梓) 1689~), 필의재유고(畢依齋遺稿), 英祖26乾隆15庚午 1750
- 경오유연일록(鏡沼遊燕日錄), 임백연(任百淵) 1802~1866), 경오유연일록(鏡沼遊燕日錄) 2册, 憲宗2道光16丙申 1836
- 금령연사초(錦齡燕槎抄), 미상(조선말), 금령연사초(錦齡燕槎抄) 1책?
- 북연기행(北燕紀行), 이노춘(李魯春) 1752~?), 북연기행(北燕紀行) 한글본, 正祖~乾隆48癸卯 1783
- 북원록(北輶錄), 이상봉(李商鳳?~?), 북원록(北輶錄) 5册?
- 북유만록(北遊漫錄), 이호민(李好敏) 1762~?), 간산북유록(簡山北遊錄), 純祖21道光26辛巳 1821
- 북행일기(北行日記), 나덕헌(羅德憲) 1573~1640), 장암집(莊巖集), 卷2, 仁祖14崇德1丙子 1636
- 사양재외집상봉록(四養齋外集桑蓬錄), 최호부(崔浩溥?~?), 사양재외집상봉록(四養齋外集桑蓬錄) 6册, 憲宗5道光19己亥 1839
- 상봉록(桑蓬錄), 최호부(崔浩溥?~?), 상봉록(桑蓬錄) 2册, 憲宗5道光19己亥 1839
- 수사록(隨槎錄), 한필교(韓弼教) 1807~1878), 수사록(隨槎錄) 3册, 憲宗5道光19己亥 1839
- 수사한필(隨槎閑筆), 권복인(權復仁, 純祖때), 수사한필(隨槎閑筆) 1册, 純祖22道光2壬午 1822
- 슈로도천록, 미상(??~?), 슈로도천록 사본 1册, 仁祖2天啓4甲子 1624
- 시북선생노정기(市北先生路程記), 남이웅(南以雄) 1575~1648), 시북선생노정기(市北先生路程記) 1册, 仁祖4天啓6丙寅 1626
- 심행록(瀟行錄), 윤홍금(尹弘禽) 1641~?), 심행록(瀟行錄) 1册, 肅宗24康熙37戊寅 1698
- 연사록(燕槎錄), 정원용(鄭元容) 1783~1873), 연사록(燕槎錄) 1册, 純祖31道光11辛卯 1831
- 연사수록(燕槎隨錄), 이삼은(李三隱?~?), 연사수록(燕槎隨錄) 1册(卷3~4)?

연사일기(燕樣日記), 정희영(鄭羲永, 哲宗 때), 연사일기(燕樣日記) 1册, 哲宗14同治2 癸亥 1863

연사필기(燕樣筆記), 정○○(鄭○○, 朝鮮, 東亞大), 연사필기(燕樣筆記) 2册

연행록(燕行錄), 김노경(金魯敬, 1766-1840), 연행록(燕行錄), 16册, 純祖22道光2 壬午 1822

연행록(燕行錄), 이정운(李鼎運, 1743-?), 연행록(燕行錄) 1册, 正祖8乾隆49 甲辰 1784

조천록(朝天錄), 이석형(李石亨, 1415-1477), 저헌유고(樗軒遺稿), 世祖5天順3 己卯 1459

연행시(燕行詩), 조석명(趙錫命, 1674-1753), 묵소집(墨沼集) 卷1, 景宗2康熙61 壬寅 1722

연행일기(燕行日記), 박재인(朴齊寅, 哲宗 때), 연행일기(燕行日記) 3册, 哲宗11咸豐1 庚申 1860

연행일록(燕行日錄), 미상(??), 연행일록(燕行日錄) 1册, 純祖31道光11 辛卯 1831

연행일승(丁酉燕行日乘), 심지원(沈之源, 1593-1662), 만사유고(晩沙遺稿), 孝宗8順治14 丁酉 1657

연행잡기(燕行雜記), 홍대용(洪大容, 1731-1783), 연행잡기(燕行雜記) 2册, 英祖42乾隆31 丙戌 1766

연행록, 미상(??), 연행록(燕行錄) 1册?

일암연기(一庵燕記), 이기지(李器之, 1690-1722), 일암연기(一庵燕記) 5册, 肅宗46康熙59 庚子 1720

정유연행일승(丁酉燕行日乘), 심지원(沈之源, 1593-1662), 만사유고(晩沙遺稿) 卷3, 孝宗8順治14 丁酉 1657

조천일기(朝天日記), 최기(崔沂, 1553-1616), 조천일기(朝天日記) 1册, 宣祖40萬曆35 丁未 1607

조천행록(朝天行錄), 황진(黃進, 1542-1606), 서담집(西潭集), 宣祖20萬曆15 丁亥 1587

조천록(朝天錄), 이덕형(李德炯, 1566-1645), 죽천유고(竹泉遺稿) 1册, 仁祖2天啓4 甲子 1624

천행록 坤, 이덕형(李德炯, 1566-1645), 천행록 坤, 1册, 仁祖2天啓4 甲子 16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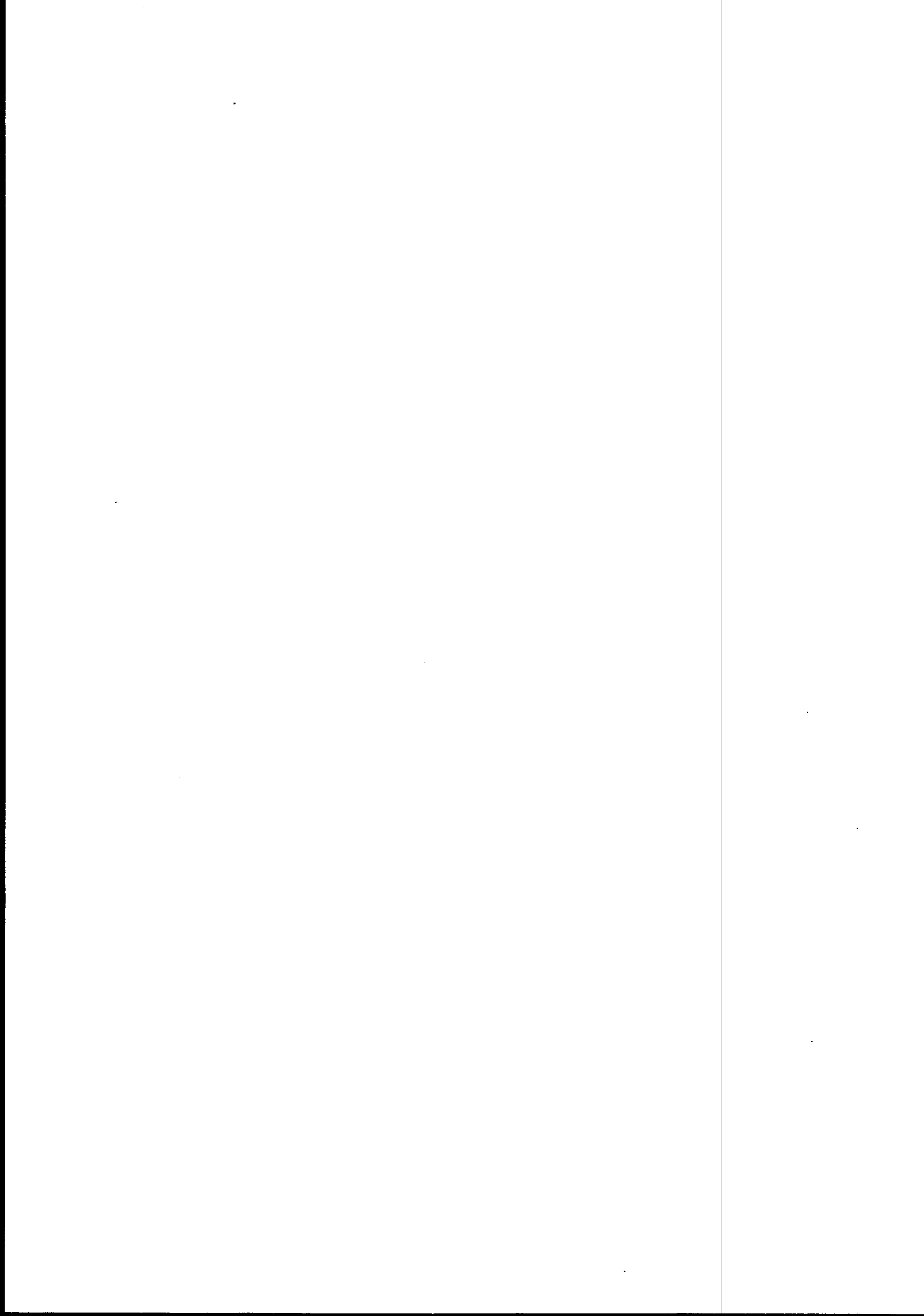
지정연기(芝汀燕記), 원재명(元在明, 1763-1817), 지정연기(芝汀燕記) 1册, 純祖4嘉慶9 甲子 1804

한포재사행일기(寒圃齋使行日記), 이건명(李健命, 1663-1722), 한포재사행일기(寒圃齋使行日記) 1册, 肅宗24康熙37 戊寅 1698

해사조천일록(海峯朝天日錄), 오윤겸(吳允謙, 1559-1636), 추탄유집(楸灘遺集), 光海14天啓2 壬戌 1622 (9-37)

차례

• 천유고연행시(天游稿燕行詩)	권복인(權復仁, (?-1882-?))
• 몽경당일사(夢經堂日史)	서경순(徐慶淳, 1894-?)
	94 111
	94 153



天遊稿燕行詩

叙游
子午

游者玩物適情之謂。古人有以方內外分而言之者。焉。仁義之圃。詩書之圃。禮樂藝術之藪。是皆儒者箴。修宴息之所也。夫子山水仁智之訓。晦翁遠游擢訝。之作。從容涵泳。乎日用之間。以養其情性。而未嘗離。於中正之域也。彼莊周屈原之流。慨夫世俗之迫。溢。思欲高舉遠引。放言以自釋。鯤鵬之變化。逍遙營魄。之窮。覽六區曠遠。譎恠使見者神馳。而心解。此豈宗。際哉。然而古今言游者。掇其緒餘。而樂慕焉。誠由乎。

未得聖賢之真腴，妄窺竊門，弱喪而坐馳者也。使吾將游乎，則為其內乎？抑為其外乎？其所謂方者，畛域也。有畛者，果小而無畛者，果大乎？大者可以適情而小者，不足以適情乎？古之人有不出牖戶而周知天下，翱翔萬物之表，獨觀昭曠之原，彼果分乎方之外內哉？吾海隅人耳，足跡未嘗出數百里外。今北轅而造燕河，微原野之曠，垠城郭宮觀之鉅麗，皆得以寓目。自此其小者可大而內者，可外乎？將不失其畛，能玩物而適情乎？如一遇宏博奇偉之士，論而決焉。

北程課述小序

壬午

凡燕行者計道里記陰晴事為冗瑣詳而無遺備日
後改名曰日記例耳余之行以歲壬午七月廿六日
發漢師九月二十二日抵玉河館十一月廿七日還
家恰計為一百二十日忽迫不能作日記每日課以
詩若文自始發至留館未或輟也多於馬上車中及
燈下率成歸而細閱可愧者多自視如此矧可為他
人視乎然有人索日記則無以應強以是出視曰此
吾燕行日記云爾

記

禾谷山游記

軒
賦
春

介水南龍湖之間呀然而小者曰禾谷二口兩峰對峙若門闕焉谷之水西流而為溪二三里及江而止溪南北有村十數家星散而棋置從谷口望岩樾翳然不覺有人居也過是者睨其荒隘而不顧居焉者猶歛然自小以為無所有也余僑于茲比三稔而同人春仲甫裁日約伴携餐醪炊具升自谷口之左峰至右峰而止若環而堵焉計其程為一舍而遠于時宿雨秋收天氣澄鮮松風沁骨花香撒鼻陟而憩藉草傾壺峰曰德屯降而集擷蔬煮花谷名曰卽臨流依樹而炊白泥塊復登而眺望遠近曰場嶺凡以峰

名者三四以谷名者十數不必盡舉也每至高處大江如一疋練從北來至南而止龍門據角亢之位蜿蜒雲氣間三角為夕靄所掩如碧芙蓉初出烟水中近而五六十里內園林阡陌溪壑洲島舉為吾樽俎間物豈不偉哉余顧謂春仲甫曰凡山水之體執意趣與觀人無異洞見其肺腑而後當為去取豈可驟覩其外以為荒且陋而不顧也哉向吾與子亦如衆人之見寧有今日之樂乎非獨游覽然也請與為淺知貌失之戒焉同游者春仲之宗弟寅伯寅伯之兩季及昌原俞元甫光山金拜言也壬戌姑洗月穀雨

前一日花山權記

愛睡軒記

己卯

余有攤書之癖每風日恬適庭牖寥閱解帶索枕陶
陶兀兀世間一切勞薪冗塵不接於心目自謂神游
之樂无過於此其詩曰雨打芭蕉怕夢回又云槐瘦
挑笙賴爾依蓋志寔也茲乃居閒習懶之者之為而
顧非莊敬幹敏之旨故不敢向人詡也近寓西園
鄰於尹而善之室焉而善少余十餘歲而秀而文可
與游觀其平居儀容齊遯出言琅然有序中紳偏鞵
必道整丙舍苦蓋僅二楹其外為小軒兩人可對坐

常掃除靚潔度書籍置筆硯皆有方列土墻外小井
古柳數株毳_二掩映其居巷淺而易覓也日來過從
者多名輩韵士與之揚摧數千年淹博精核屬文自
功令諸體以及古詩歌騷傳記豐蔚馳翔並中規度
然不以自多方進以求其至焉概其行猶逸驥之駕
而就途也猶干將之刃鋸新發於礪也軒壁有題字
曰愛睡叩其說迺自号云余諗之曰愛睡如吾樗散
瓠落者而後可夫以而善之蠶涌摩厲以修名業不
當為此以自瘡乎顏肆也又從以釋之曰真人其睡
也昭曠衆人其醒也蒙昧然則睡者未嘗睡而醒者

未嘗醒也醒而睡者未嘗睡而醒者醒者笑乎名者
睡乎名利者睡乎利憂者睡乎憂勞者睡乎勞一大
局俱若老黑色棋也一有真睡者知其真而愛之方
且仁義為室廬六藝為枕簟經綸為帷帟法制為扃
鍵偕我元仁休仁息仁以底乎華胥之域則睡之功
用大矣哉染園周蝶之喻希夷混沌之譜不過假睡
以自放耳不必為而善道願而善之愛睡擇術而自
治無為孝先便仁之腹可乎

養真觀記

己卯

近世為士者譚文析理高視翔步而鮮能葆真性明

真心出真言行真事雖誓然自持而虛偽不察猶紙
花木植耳此由於彌文之流弊而探其本診其病則
豈非養之之失其道乎李友稚深甫居於漢師之西
閨與余鄰比故數相造訪習其為人讀書而不事乎
藻筆治生而不慕乎榮利聽其言直而拙察其行謹
而厚終日不出於環堵之室間以書函棋酒自適然
亦未嘗及於荒嬉泊然而靜退然而安儘今世之真
人所居室扁之曰養真蓋識其窠也一日余過而
諗之曰真不可以易幾也願其所養之如何耳古聖
賢千言萬行擱血捧痕都不出一真字而鄒孟氏最

善發揮其旨曰養性者所以養真性也曰養氣者所以養真氣也曰樂天知命曰存理遏欲無非養真之真詮妙訣子能體認宗受鞭辟近裡則成就真正學問而不墮乎芻門異趣矣然而養之之功不可一朝襲而取之也必沈潛積累優游厭飫確乎其不移恭乎其自樂以臻于无妄之誠則應天下之物而措天下之事沛然有餘一毫之偽無復容乎其間也蒙莊內篇盛言真人之逍遙養生之要道而夸訕恣睢沒得下稍一分受用處養之無方而去真愈遠矣世俗梘蠟之態既非稚深所習而近好讀南華書故並及

之以為養真之箴云

斐園記

己卯八月中旬

君子有所存乎中則文之著於外者自然而美苟無
所存焉雖修飾藻績而矯誕奄雜去文益遠矣是故
令言治貌非文也工詞捷翰非文也唯有自家一片
好箇田地不梏於物欲不墮於俗臼充之以道義博
之以典墳夫然後不求文而文自至矣李上舍汝矩
出於詩禮之門游於文藝之場迺以斐園自號斐者
文章相錯之謂也夫子所稱斐然成章是已余知汝
矩久矣居家孝友無違行與人惻怛而虛受終年讀

古聖賢經傳而几案間未嘗見裨史雜書座上無酒
明奕徒以親老而家絀專意劬力於功令文字早已
登庠其業愈進而未已概其為人靜而近道樸而好
古其中介然有守不事夸靡以銜乎外者也夫天之
文日月星辰是也地之文山川草木是也其始焉精
英鍾結渾灑磅礴故高明博厚之文終能貞觀乎宇
宙人以藐然之身叅三才而宰萬物積乎中者厚則
著於外者大譬猶膏之多者其光燁如也根之深者
其醜爛然也雖然文理未有不相錯以成者染采豔
績之事三入為纁七八為緇白與黑謂之黼黑與青

謂之黻五采備謂之繡而其質則素也學者用篤案之心致博約之工而真積力久而後自然成章而達猶纁緇黼黻之歷手多而費功屢錯然成文以臻乎絢錦袞繡之美也願汝矩明乎表裡精粗之辨無為小文而益用力乎大者其可乎

規五齋記 己卯

海平尹復仲之第在白門內相傳凡四世舊有丙舍聯於下室突變險陋夏不能通風冬不能納陽居者病之左傍又有子舍歲久頽圯仍撤其材而拓其址架為十楹其中室軒龕間織悉由備前有土阜偪側

者剗而平之為庭方可數十武繚以土墻立中門于
北端以限出入內外始井口有度而儼然為爽塏之
區閱二年始斷手而木石瓦鉄工費之積累心思目
運規度而營置者不知幾歲月矣地不甚高屋不甚
廣而疏徹夷曠京都遠近諸山環匝拱揖蒼翠峭徭
列於窓檻東南隅尤宜遠眺烟雲之起滅閭井之布
絡隱約映帶可坐而收涼簷消暑暘牖遠寒醞藉幽
靚便於起居不知其處闐闐而通康莊也復仲法家
人早已息意進取不事交遊而矻口乎養生奉先之
為務一介不妄取于人而常存睦婣之誼好古飭躬

朴宗無華世知復仲者蓋罕矣新舍既成以視五命
名此寔李克對魏侯之語而取以自警耳余羨其意
而廣之曰自視者明然後能視人不能自視而先欲
視人則無異於反鑑而索照也雖以離婁之明能察
秋毫之末而不能近見其眉睫洪範五事視曰明二
作哲蓋哲者無不明也無不明者不徒謂目之明而
要在心之官為之主明則通二則公二則博至於觀
人之善惡是非瞭然若燭照而數計矣維五中數也
於行屬土於德為信君子黃中通理信以居之即坤
道之極功也夫何必竊二求視乎富貧窮達之際以

為自足哉履仲既能務宗而主信幾乎道矣故勉以
自視而視人庸寓張老善頌之義焉

西山記

壬午燕行時作△其後修園舊稿成此篇
舊本載下卷△此下至前門烟樹記并燕行時作

燕都無山而西山始山焉水皆濁流而西湖澄泓一
碧數十里在城兌隅故山與湖以西名地誌太行山
首始河內北至幽州第八陁為西山京師以西山晴
雪為景之最其南為香山上有二大石狀似香爐
故名萬曆初神宗或神宗下有游幸二字駐蹕于北悅其翠色飛動錫以
宸翰徧曰來青其近為玉泉山二頂懸厓有泉出焉
是為玉泉一名裂帛湖玉泉香山西山一岡而異名

起伏屈曲如屏風玉泉下流匯為西湖貫都城由大通橋注白河入于渤海凡城之內水總名曰玉河以

其源於玉泉也舊有洪光功德碧雲中峰望湖華岩

諸勝

盤山王朔香山寺云蘭若費出寺香山碧樹深
忘將行遠僧松已發長吟消酒淡歸內莊若峯

向陵祝聲新色澤所構正三益○茶陵李東陽香山
寺云半嶺香塔石廷科諸空繅鐵送天花新開塔寺

雄西郭舊賜經幢出內家遊苦亭前春帶雨曰龍殿
下水明霞太平天子無此幸頭白山僧誦法華○餘

地王守仁游西山云尋山到山寺侍志却忘山岩樹
坐未靜壁藉春白閑樓怡星斗上鐘碧翠微問頓息

虛泉思青谿靖月還○濟南李琴龍香山寺云社時
占紫氣山香香爐不足尋幽到其如發興孤迴標

阮北極秀色攬心湖樹杪諸天出塔前衆整超花怡
塞地起風鋒瓶簪呼月抱蟾蜍石星極舍利珠玉毫

皆使濕水金相湧浮屠行幸當年事人王握大符○太
帝力下界復神都行幸當年事人王握大符○太

倉王世貞布金山寺云白雲深鎖上方出
 問惠休竹裡布企十月至松間鳴玉虎泉
 龍蟠餘轉半錫天回烟迥坐久忽驚心地
 西竺在南州○山陰徐渭來青軒云西棟
 得倚漢司序非邀翠入山自送青來遠色
 觀縱未回共言春景麗不見仗人倩○應
 朱青軒地窄愛看十里杏花無體罷空王
 雲根開地窄愛看十里杏花無體罷空王
 鳥晨昏鐘後啼從倚詞臣蓮侍從末青
 大洲文徵明碧雲寺云第微侍朱菲翔紫
 摘日晶青蓮苑持閣分明作化城復淵
 倚徐鳴珮玦三花拂檻映筵益貴人一
 花依倚識姓名○東陵諱元春洪光寺尋
 如○是去○勢有泉深到樹音松柏午天
 人風雨晚秋心○宛平奕正十作庵雨後
 云湖石思且裂未雨偷雨度六月漲易生
 見飛○自跌來○道橫斜練石冷水忽立
 電笠後臨欲寒斜陽獨坐羨○吉水胡廣
 玉泉之山下出泉江流紫折如虹懸却帶
 苑直下通津北百川微風時動碧波

光園其會見古大影故獨記得金元平○監山王
 朝由望湖亭至華岩寺云在亭開竅苑湖望亦微茫
 馬揮垂楊係華杉近水幾○月光恢苑鐘約引秋長
 酒醒寒仍舊何應典客裏○華容列大夏口德寺云
 最是抵園林木深鍾未伊通路難尋春却未了看花
 事清托空聞隔葉昏酒醒微風坡樹遠詩成斜日半
 山陰相違傲乾湖造宿古鉢分衆流我心○餘姚王
 序仁夜宿功德寺云山行初試夫衣輕脚軟黃塵石
 是明風吹月渡溪清
 乾隆時浚拓而累增之因其面
 勢極土木之巧殫天下財力五十年而宏麗之觀甲
 於千古余以壬午九月八燕越一月二日賃車自玉
 河館穿西四街出德勝門燕京西門大路皆石甃也倚多
 林木莊院塚塋頓生郊垆蕭寂意遙見紫翠一堆湧
 出車前人指曰此西山也於是心目朗然十里餘路

右覺教寺大鍾銅也

乾隆時所製重八萬七千斤云

鍾體內外乾法

華經楷書布滿無空處又十里餘地名海田映帶華
薄曲通清渠枯荷敗葦鳧鵝唼呷兩岸樓亭對起雕
檻綺疏妍整蒲洒多是貴家別業其南限以長堤水
田累千頃溝塍畷布渺然無際新有刈稻痕朝餌于
海田日終已刻矣稍西北行里許為圓明苑內堆
宮巖邃殿曰正大光明閣曰山高水長者最宏侈宮
門閉禁入闕入由右側小閘曲折行數百武穹然如
圓屋者元丞相耶律楚材墓也墓前祠二有石像方
面而髻脩髯過腹祠前碑乾隆帝所撰此墓古稱甕

山者荒榛衰草短堊埋沒歷累百年今為宮籞御宿

之所被其崇飭如此榜里子占葬地於渭南上林似

之吁亦異矣兵縣王整題元耶律丞相墓云四山幾

方用夏居肅從此不為開猶開幸地三解委白笑登

高獨影開今日幽點歸聖代可憐埋骨尚荒山○順

天列效祖甕山耶律相云逆避荒山下技捺拜古祠

衣冠猶在粧歲月已明時溪遠泉聲細林深日影遲

黃沙空朔漠稍北為帝園口凡二十四架三而墨石

為壁前鏡葉門上施銅絲網三重有圓竅人從上懸

肉以飼庖其倚熊欄鏡條為之如豚柵又西北循坡

陀行一响許地漸寬敞湖水漸近斷續隱現如疋練

光左為文昌閣右為閱武樓閣中祠文昌星神屋三

層高二十餘丈有扶雲駕虹之勢樓二層廣博雄侈
皆衆綠尾樓前地面坦而砥周十餘里乃演武校獵
之場北踰小石橋沿湖行一里許洲勢逶迤斗入如
龍尾形路右銅牛卧地細篆銘其背不知是何用也
銅牛東百餘步兩牌樓對立其內浩然亭不甚精麗
而明敞四達宜眺望亭西北大湖深濶非方舟不可
涉遂為石橋十七架以抵彼岸偃虹相銜橫截素湍
若連環然護橋兩傍石欄瑩膩柱頭獅子踞相顧類
活動橋面承履處鴈齒差々渡者不慄其危不厭其
遠也橋盡而與二盤而磴二窮而坳二巔寘閣扁曰

洞庭留賞閣前方石小壇周以石欄閣下洞穴幽宵
可隱憇環其奇峭者為岫陰者為阜散者為磯磴道
可左右下上夾以紅綠小欄干雜卉垂藤蒙茸側生
細楓聶聶胷人衣裾閣之所止直湖中一假山也並
奇石累成者人工叅天巧當費石鉅億計耳方其渡
十七橋時側見西山宮殿統露一作露其一半駐橋上不忍
移步後者促之始能前及登洞庭之閣平立正視湖
勢平圓玻璃萬頃彩霞霽雲隔水翔空是為西山一
副全本也峯之圓而尖秀曰萬壽其下最高處為鳳
凰樓又稍低而平為鳳凰閣皆三重屋渾棗黃尾複

道迴廊瑣總綺寮如蜂房燕窠半為樹杪所掩略可
指辨時夕照正射暈靄不定倒湧波心蕩漾無際為
蜃樓海市雖有敏口莫適名狀湖滄石虹門瑩然如
月其出入處也並湖之隄皆石築捍水縫合處鑿眼
至底鎔鉄鋼之防其圯已而還渡十七橋東南循隄
行至湖狹處跨石橋曰繡綺穹窿如大虹垂飲其下
通五丈之檣東北港歲龍舟二渡橋北數弓地洲嶼
穿絡樓閣聯互亭曰星漢虹騫橋曰玉帶曰練橋閣
曰心賞至水而止此為洞庭閣之背而洲港間之不
與通也是橋側對西山而香山隱約可望直六七里

許室屋櫛比累千戶廣朗行沃有田園之饒西北岡

有達文皇帝陵

皇明通紀云正統中達文自滇還京迎入南內碑曰老伴卒葬西山迺其

碑曰天下大

岡下一塔皜然梵宇環之坐橋上良久

出所齋酒脯相啗一胡撐小艇過前使舌隸要與泛

湖周觀搖手不顧而去童兒十餘弄雜賣糖呼之前

觀其戲耍日已晡矣倚見輿夫駑徒視蔭口喃容

頓蹙蓋燕京城門逮明而開逮昏而閉慮其不及迄

也遂命駕疾驅繞入都門西市燈火熒煌抵館已二

鼓矣余一無余於二字於日前由西華門至宮苑諦視宮城之制方

而微脩其西環二仞之壕四出為橋通于大內苑北

大石橋牌樓。魏燬。扁曰金鰲。玉棟。萬歲景山。相對如角。其下大水渺漫。黛碧夾以石欄。垂楊率地。氈毳五龍亭。巋然臨之。太液微波。長楊高樹。眼前景也。萬歲山壽皇亭。即崇禎烈皇帝殉社之所。令人循覽。傷慨。觀西山。始知水源之所自。玉泉濫觴也。十七橋鏡心也。繡漪縮轂也。至德勝開水閘十餘。以受其委。自宮內挈龍舟。曳錦纜。泝流而上。賞花採蓮。外人勿知也。雖然。坎位空虛。玄武衝破。其虞北寇哉。概其匠心之所設。槩括古今。鳳凰之樓。肖摸金陵。洞庭之閣。略倣君山。文昌閱武井。幹凌雲之高也。玉泉海田。

昆明曲江之勝也竊怪夫阿房栢梁迷樓艮嶽有一
於此危亾隨至今西山一局無有之矣海內晏如豐
豫三世豈天意人心與古昔異宮室之瓊瑤墻宇之
雕峻狃以為常而無害一有於歟逢周菊人達龔中書
自珍周松江人龔浙江人譚吹問西山之勝比金陵
錢塘何如並言山水江南無對樓觀之飾西山為最
此言信不誣矣噫燕城一週六十里爛然金碧錦繡
叢迴風一起黑塵迷天唯西山乍可開眼距城為由
旬地必一日內往返故尊食駕快驛二不停蹄人不
停驂既入海田不知有圓明入圓明不知有西湖及

見西湖以為觀止又有香山擁護拱揖留有餘不盡
 之景目湖者不暇於山目山者不暇於湖橋而忘隄
 閣而忘樓憊者氣喘癡者口呿譬如滾毬走馬燈一
 霎而千百變直幻景也一作耳回思皇明時都人士女踏
 青泛月於烟水洲渚之間能無匪風忝離之感乎湖
 山一區關游有禁所謂江頭宮殿鎖千門也太行之
 殘麓玉泉之勺水久罹百六之厄哉余謂燕都有三
 不朽太學石鼓岳武穆文信國祠鼓周雅祠宋瑾值
 河清陽復之日三者益光而西山一作耳在當剛石鼓在

門內史籍所書○唐韋應物石鼓歌云周宣王五大猱
 昔岐之陽刻石表功兮埽堙石如鼓形數止十風

雨缺謫谷鮮洪今人沈絃脫其文既擊既掃白黑分
 忽開滿卷不可識驚塔動整走云。飛造委蛇相糾
 結乃宣王之百史稽作一書道此天地問精意長
 存，女與漢蔡家祖龍還刻石。碣石之界亭斯迹在
 法古猶心侍持末此此殊懸。隋。入祠中靴。生。實。衣。帶。
 東南七里許。侍。可。天。與。滿。人。或。入。祠。中。靴。生。實。衣。帶。
 不敢近。○文山祠在太學東。即崇。市。故。址。刻。危。馬。
 銘真像後。○永堂。曾。架。竭。丈。坐。相。祠。云。因。事。跟。危。馬。
 東句平生。疾。慨。竟。拊。身。百。年。社。稷。歸。元。主。萬。古。祠。堂。
 表宋臣已見。高。名。垂。宇。宙。還。瞻。遺。像。甫。琴。紳。莫。疑。若。
 血生。考。中。留。得。忠。魂。魄。歲。○春。厚。○吳。縣。王。整。信。國。祠。云。
 義氣橫天。白。日。陰。魏。然。遺。像。厚。○吳。縣。王。整。信。國。祠。云。
 士三仔難。四。後。謀。心。自。昔。好。諛。誰。不。死。如。今。元。留。侯。
 社亦銷沈。黃。昏。紫。市。風。沙。慘。回。首。行。人。淚。不。禁。是。月。

小晦記于閭陽驛燈下

遊西山記

生外國不見燕京不能以盡其大遊燕京不見西山

不足以盡其美斯言信矣乎八燕之旬有一日自玉
河館出德勝門甃石為路車轍與石相觸隱辘斷續
此抵西山路也傍多林木間有塚塋有郊坰幽閒意
十里許右倚有覺教寺二後層樓懸大鍾重八萬七
千斤表裡皆楷書經文字凸起布滿齊整殆無空隙
範鑄之妙如此又十里餘地名海田林阜縈抱溝渠
曲折為陂為塘中多芙蓉菱葦綠渠屋舍皆雕檻綺
疏相望不絕俱是貴家亭榭華整蕭洒宛有江鄉湖
居之勝水之委限以長堤為水田累千頃塍澮綺錯
渺然無際海田西北曰圓明苑二下為行宮而殿曰

正大光明閣曰山高水長者寂鉅麗歷右側小閣內
有耶律楚材墓。前有祠塑其像長鬚而端方祠前
立穹碑紀其蹟乾隆筆也稍西席圈。下熊欄圈以
銅網欄以鍊條圈無席而欄有玄熊一見人作衝突
勢西行數弓地有閱武樓。東南為文昌閣樓與閣
皆綠碧瓦高聳竒麗北來見閣名文昌者比。而此
為甲閱武之西地光面濯平圈周十餘里此乃演武
校塲之所南過小石橋綠水築道以石灰如從盤陀
上行幾里許折而西右側銅牛作卧形背刻篆書銘
文銅牛西數十武牌樓對峙內有浩然亭明敞四達

可以眺望亭北水勢甚濶湖名橫十七架虹橋以抵
北岸石色鮮潔如雪兩倚縷獅形於檻頭精巧類活
水至橋下汪洋滙瀉鑑空黛碧俄於閱武樓稍見西
山之尾若甍若簷丹石碧石隱約林薄間如屏障上
罨漻觀者已魄動及至十七橋湖山一帶飛舞招呼
坐橋久不能移步既渡而岸疊竒石為山洞壑巖峭
突奧秀發雜卉蒙茸於其罅彩閣跨巔扁曰洞庭留
賞左右磴道盤石曲折夾以紅綠欄閣前寘方石壇
欄以周之亦石也從閣東平立東望西山恰與為對
宮殿體勢了石可辨其主峰圓而上尖名萬壽其北

名玉泉其下占地高者為鳳凰樓下為鳳凰閣樓
聳而高閣方而大並三成屋渾黃瓦又下迤而平
皆是複殿脩廊蜂房燕窠連亘彌望闢彩斲巧嘉樹
葱蒨類檜檜自峰腰至椒麓列植成行壁題繡椽半
為樹杪所掩尤覺娥媚夕暉高卷金碧倒寫於穀浪
烟漪中搖漾不定洞庭之閣斗入湖中如君山一點
遙對岳樓以為眉目仙家所云十二樓五城及蓬萊
五色望之如雲正為此道耳十七橋西畔為綉漪橋
穹窿特起如數十丈虹下通帆檣岸北維龍舟二渡
綉漪沿洲行三四百步樓閣次第相連有亭曰星漢

虹駕有橋曰玉帶曰練橋閣曰延賞凡五重至水而
止與西山側對近可狎玩別有幽窅之趣環湖之欄
其石一色甃石捍水處並以鐵釘固之起西山至繡
漪周十餘里西山之北陰然而紫翠曰香山山下亦
有行宮及寺塔地廣衍村舍園林計累千戶其西北
有達文皇帝陵皇明通記稱達文自滇還京迎入南
內葬曰老佛平茲西山題其碑曰天
下大師香山玉泉俱自太行而來水則源於白河至
西山而湖與山相得交會曠遠明媚舊為燕都取勝
之地皇明時有卜青閣中
神曰德恩寺乾隆時益疏滌壘造窮極
土木之巧苑林臺榭並倣金陵錢塘修飾累十年而

成匠心之妙直叅造化始入海田者不知有圓明入
圓明者不知有西山及見西山以為觀止又有香山
擁護映帶留有餘不盡之景游此者一日內遍搜數
十里之勝目山者不暇於湖目湖者不暇於林危亭
壯閣旁起迭出曲檻長橋前迎後送體勢莫究首尾
難卜慧識敏口不能狀其什一皇城北苑景山下有
玉棟金螭橋是為御溝與西山湖水相接兩傍列植
垂柳限以石欄彩鳧鱗比水勢瀟漫穿城而來方舟
可達恰為由甸地春和景明百花被洲夏秋之交菱
荷吐妍則其勝絕尤可想向見周菊人龔定盦周松

江人龔錢塘人並言南京西湖比諸西山江山清秀
勝之而樓觀瑰麗不及云此言可以領會竊怪夫章
華栢梁迷樓艮嶽有一於此危亡隨至而今此西山
一苟無數者而過之豐豫百年海內無警豈治法政
謨優於前代歟抑天意民心與古昔不同而興替脩
短不係於侈靡歟十月小晦記于閩陽驛燈下

薊門烟樹記

在家靜坐著水精籠眼細玩董北苑倪雲林春山曉
江諸幅及我東譙玄水墨寫意得意筆以為名匠獨
得之妙迴出三昧雖真個好山水不能若是後因入

峽泝江早起見喬林峭巖出沒雲嵐中竒態萬變爽
然自失更以為繪事終不如化工真境兩者交置于
心眩未能一取決焉今作燕行自遠而瀋而閑而薊
數千里總之為一丘野耳自豐潤玉田至枯樹鰲山
之間霜秋澄曉平蕪極目西望無際村塢襍樹錯落
青葱近者如迎遠者如隱竦者如踣短者如伏有氣
霏微似烟非靄橫蒼抹白縷斷匹屬與樹互值吞吐
浮沉平陸為海嶽漫際天芥人豆馬漂搖其中略可
辨詰終焉眼顛神迷靡所方向不覺身墮幻界果未
知樹者為烟乎烟者為樹乎記云山雲如樹野雲車

蓋澤雲水波山澤之氣噓而為是乎東南有海市蜃
樓峨嵋有金燈西方有香霧海是皆珍寶之所積仙
佛之所宅種_二譎恠非思議所及抑亦野之至大而
氣之所聚而然歟不於遠與瀋而獨現於薊者何也
蓋造物之巧不必窮其所以然也雖有顧陸之技彈
精積思烏能形容其萬一哉余之向所以未決於心
與目者於是乎得矣

記玉田 壬午

北史風土記玉田在薊州藍水注之即翁伯種玉處
註云翁伯周景王時人性喜施日給義漿於路傍積

年不輟有老人與石子一升曰此玉子種之生玉又
可得美妻翁伯如其言果生玉得白璧五獲娶北平
徐氏賢而美云此事殊涉怪誕而史氏識之烏可不
信哉古有雀環魚珠之報安知神人之不能種石為
玉耶記云水之方流者生玉此地之水或有方流而
然歟蓋行善而獲報理之必然地以人名歷千載而
稱道之亦竒矣藍田種玉此地是已非秦中之藍田
也偶經玉田留宿檢故事以志感焉

幻戲 壬午

反於真謂之幻。可以信乎人之所自信者莫如心。

與目而至若目擊而不能辨詰心識而不能思議始
謂之幻古稱西域有術人之術以為奇觀左元放葛
稚川之流擲杯化鶴噴鉢為蜂以狡獪小數欺庸人
之心與目後人指以為幻固也雖然此皆有道術符
咒誠有可取今見燕都鬻幻技者衣契形醜類傭丐
白日街市迭進呈戲如優人演劇無端之環自連已
斬之繩復續掌中紅丸忽現忽隱地上銅錢乍少乍
多呼盆魚而立至呵寸縑而為蛇各品菓棗出自衣
底一霎黃雀飛出指端竹刺納眼旋袖鼻孔紙條塞
肚引出喉門鉛化而金鯽變而蛙食火自煽烟氣熏

人吞刀竟拔血痕染銛技至於此可謂入神觀者堵
立拭目竦息唯慮其見欺及其色曰種曰儵忽閃鑠
則反疑自家心與目之有蔽惘然沮_{茶字之誤}茶逡巡自退明
知其幻而莫敢辨析良可哂也然為斯技者不能點
石成黃金擲米化丹砂立致富奢而終日役_曰所獲
錐刀衣食無以自給則幻之不及真而不可信也明
矣十月下澣記于玉河館

山川

北游有三大觀遼之野鑿無間之山渤海之水是已
渡馮訾江歷八站路多偏側犖确溪澗往_曰曲折會

寧青石二嶺尤陡峻艱行數百里始得鉅野曠然四
平心目俱搜猶鳥之出籠而霄魚之難沼而濱也輿
馬亦標搖若風中葉靡所止依也野宿八九日抵廣
寧山稍見頭角峻增於雲端入北鎮廟則始見其肺
腑虞舜封十有二山之一幽之鎮也縣亘三百餘里
掩抱六重又名六山廟後有桃花洞聖水盆仙人岩
渤海自高平塔山之間西南望一抹碧隱現天末入
關登望海亭則浩淼黛黝不見端倪遠舶點々如鳧
頭碣石在東南滑十餘里皓然人立於是焉山止而
峙海逼而涵體勢呈其壯矣夫析木尾箕我與彼一

躔身不咸為無閭之東支洧澹西通渤海遼以左舊
屬句麗然則之野也之山海也宜把作籬壁間物而
狎玩之今乃聚粮脂車瘁而返向人規曰吾始為
大觀豈不陋哉柵門以東虛其地者廣百廿里山水
迴抱土壤膏沃九連城故墟湯站等處尤開朗蘊藉
宜於人居鳳城以北如狼子山黃家庄之類荒險無
可取薊之山皆自太行來而盤山特雄秀峰之名者
曰紫蓋宿猿山凡三盤上盤塔中盤寺下盤泉耳燕
都則附鄙無大山其西四十里始有香山玉泉山總
之曰西山是為太行第八陞紆徐妍秀便於登眺北

之水總名曰河故如八渡三义等河澗而已遼瀋薊
行河渾河大凌河灤河最著

城鄙壬午

自鳳凰城至燕都數千里所歷邑鎮十餘數無一城
者大而遼東瀋陽山海關寧遠衛永平府薊州通州
小而廣寧中前中右中後等所撫寧豐潤玉田等縣
其地平野其築土甃百步一雉外穿池隍譙樓外環
以月城皆同也遼瀋城皆二重山海關凡五重其八
也故為遷迤而不直達皇城之制四方中矩各十里
外城距內城里如之恰周六十里凡十二門正南曰

正陽南東曰崇文南西曰順直東曰朝陽北東曰東
便東南曰東直西曰西直曰阜城北曰安定曰德勝
餘一不記宮城當內城之中方而微橢從城北引水
穿八四周為壕水道從西南下散滂出城根水門不
專一溝也大路甃以石四達于郊各四十里城門開
閉以日出入門廣狹則兩車並軌中容一人騎過城
高可十丈內外堞堞中若甬道廣可十餘步五十步
一屋每屋甲士十人晝夜守真察院于側徼巡之閑
內外遼薊等處往來城缺而壕堙烟台戍堡僅餘荒
址一不繕修彼從朔北來羈旅乎中國防虞在乎東

南而不在長城外也

宮室

正殿曰太和其東曰皇極別殿也太和北有中和保和二殿制差小又其北寢殿也太和二成屋九楹四面如一簷周以銅絲網殿址三成砌以石每成為欄干其石類珉陛石如之列為三道齒上三丈許不止九級也欄頭皆雕獅負鼎形陛上城列銅龜鶴左右各一對簷下銅缸可容五石許案水其中列香爐十六枚亦銅也陛下庭方可三百步東西列品石銅冒其首髻皆髻也殿屋並黃瓦其餘觀閣亭廡綠碧

緋尾不一色也殿門曰太和兩旁門曰中左中右又其內曰後左後右其內即寢殿也太和兩廡並帟蔽其制樓也太和門之南曰午門午門南曰端門中立擎天柱長可五六丈石色瑩白門內位廟社於東西端門之南曰天安天安之南曰太清此外門也從太和至太清其直中繩闢之洞見表裡太清門不許人出入出入者由東安西安二門旁門也東西正門曰東華西華正北曰神武凡正門皆五虹門上為重樓其尾綠凡宮垣皆墁以丹尾亦綠神武之北別有北苑門其內萬歲山景山尖峙如兩角山上有塔樹木

魚畚亭垣羅絡之五龍亭最高壯穿渠從北苑下八
四周宮垣宮北之渠種荷淌水玉竦金鰲之橋據其
上景概清華又其西弘仁壽二寺宏麗甲諸刹弘
仁有旃檀像佛仁壽有萬佛樓梵唄鍾磬晝夜相聞
蓋北屋之壯麗太和皇極固無論如瀋陽行宮東岳
廟雍和宮弘仁壽寺北鎮廟西山諸宮殿滦河行
宮太學壁雍並窮極侈巧一覽不可詳悉所歷
邑邱村閭屋舍間架皆穹高濶大店家廣其門庭為
容車馬也市肆別設層樓為售貨物也尾制輕緻故
材之度也易為力草茨則搆之均而葺之密石灰固

其脊故耐久而不滲其壁皆甍三面墨撐盡簷而止
故楹榱不撓堅竊精整烟窓亦以甍築高出簷外不
忌風而禦火災無交簷之雷故結構不難修改亦易
煖炕皆塞陰而向陽窓牖明亮無隱暗之所火道直
上而善徧炕面只是薄甍故易溫而省薪此制誠簡
便但炕下空地斗低鋪甍為堂坐必用椅長幼並踞
寢處倚虛外氣透侵不及房埃板廳之穩密路倚多
見無椽之屋其宇四平漫塗石灰或茨以穀稽稍陰
其脊極似竦漏而能禁雨水土室草房矮簷甍牖者
亦多矣而通都大邑市廛之居雕窓翠檻金牌丹題

夾道彌望目不暇給富豪民家繚垣五六里亭榭稠
疊並塗金碧堂宇穹崇鏤文礎此椅凳用文木壁函
掩玻璃錦帶遮塵花蜀布地狃於僭侈不以為異燔
甍之法搗泥粘壤印於板機其大中細各有尺寸爆
乾風暘始納于窰口不深坑上特隆起墨甍橫豎各
有文理孔竅疏通以翁烟焰周一晷夜火候乃足一
窰所燔數為萬餘計其薪費秫稻三車先得甍法然
後宮室城垣始可摹擬也

畜牧壬午

北地最多畜產其大者馬牛羊騾驢也其小者豕犬

若鷄鶩鴨也孳而蕃者一戶而千畜善於擾者一人而百牧視其術無他毛者水草焉而已翼者庭欄焉而已皆碩臍健捷罕有瘡瘠蹇洪鬪噬駭走者其地壤柔而廣衍水則漫流停瀦野田之農藁秸不訾畜之性宜焉食足焉人之牧之者又能順畜之性而適其収放調御之節畜之偶_二而羣_二如游魚之相忘於淵也畏人而愛之如軍民之聽於嚴將良吏也馬牛騾驢之藥而適遠及駕車者始飼以粟餘不然也夜放露地毛霑氷雪而不覆也駕而御者操鞭為權鞭之短長視畜之多寡不用力者鞭其耳若背若髀

適輕重一鞭不虛也遼多驢而少駿種凡碾磨打穀
汲水搬柴皆用驢馬多白色否則驄駱罕見駢駟者
羊則黑白兩種白者尤多間有黑白雜者猪或有黃
色者猪之絕大有如三歲犢者犬脚高者獒卑者鄂
羅種最猛捷榆閔夜見大車五十餘輛止一店驛馬
百餘多雄駿齊尾立庭中介三四行間劣容一人行
往來磨擦而不跣也夜逮曉一無嘶喧唯聞齧莖籟
籟聲薊野中見驅壯馬累百頭五六人乘而導馬戢
頭聯尾聽人鞭響進止疾徐焉牧御之良槩可推知
北方之富強以畜牧也畜牧之蕃息以上宜也句麗

失遼後東方遂為弱國不但疆土之蹙以無畜牧之利故也

風俗

壬午

北俗夸侈而其宗則纖簡易而其弊也煩市閭金金
賸眩隸被錦綺香花雜還於祠院駟駟闐咽於戲垣
其夸若此而原濕無閑土市肆無遺利荷畚而拾馬
矢持針而挑敗紙剝頭剔耳馴雛鬪蟲之輩售技求
食又何纖也貴賤混其衣帽老幼相對箕踞其簡若
此而控耒操鞭王公為厮僕之役汲井爨竈男子昏
婦女之勞又何煩也是知趨纖所以求其侈也習煩

所以行其簡也節文既缺本末俱失理勢之所必然也州縣苛詞訟之叢委商旅無貨物之失脫街巷未見酤鬪買賣耻為刁蹬由乎立法之嚴久而效耳雞髮掛珠向人合掌儒可以語乎喪不衰麻殯葬用樂禮可以責乎大小官職滿人主權利而漢人不得與為農者旗下出半租而他民輸重徭此豈王者平蕩無外之政歟天下之勢譬猶一物偏則撓レ則傾レ則農崇侈則民窮征利則財竭北面在廷離心者適半編戶在野怨咨者什七重之以窮且竭焉其將久享此寧謐歟善覘國者必于其俗略識所見如此

關帝廟 壬午

正陽門右側有關帝廟殿宇窄迫自明時最著靈應
萬曆間冊尊帝號而太常祭祀祭用五月十三日仍舊稱漢
前將軍侯志也至今拈香祈願抽籤決疑者無虛日
右廡矮簷內隱一碑修撰焦竑撰庶吉士董其昌書
字體道媚可愛所過遼蓟燕數千里家祀關帝十
家之聚必有一廟州縣及大都廟貌尤極雄麗而正
陽之廟故蹟可紀故特表焉

太學 壬午

太學在都城東北艮隅安寧門內牌樓題曰成均即

國子監胡元時為北平府學永樂二年廣其址建北
太學清人修飾之殿曰大成凡九楹孔子位牌朱金
書先聖先師神位顏曾思孟書某國某聖公十哲升
配有若宋賢唯享朱夫子一人東西廡從享諸位亦
皆朱牌金書多不得盡審而見諸葛武侯范文正歐
陽文忠許衡陸壑其李光地並配矣中門內置周石
鼓十枚彛倫堂前有許衡手植松今為枯枿廟門外
植碑如林刻每年登第科榜其餘太學紀績碑也

壁雍

在平

壁雍在太學右牌樓極精麗正堂宏崇簷周八稜堊

之翼然引水環之為圍壁形甃石兩址四達為橋兩
廊刻十三經于石碑字皆楷書左右分立齊整數為
一千一百有八十乾隆時所建也

灤河夷齊廟

在永平府西二十里許

永平府西二十里許灤河上有夷齊廟扁曰清節祠
築小城環之名曰孤竹城隔河小阜別有廟祀孤竹
君仁與夷齊並塑像袞冕而搢圭廟傍置行宮制度
華麗又其側有僧寮緇徒掌廟與宮廟庭穹碑杰然
楹刻詩聯牌樓題扁皆康熙乾隆嘉慶撰書也按一
統志永平古之孤竹國爾雅云觚竹北戶西王母曰

下謂之四荒史記齊桓公北伐山戎至于孤竹是矣
秦漢時為右北平古史云北方之險廬龍飛狐為首
皆在北平境漢末公孫度據遼改北平曰平州隋唐
之世平營二州史實不一石晉以賂契丹金人陞為
南京元時改平灤府明朝改永平建廟始末則世記
云漢靈帝時遼西太守廉翻夢孤竹君之子謂已改
葬明日見水上浮棺為葬之晉書地道志曰遼西人
見水有浮棺欲破之神語曰我孤竹君也因立祠
在山上城在山側肥如縣南十二里水之會也祀典
志宋時封伯夷清惠侯叔齊仁惠侯明時移建廟城

東北隅自康熙時崇奉增飾廟貌魏燬如此一統志
云長君塚在獲子山少君塚在馬鞍山俱在城西北
二十里水經註云濡水南流逕孤竹城北右合玄水
水出東北西南流逕肥如縣南地理誌云灤河源出
古北口與大小沮水漆河同入于海又云灤河在州
城東三里有橫河別故河五里河清河諸水入之橫
河發源盧龍縣盧龍即古北口也按北人以黑為盧
以龍為水則玄水漆河一水而異名橫河亦灤同源
也薊之形勝永平為最永平之中灤廟尤佳山水回
環景致清曠明秀廟前數里小山強名曰首陽此訛

耳中國無首陽山詩經及史記註並以河東雷首山當之抑未知我東海州首陽為真耶

石鼓

壬午

太學廟門内置石鼓十枚左右列高二尺廣徑一尺有奇其文籀其一枚中折而穿為臼是鼓初潛陳倉野中唐鄭餘慶取真鳳翔夫子廟而亡其一皇祐中向傳師得之民間數乃合宋大觀二年自京兆移汴京初真辟雍後保和殿嵌金於字靖康二年金人入汴輦至燕剔取其金移大興府學元大德中虞集為大都教授得之泥草中始移回學門內鼓文剝漫而

可計數其方要為六百五十七言宋時存字四百六十有五元至元中存字三百八十有六皇明末存字三百二十有五乾隆時造新石鼓一依舊制字大小亦做其體文則補其缺又以細楷刻籀字傍以便覽讀真廟門外亦左右列刻韓文公石鼓歌立鼓西

岳王廟

壬午

正陽門南七里許道右有祠扁曰精忠殿字古朴神像端嚴珠冕而綉袞紅色渝暗可知年久也左右有侍從像鉄弓鈞甲各一置神座傍公画真一幅亦藏廟中漫漶幾不可辨廟後別有殿堂塑王夫婦二像

前置三世祠版下列侍姬像人謂之寢宮廟門外二
銅人反接立土中渾體剝缺此為秦檜夫婦像過者
輒擊以瓦礫致此云祠前有戲台五十餘間鬼峨華
整此是南方人士來游之所北俗驚於徼福凡佛宇
神祠無不媚奉而岳廟則來者輒生灾疾滿種無貴
賤相戒不敢近余聞而疑焉詢諸北人數三皆云然
信矣夫

文丞相祠

壬午

安定門內太學左傍有廟扁曰文信國公祠屋宇湫
狹神像短小皙而美鬚清秀映人神座後刻揭公衣

帶銘左壁揭李北海邕書石一尺掌廟者積柴把于
廟內塵土狼藉殊可慨然公拘燕時處一小樓三年
不復土就義于柴市此其故址也洪武九年北平按
察副使劉崧始立祠庭二碑一揚士奇一羅倫按公
本傳授命于至元壬午十二月初九日風沙亟晦世
祖以問張天師悔之贈公金紫光祿大夫特進太保
中書平章事廬陵郡公謚忠武命王積翁書神主洒
掃柴市設壇祀丞相寺羅行初奠禮旋風起捲神主
入雲中亟愈晦乃改前宋少保右丞相信國公天乃
開霽明日歐陽夫人得東宮旨叔公江南十義士昇

樞葉葬于小南門外誌其處大德二年公繼子陞至
都偶逢石橋織綾人妻乃公舊婢綠荷也共與尋樞
至元二十年歸葬廬陵燕中叢神淫祠在二崇奉像
設炫耀唯岳庙文祠荒寂圯廢余謂西山可夷也琉
璃廠可碎也五龍亭雍和宮可拆也武穆信國二祠
將歸然獨存與天壤同槩也

東嶽庙 壬午

朝陽門外二里路左牌樓魏煥中有殿宇廓然祀東
岳天齊仁聖帝神像巖毅其侍從像若憂深思遠者
乃魏徵也元學士藝元所手製兩房設地獄七十二

司後設帝妃行宮中侍者十百兩廡上皆層樓設
玉皇及諸仙像次第整肅殿前豈碑一趙孟頫楷書
一虞集隸書蓋此廟元延祐中始建正統中益拓大
之皇明及清人繼而增飾棟宇丹雘皆新鮮耀目三
月廿八日帝誕辰都人士女鼓樂香花祈禱甚盛云

旃檀佛 壬午

旃檀像傳旃檀香木所刻高五尺許寒暑晨昏其色
不一萬曆中傳以金今尚餘三分金色鵠立上視衣
紋如水波左手舒而植右手舒而垂肘掌皆微弓指
微張而膚合釋氏家傳為周穆王辛卯優闡為釋迦

佛始造此像飛歷西土一千二百八十五年仍入中國南北遷徙終始不難於帝王之都明時供養於鷲峰寺清人移于宮城北弘仁寺像之壽恰為二千八百二十餘年亦異矣哉

長春寺

壬午

寺在宣武門外七里萬曆時所創有滲金多室佛塔高一丈五尺層屋以覆之又有孝定李太后画像庭中列植香椿樹枝柯皮色類我東赤木而葉稍異綠針而柔細春夏嫩芽採而和鹽可下茶與餅始歸空和尚苦行叅禪能屢旬休糧日飲水數升持之五年

衆狔為水齋燃三指以供佛孝定太后聞而創寺居焉。神宗賜額曰長春。今則三明住持。此寺傍有長春館。南中人士來寓之所。

雍和宮壬午

太學之左有宮曰雍和。蓋寺也。而宮云者奉乾隆像故也。制度壯麗無比。從前殿至後殿凡五重。其餘鐘鼓樓經閣寮舍皆鮮華宏緻。最後為三層樓。覆瓦六金佛。二軀極長大。梯登樓頂。繞及佛肩。樓周以欄。四徑可盡。宮苑街市之勝。左有堂奉乾隆像。端好類菩薩。宮中緇徒甚多。燃無夜燈。齋禱無休。時衣黃者皆

喇嘛僧也雍和之東又有離宮道士掌之

拈花寺

壬午

拈花寺在宣武門外十里許距外城根不過百武元時稱萬柳堂有花竹園池之勝廡布憲與趙孟頫來遊觴咏康熙時宰相馮益都宅焉後捨為寺壁間尚揭賜詩東頭有樓蕭洒幽爰宜於眺憇往時繁華亦可緬想也

法藏寺塔

壬午

自遼至燕見塔計十餘皆呼為白塔甃築而墁壘堊之皓然此俗稱耳華表塔最高壯萬歲山塔最尖巧

皆可望而不可登法藏寺塔獨可登高十丈窻面二級盤二人蟻上而螺旋從窻窺外都城歷二在眼中每窻置一佛二前設一燈凡白八凡級七凡五十八佛燈數如之寺毀已久存者一塔一僧而已塔在宣武門外東南七里所十月五日與石湖同登題名于塔頂

隆福寺

壬午

自玉河館北去大路三里餘有通街牌樓其傍有寺曰隆福明朝景恭帝所建也經閣殿堂頽宏敞寺前街市殷穰百貨湊集小籠中藏鸚鵡百舌及諸禽累

累懸簷右側有花草鋪瓊木奇卉隨時栽養於盆中者不可計

廣濟寺 壬午

廣濟寺在西四牌樓路倚庭宇荒寂西墻下舊有鉄樹一株去年為風雨所拔去立小碑於側紀其事

報國寺 壬午

長春之東數百步曰報國寺庭寮宏敞倍於長春天王殿階前舊有偃蓋松二株明時名公題詠甚多中間枯朽種穉者以代之今纔蔭半庭耳前有昆盧閣高可遠眺閣中觀者小像磁窰所變極精妙老僧壽

天住特焉貌寂而神清能解文字可與語

願堂寺 壬午

瀋陽城北數里路倚牌樓輝映彩甍綿亘此乃清帝
薦福之刹瀋陽乃彼興王之地陵寢所在故城郭行
殿併擬魚都弭曰盛京康熙初此寺極其巧麗殿楹
丹之凸刻交龍鱗甲渾塗黃金蜿蜒欲動觀閣相望
重二西頭層閣安康熙乾隆像喇嘛僧累百人處其
中梵誦番休其衣帽皆黃色老而住持者云是蒙古
貴人所居寮華整列置自鳴鐘言語比滿人尤不可
曉我國來者始入此寺驚其制度之奇麗及至燕見

弘仁壽雍和宮則知有大於此者

姜女廟 壬午

山海關外東五里所小阜突然石也祠於其頂望之
縹緲幽叟祠前一石有杵痕及足履迹古傳秦時孟
姜之夫繇於長城而歿姜女尋其夫至此悲寃化為
石後人稱望夫石者廟也像精巧若凝眸遠睇者傷
立童男女各一題詠揭壁者無數或刻於石面其一
聯曰栢葉一生常自苦梅花終古不為妍康熙皇子
詩也訛傳是處亦何妨乾隆詩也

金魚池 壬午

金魚池在天壇北地面低坳空濶水所匯也居人界
而塘之種魚以為業金大都時稱魚藻地明時改以
金名金魚古未有杜工部詩沿橋待金鯽蘓子瞻詩
金鯽池邊不見君且鯉有赤而金者此魚非鯽非鯉
或云杭州六和寺有之不知何時北來也其色不一
深赤曰金瑩白曰銀雪質黑章赤質黃章曰玳瑁白
而朱其額曰鶴珠朱而白其脊曰銀鞍朱脊而白點
七曰七星白脊而朱無八曰八卦臨池投餌則小魚
先聚大魚繼至爭食唼呷有聲千百撥刺其大盈數
尺者多池水一半頽如朝霞矣池邊有售餌為利者

以麵為餽殼薄中空入水善浮一籠之糕須臾而盡
可知觀魚人之多也弘仁寺內橋下池亦有此魚聞
人聲撒波聚至可數千頭其大僅如金魚池之下者
燕都人家貯水琉璃缸養此魚者多而尤細小余於
城南再遊者岳王廟長椿寺金魚池也

黃金臺 壬午

朝陽門外東南一土阜人謂之曰黃金台水經註云
幽州固安縣有黃金台遺址一統志云黃金台在順
天府東南十六里唐李善引上谷郡禹經曰黃金台
在易水東南十八里是黃金台有三處耳蓋後人慕

古而擬其地名之也余謂北平之射虎口灤河之首陽山燕都之黃金台即其地懷其人可也不必勤覓於千載之後劫亡然多辨也

零言 壬午

藥王廟去岳廟不遠祀古昔初藥治病之人自宓義黃帝歧伯至扁鵲倉公華陀張仲景之輩皆塑像次列云過廟前適忙擾未得入觀

回子館在西四牌樓路南館屋外為長廊小門各內向其人男女區焉內有衙堂其貴人處馬庭立高柱而索焉此乃肄技之所男則戴紅巾上尖銳女編髮

垂兩傍飾瓔珞簪花其俗趨捷能為椽撞走索之戲
又能吹彈絲竹朝會時必設回子樂一部或不時宣
入奏其技故館其人而生育之入館呼其人試技九
歲童上撞盤舞拜叩一童吹長頸琉璃壺聲清越如
笙簧問其程途去中國三萬里云

象房在宣武門內甓築為洞屋椽而尾之扉而鑰之
其中穹而深如石窟每屋繫一象數凡九鉄連環鎖
其趾象奴以鉄鈎錐御之裹飴稻稈疊而束之投諸
前象鼻捲取啗一牝象是康熙時物兩牙已脫能為
跪拜狀吹角聲帝吼聲日晡候每一出飲注水于桶

鼻到水乾每夏三休浴象于河云

遼東至山海關有捷路右從平安堡渡大凌河下流繞出寧遠衛後可省二百餘里登月峰望之地形瞭然可見彼必迂迴其道以謾我未知何計彼之商旅從此路來往云

寧遠衛城外大街有祖家牌樓二樓對立並以渾石斲成高可十餘丈雕琢精巧祖名大壽父承訓祖鎮曾祖仁四世連為元戎立此樓以誇耀之刻明朝恩誥及勲封於其上過者輒駐而觀焉祖氏世將名家至大壽可謂隴西恥矣

滿人不與漢人為婚嫁乾隆時只有一後宮是漢女
至今滿人卜妾或取漢女此周達云

嘗隨使臣入闕憇午門外廨宇云是禮部直舍見壁
上貼祀典儀式略考其要則天地合祭於南郊用十
一月某日社稷用正月某日及十二月某日而不用
上辛太廟五室永昭殿四室並一歲四享用四時孟
朔某日而禘祫以膺月某日文廟用二月某日八月
某日凡祀日蓋預為硬定而遵用不易大祀致齋三
日中祀散齋二日小祀散齋一日而已其中閔帝廟
文昌閣火神廟山川日月風雲雷雨城隍及諸親王

勲臣並屬中小祀。典所載不過一百餘陵園不與焉。其簡略可知矣。

燕都城內水總名曰玉河水。正陽門內有玉河橋。水之下流處也。蓋此水源出城西玉泉山。故謂之玉河。自皇明時其名如此。通州城南有潞河。自前為北京漕道。後益穿而廣之。以達于都城外。舟楫相續矣。

北人遭親喪。皆用樂。過其門。聞樂聲。知是新喪。樂是鼓吹。音響清促。門設牌樓。裹以葦簞。在途見輜車。其杠丹。恭長可六七丈。樞如船形。髹而金。函之。置白鷄其上。柳幌。玄錦。鮮華。蓋頂。渾塗黃金。舁夫數百。其掛

孝者步隨之白巾如袋腰纏白布數尺而已
婚車則雕鏤細巧為三重簷白四面貼琉璃鱗二相
間流蘇香卉聯絡卷藹細杠丹棹而橫豎各二昇用
四人藝香捧函者不計其數紅青織各十餘對後車
十餘乘凡送婚者皆纏紅於腰而頭押赤羽也

塵史附壬午

陳沆號秋舫江西黃州蘄水人丁未生己卯壯元官
翰林修撰國史編修住正陽門外爛麩街往訪其
家值赴史局入外堂待其還陳之子名弘渠出迎接
問其年十九妍秀可愛詞翰亦妙小間陳至各叙姓

名官階年穉余致因彙齋聞名之意且云外國人學問淺陋晚而無成先生早歲蜚英譽聞方蔚而平日所蘊必多請賜教陳荅少治舉業幸而得第其宗踈淺耳出其課試一卷以示即賦與五言排律也略觀之儘精工華瞻陳問鄙作何如余荅俱是萬選青錢又問體製何如余荅賦則槩括江鮑詩刻無大曆耳陳微笑余又云此功令文耳不足以盡蘊奧有他著述可賜觀否陳荅詩文數卷散而未聚容俟呈覽問余貴作可得見否荅所作無多且荒拙未曾帶來後當奉訂陳問先生詩體文法何主荅早好看文選而

不免唐宋後聲調喜讀左莊而每墮八家窠臼童習
白粉未臻其妙常自媿耳陳谷此是近代文人通病
以茶糕相待余問齊安是貴鄉江山景物之勝可得
聞否谷臨臯亭竹樓快哉高尚依舊耳又問東坡常
稱方山子光黃間竒士為著傳是先生同系否陳谷
方山子光州人與僕不同譜又問阿戎尚未娶擇對
而然耶谷聘而未娶問上邦經術主漢儒註疏乎主
程朱訓詁乎谷專用欽定經義問何朝欽定谷康熙
時問欽定主何義谷古註程朱叅用一容至陳迎揖
並坐款語媿曰容顏清癯視瞻端正陳書示余曰此

友是僕同鄉同年蔡公也仍書問名字年記官啣蔡
荅名紹江字清之江西人也己卯乙科年三十七見
任兵部主事問余年紀名號與官階荅之如前蔡問
進士何無官階余荅為游覽中州撰副价從事來耳
問^又貴國科制何如荅三年一大比試以表策詩賦經
義蔡荅此唐宋古制也又問貴國多名山水否荅金
剛妙香太白智異古稱名山水問公曾徧遊否荅金
剛一往遊餘未耳因互論山川地理文史繁冗不盡
記蔡起去有頃已曛余問先生職務不至鞅掌否
陳荅史局間有公務本職則閑耳余書畧短人意長

更俟再會請告退谷約日再面出起陳送至中門外
作揖

一日秋舫抵書相邀約辰刻會話于龔中書家龔名
自珍字守之號定盦年卅九浙江錢塘人見任內閣
中書家在正陽門外珠朝街距秋舫家一里許門堂
宏敞兜服華美湖南魏舉人源浙東鄧尚璽亦來會
秋舫與其子踵至各例叙寒暄茶畢余問龔早年治
何經龔答為舉業故略治經史性好金石古文耳更
問金石古文多曾收儲否龔答頗有之取王獻之書
洛神賦出示曰此北宋刻本九行洛神賦也取觀之

下方題跋六七八人皆彼中近時名詞翰龔請余續為
跋文辭以荒鈍不敢強請之輒數行以副魏源出其
鄉試券示云鄙作何如答尺幅整適不失古法龔問
貴邦禮儀法律用何答朝家用唐宋以來五禮儀臣
庶家用朱文公家禮法律叅用大明律龔又問貴邦
亦尚內典否答鄙國羅麗時尊崇釋教而東土本無
道流我朝則專尚儒教故學無他歧耳魏在傍書示
東俗甚好龔問東使為辨誣而來誣案可詳聞否余
錄其顛末示之龔與陳諦視附耳語刺々龔書示近
在內閣新刊通考預其後故知之其時史臣模糊入

錄可恨余答中朝許其刊誤頒給契邦誣案昭晰深
幸龔答刊誤一編而已全書未成矣龔問貴邦有國
史否余答三韓時風俗簡朴文獻無稽麗朝及我朝
始有史藥又問撰史之法如何答史臣為時政記編
輯既成歲諸秘府及名山又問東史可得見一二否
答史書有禁不得出境耳請移他所進午膳自外堂
歷二戶似是中堂鋪置潔整設桌椅環坐進茶食品
次第搬來酒饌羹臠餅蔬計益楪凡二十餘事餘用
木箸羹用磁匙酒則飲過輒更斟食訖又進茶龔請
書柱聯余辭書拙龔出粉紅洒金箋筆用紫毫研墨

請書不得已書副一聯鰲山時與余偕往以八分書
增一聯龔問日本有秦火前古經貴國得見否答龔
邦與倭隔海或通使命而其國俗輕慆虛詐自稱徐
福之後曾觀其文字膚淺鄙俚古經之有無推而可
知又問貴邦或有唐宋以前金石古文否答殘碑斷
簡或有之好者難得龔答鄙性好金石古文幸為求
致答如有所得使行有親信人當奉副鄧出示其書
蓋學漢隸耳余謂公書有古意努力為之可以名世
鄧請見詩文余書途中所作一篇以贈秋舫子時在
侑余問近讀何經對以讀儀禮余答甚好昌黎云儀

禮難讀姬聖工夫專在此書余以開闢說示陳仁為
跋書贈又書扇敬恕齋銘贈余仁問路歷灤河夷齊
廟前有小阜稱首陽山此則傳訛中國首陽以何為
主陳願魏微語魏書示以河東為主日向暝告歸諸
人並送至大門內佇立見上馬始入

鐵林滿州人蹄荔岩戊申生癸酉進士官刑部主事
無國史編修住西單牌樓錦拾街武定侯衙往通
名條出迎中門外請入叙如禮余書鄙人生於海外
姿魯學淺聞高明經術淵博欲藉緒餘以開茅塞幸
賜誨焉林谷鄙學問不廣何能及人公從何聞鄙名

耶谷彞齋族弟稱道高明故得聞矣林云彞齋見居何職谷夏以御史往湖南見為館職林問彞齋有書否谷官事倥偬不及致書托以式好無猶之意矣余問高明以何業決科林谷經義又問高明著述可得覽否林谷平日不事著述無可示人問上國經義並遵程朱訓詁信否林谷然問古註叅用耶林谷康熙乾隆時欽定經義專尚程朱叅以古註天下並遵用耳問陸王之學今有餘派否林谷二家餘派近不多有問陸王亦間世名儒姿稟極高學識超詣公以為如何林谷陸王豈不大儒其學之流弊出於其門下

問門下為誰林谷慈湖龍溪問如高明之遠學正論
幸獲從頌當今又有鴻儒以道自任而聞名者耶林
谷名者宗之賓君子疾沒世而名不稱名亦宗也為
學務宗而已足下何必以名而求人耶余谷驚名之
喻誠服砭誨近世道衰而學駁天下滔滔安知其中
無特立奮起者歟是以欲聞之也林問貴邦學術純
而無弊乎谷東方學術專尚程朱無他歧之惑而任
重大致篤宗者比前漸少是為可歎耳林谷此中一
如是病勸茶進糕林云鄙家方營女婚家中有事不
能竟話可恨余書專家既有事日已晚請告歸林書

四五日後當往謝館門出入無嫌否答契寓靜寂一
枉無嫌即起出林至大門內作別
周達號菊人松江人以舉人見任覺羅教習官寓崇
文門內玉泉與之交頻來館中向余云從怡雲間凡
名久矣願與托契余問尊於瀛溪先生為幾代答二
十七代周要過其寓一日偕玉泉往壁揭愛蓮說函
藕花一朵下有翁覃溪贊簷內度菊花數盆茶畢余
索紙筆題詩贈周出一函帖標識云看山讀函樓即
松江鄉廬繪水墨下方詩文甚多間有東人題贈要
余續題辭以勿迫周自稱喜東人喜東物又云陳翰

林用光吾師也。當卜日約會，後幾日書邀云：陳公今午刻當至，請會話。與石湖偕至其寓，陳不果會。余以二絕題贈看山讀函樓帖，又要書柱聯書一聯以副。後又請遊拈花寺，偕石湖、玉泉往，周辦午膳相待。叙寺中故蹟甚詳，傍有二士人問之，為四川叙州趙瀚。及王某以鄉貢，今春落第未歸者也。問叙州去成都幾里，去京師幾里。趙答：成都六百里，京師六千里。問錦城富麗，比古如何。趙答：來時路由成都，富麗依舊。又問去雲南幾許。趙答：雲南界三百里。寺前有文昌閣，五人共登眺，仍歸東還。時周賃車，追到通州為叙別。

行口芳草遍幽賞未云多
雨養青林色春消白雪歌
長松遙谷響深磴靜無波
花事真如昨筍櫻更一過

詠黃鳥次鄭谷鷓鴣詩韵

萬古春愁綠葉聲那能化作長鳴鷄
金衣燦日斜映巧舌翻口花間啼
細雨溪堂詩語淡東風略約柳枝低
往聽携酒知何處芳草萋口御苑西

○夕抵德陽

壬午秋從叔祖端高赴燕時作

游子戎行李出門身始輕
馬蹄沙路軟秋色野田平
林館涼颼入山村夕照明
三峰猶在眼峭嶺故多情

過惠陰巔

西出由旬使節俱緣岡車馬度縈紆不妨小險先相
試萬里前行有坦途

坡山館敬贖壁上

先朝御製詩韻

愴憶郊西蹕路清 宝什深嘉穡事成吹角官樓昏
又曉鳴仁猶似舊時聲

坡山館書懷呈 端窩族祖

星軺幸許白衣陪正是清秋駟騎催萬里委遲持玉
節百年慷慨入金臺世間憂患消磨去塞外風烟領
略回自昔吾宗供此役應知專對揀賢才

臨津

臨津江口水平岸花石亭高隱碧林多
小行人爭渡
急白鷗雙浴戲波心

臨湍途中詠水田稻

萬頃青黃半西風擺午涼
低垂珠粟重齊整紫髯張
預占倉箱富遙聞糗餌香
愆暘經夏甚天賜喜年康

滿月臺

蒼々松栢繞崧邱落日浮雲亘古愁
廢苑芊眠秋草合層垣寂歷野
花稠山河不改留勝迹樵牧無端起
怨謳夢覺繁華何處問橐駝橋下水西流

崧陽書院

先生出海東卓然開羣蒙淵源傳遠學天日照危忠
恨不生逢時坐致三代隆如何值衰季身殲國步窮
故都留祠廟真像偉而豈誰道憂國意隱約眉宇中
瞻敬尚後人颯然挹清風楷範固在斯由來性彞同

善竹橋

陵谷遷時水亦絕劫灰飛處石應銷炳然萬古精忠
節長與東天日月昭

青石洞次 端窩族祖韻

縮轂海圻間淨滌設險閑樾陰移白豎澗道劈青山
岩壑紛相互車徒駐暫閑分留杰秀景好待臘天還

蕊秀

西行幾到此三酌玉流泉
安得移茶竈寒棲石窟邊

車踰崩雨中

廉纖白雨洗埃輕
和睡微醺信馬行
無數野螽吟露草
教人悽悵憶京城

鈞水

官道西橫鈞水灣
鳳州山色綠如鬢
書生自咲清狂

甚匹馬秋風向渭關

詠木綿花

雄仁吉貝樹結房
連枝根黃壤含膏
厚白花吐雪繁

摘鬆宜女手，曬急趁秋暄。衣被生靈大，蚕功不用原。

月波樓次板上悔軒韻

風力何渠壯，灘聲頓作豪。野平諸嶂小，天迴一樓高。
近海情彌濶，思鄉夢亦勞。秋風歌出塞，慷慨醉看刀。

竹樓次三淵韻

遷迤飛甍枕北城，小樓誰借此君名。聊乘朱墨三分
暇，試斲琅玕一架成。檻外清風時自至，簷端明月夜
相迎。使君能知彈琴趣，請作我洋一兩聲。

謹次族祖山水軒贈敬安堂金公詩韻

金公曾孫

德原韻故次而贈之

竒材誰識秀穹林立志堅固用力深遺稿碣文徵宗
磧關西夫子起余心

練光亭次鄭知常韻

青林一抹遠峰多江上漁郎蕩槳歌安得人情似此
水西流日已靜無波

北去南來路歧多千年往事入行歌清流壁上磨厓
字盡和蒼苔倒映波

從古繁華此地多細簾西閣貯笙歌不如携酒載明
月一葉輕舟弄鏡波

浮碧樓次周隱先生韻

永明寺裏復來遊，過盡丹崖瞰碧流。
山列螺髻橫檻底，江分燕尾抱城頭。
晴烟細草情何極，落日秋風興未休。
古塔蒲條荒蘚合，泡花世界轉堪愁。

箕城懷古

白馬曾來涓水東，八條治化變夷風。
行人不省祠前路，落日寒烟秋草中。

永明浮碧故宮墟，往事誰徵斷簡餘。
朝天麟馬荒唐迹，石窟欹傾古木疎。

名都形勝固難真，秀色明媚遠映人。
領取江山佳冶處，牡丹一點最精神。

日新見楹間刻詩志感

次華憲族祖詠堠吏韵

五里短亭十里長
偶人木訥守途遠
傷鬚腮翼德形全
假努目金剛貌異常
迎送使星曾百輩
消磨劫雨幾千場
丞非負汝官名好
長作指南辨杳茫

次贈雪蘭

垂柳肅寧館
春寒微雨過
新鶯語猶澁
欲轉不成歌

肅川官衙見楹間刻詩志感

李節度裁弘為伴
時新構正堂刻以

補十二
作林香綺園

晴雨堂深蠟燭紅
嗟峨曲檻倚清風
十聯今見楹間
刻始覺浮生在夢中

百祥樓

迴眺高樓上，清秋興不窮。
長江移故道，平野接遙空。
氣候京華異，風謠朔漠同。
征車何日返，歌笑函欄中。

望京樓

安陵形勝地，飛構占高峰。
鄉國來千里，雲山隔幾重。
振衣看落照，憑檻數征鴻。
郵騎明朝發，家書嬾自封。

渡清川江

夕陽搖檝，絲船開江。
執轡弓背，郭來却似汴河南北。
听人口迎送，到此回。

博川津

兩水中間大野連如雲叅稌匝人烟昇平休養皆
玉澤不說從前搶攘年

納清亭

豈意傍官道溪山一段清土橋分野色草市鬧人聲
老柳堪繫馬澄潭可濯纓不徒消夏暑蕭爽愜秋情

定州止宿偶吟

霜天沈寥角聲枯山堞嶙峋寒雲孤冠蓋翻口晚到
館鬢白爭觀塵夾道五龍浦口稼雲屯新安城裏問
舍繁龍蛇起陸過一紀山高水清無埃氛叢塚涼觀
但留址走燐嘯魅往口起只須牧守棘循良解刀買

犢治農素不見西川
平崖老卧鎮千里民樂康

宣川倚劔亭

朝望身彌島夕登倚劔亭
長風吹海月來照古槐庭

良策館清心堂中秋翫月次三行人韻

月滿中秋照九州
碾過霄漢碧悠々
蒼溪白石紛相映
銀燭紗籠頓覺休
倚檻共看千里色
對樽請遣百年愁
誰能解唱閔山曲
寄與鄉心滌水流

統軍亭

千里地已盡行者強
云遙歌傾一亭子
城上空宮曉散漫
馮訾水西奔渤海朝
岡巒互起伏莽蒼如可招

大荒秋色來乾坤氣寂寥誰能不慷慨一向北風消
古是三韓地何年捐彼遼金幣糜埃塵冠蓋自蕭
酣遊閔賓旅羅綺咲靨嬌徙倚見落日寒空獨盤
敬次 端窩族祖清心堂中秋夜韻
撲_二黃埃路不窮行人投館夕林中溪聲作雨珠爭
碎楓意如人酒半紅浮世百年秋入鬢故鄉千里月
當空良霄一刻真難值水檻披襟向緒風

白馬山城

白馬城荒黃葉堆長風萬里一高台海門呼吸三江
合山勢奔騰四郡來義士壇前松偃蓋將軍廟裏壘

生苔遺階地險終難恃只在平時保障才

次三行人韻

尖磴楓杉拂帽簷洞深秋靄滴霏纖碧池涵月平開
鑑粉堞縈雲斗削廡寥廓端倪眩不芥渺茫島嶼指
分尖回思赤鼠年間事愧殺英雄咲婦髯

聚勝堂

在灣府東門內
祖行幸時御此

宣

百六龍地起狂鋒八路地忠臣存楚相仁主去邗年
錯莫戎機短歸依 睿筭專控聞由悃款陪扈悉才
賢宵肝西陲迫風霆北落旋行宮浮鶴池雄府躍龍
川犒接天師盛名躋義旅聯庇庥恢業邁姑息講和

便而後傳祚永于今匝域全
峒遊留古轍隴幸記前
緣棟宇神明護河山控帶圓
綵榻迎出日藻井繞非
烟楓暗迷青瑣草荒沒碧
軌聚呼唯鳥雀眺賞極
坵堦哀痛追宸詔憂歎記
曆篇朝宗失滄海皮幣走
遠燕經過尋遺躅攀躋詠
夕天

靜沙亭

滄州府
後小州

開扉鈴閣近賓至每追歡
廷草終通徒園技或碍冠
綺塋分遠郭鱗尾汎晴欄
靜裡邊籌得清琴候月彈
渡鴨綠江

路向燕山匹馬逢西風白浪渡頭悲佳人休唱船離

曲不似朝天航海時

過九連城故墟

秋色無邊畔岡回野又連但能通馬跡不見起人烟
藉草留中飯看楓和短篇可憐荒廢久閑却好山川

温井站露宿

行人朝渡鴨江汀夕濯温泉爰舍停徒御叫囂齊向
火川原一作並冥昧只看星風聲動惺眠難着霜氣侵裘酒
易醒料得凌兢冰雪裏歸時應說去時經

葱秀

在柵門東
十里路北

東陽路倚玉流泉蘭嶼題崖字尚傳此地溪山真酷

似丹楓蒼石更誰憐

柵門

灣北百里縣激通車馬路歷盡無人境山下有荒戍
植藩設板扉符帖許人度宵至夕授館草茨十家聚
衰柳堆碎葉蔬稼淨野圃畧上縮轂地射利竟刀布
村學講魯論嘔啞聒童孺衣冠驚創覲稍近咲無忤
甕室溫無風豈可戀久住明日向鳳城羈懷誰與晤

過鳳城宿四臺子

田野平夷土俗瀟百為精細勝東人常言北地宜耕
牧始信龍門筆有神

安市城

安市名千古今來故址存
鈞攢園石嶂環缺闢天門
黍稷秋盈壠牛羊夕下村
玄花落白羽英主後人論

巾子舖書懷

出門何似在家愁苦樂
瘳除是遠游看去山川新
面目覓回詩酒舊風流
鳳城曉月窺羈枕鶴野寒
霜打弊裘恨不早生中
葉生輜軒載筆記神州

松站

自九連城至此始見松樹故云

百里行過巾子店兩株松
樹眼新青汶蘭洛菊殊風
土造物無端孰稱停

黃家庄

鐸聲卽當驟車過大章崩下地坡陀榆柳葉黃杜棠
紅市旂颭風門臨河老婦簪花紙蝶搖少嬾銀珥梳
髻高秋露一升傾鎗壺款客解慰鞍馬勞前行一水
八渡艱遼陽漸近風霜寒四座相顧皆商旅拍手請
歌行路難

次贈石湖

三行人辨林皮鎮
為書收

那知關塞外歷月共風霜馬渡河流淺車盤嶺路長
古庄秋葉絳殘堡暮雲黃只願加餐飭無徒歎靡遑
宿通遠堡次使家韻

八渡灣口水欲窮
暝烟荒戍亂山中
客情只記來時路
鄉國迨日日出東

宿太子河

燕丹養俠士徒然促其止
得賢報強仇胡不法昭王
行河流瀾金台尚淨堞
智愚誠相懸千載同流名

渡三义河

九月霜清水見砂
黃榆隔港映人家
銀簪少嬾新梳髻
手摘山田吉貝花

十里河舖遙觀倡戲

衣冠殊製眼先驚
絲竹琤琤不辨聲
呵笑喧塵塞

道料他年稔樂昇平

連山關

終朝車馬冒氛埃
疊石荒榛眼不開
分水崩前遼左
界蕭條日暮朔風來

九月一日踰會寧青石小石三嶺

步上攀峭嶂輿徒歇
又行輿因勞處得竒
逐險中生
崖石危將墮林楓遠
更明艱辛星使過
何日路歧平

青石嶺次石湖韻

淒風急雨入歌悲
玉趾丁年過此時
七去遺民增
感慨矢心新
胆後誰知

望遼野

終度石門崩北望大野開衆山一作羣山俄破碎寒日獨徘徊
紫樹河流曲搖烟塢影來古今征戰地寂寞只黃埃

行遼野二首

曠然無碍障千里恰為隣地角鋪圓局風頭聚大塵
螺岑晴斲尖蒼樹澹逾新寄語湫口者經行見得親
霧中行大野目極向何邊漢口人浮海遙口馬入天
風烟悲異域征戍憶當年幾日能過此客心正惘然

遼陽城

練旛雕戶覺奢華東北雄關行水涯壞了長城悲運

齊百年形勝屬誰家

華表

在遼城東門外即古俗或云唐時築

華表傳層塔穿雲望欲迷
天寒仙鶴斷日暮野烏棲
古蹟遼河北孤標碣石西
安能登絕頂平眺大荒低

筦寧

炎祚昔陵脊達人早見幾
徐孺與龐公誰塵柱德機
幼女亦浮海冥口雲鴻飛
遼地大如礪旅瑣得因依
一榻穿膝痕節苦道益肥
其終世莫知長往竟不歸
微躅問何人曠楚淒落輝

田疇

竒哉田子春千古一義士翦寇史摹無逃賞隱鄉里
皎然見心迹不為當塗使獨有晉徵君詠詩揚厥美
我來經遼野彷徨問遺址荒磧起寒烟牛羊遍河汜
斯人倘有後故事尚可紀

袁崇煥

生材天不偶戍賢竟誰尤穎發文武兇仗鉞鎮遼州
運去計不諧嘔血走老酋金貝來無脛左腹售間謀
赤族伊何辜深宮蔽前旒神州俄徙壑紫微彗旄頭
讀史每至此拍案憤涕流可憐過遼者只賞祖家樓

盛京

即瀋陽

霍尖白塔對渾河秋樹籠烟帶遠陂
望裡漸知城府近
草塵人語此前多

茫然平野地交衢
羊馬西樓別占區
時運偶逢天醉日
不関形勝按雄都

經年鶴駕滯殊方
元老幽囚更可傷
此日金繒過舊館
行人那敢說風霜

文昌高閣鏢烟虛
太學荒涼缺掃除
金字市牌紅綠檻
繁華都在賈人居

霜冷青磁菊綻花
隔牕明燭影橫斜
夜深沽取葡萄酒
打坐攪榆聽琵琶

願堂寺

教室布金作道場
繡龕千佛玉毫光
喇嘛梵誦皆華
肉何處青蓮覓妙香

太平車

北方習車制
輕緻盡人工
小屋規如月
覆輪快似風
睡驚搖蕩際
詩就轉移中
負載遼燕路
方知致遠功

登月峰

七宿遼陽野
未窮小岡登
眺四望通秋光
湧出無間
北天勢圍來
碣石東
捐地何人曾
失策用兵前
代摠
無功短衣匹馬
三千里
吊古寒烟落
照中

望醫巫閭山

廣寧

過盡遼瀋野始見醫巫閭上應箕尾絡曷地走良墟
秋晚天氣澄積翠蟠空虛雄奇駭心目駐馬眉宇舒
其下蕃生育松口萬穹廬不咸亦其麓文明鍾神居
徘徊展遐眺誰能測堪輿

重陽日與子靜同車拈杜韻

蔡人定應字

同人接膝小車寬情話相酬盡日歡北塞山川新面
目東方男子舊衣冠河橋木落驚秋晚野店鷄鳴怯
曉寒不見黃花逢九九新詩題和捲惟看
九日途中憶家兄

披蘭谷裏兄懷弟遠塞途中弟憶兄寒菊已開鴻鴈
斷重陽佳節若為情

次上价

南履翼号

芝雲丈重陽見示韵

塞外風霜不奈何東籬孤負菊花多欣瞻佳句酬名
節和氣薰人勝飲觥

次端窩族祖述懷詩韵

行二星夕與霜晨客路猶能記令辰榆塞叵堪經
慄萸盤誰為薦芳辛樹頭碩果逢玄月卷裡陽秋憶
素臣旅瑣每能存夕惕此心安處即安身

大凌河

夕宿十三山晨渡大凌河水深及車箱觸激揚濁波
羶裘黑隊亡喧闐爭渡過使華趁嚴程歲月受消磨
自笑儒冠者役亡獨如何

杏山舖夕發至高橋店

澹亡向秋夕悠亡迷去程河山烟外積車馬月中行
疎柳帶村色寒沙聞溜聲難家過三月猶未抵燕京

自塔山至寧遠衛

遼水東西道路賒行裝日亡伴星槎山河百戰生秋
草王羈千年噪暮鴈滄海遠帆分島嶼柳城寒葉沙
人家渴吟剛被傷人笑收拾風烟載小車

中後所曉行

寒館吹殘角，羶車燭影長。
海氛千里霧，朔氣五更霜。
信馬沙洲白，聞鷄店樹蒼。
地名諳未熟，昨宿已旋忘。

姜女廟

在小海關外五里

古祠縹緲倚巖巔，秋草秋花摠可憐。
為問當年誰恨苦，遼山無極海連天。

秦城亦已頽，城下望夫石。風雨年々多，不磨貞女跡。

山海關

山河如傳舍，來者迭為新。
縱使巖扃鏽，其如胠篋人。
望海亭

高亭憑眺客魂消秋色幽州萬里遙地盡遼城猶有
塞天連滄海竟無潮寒烟鳥沒深河樹斜日帆過碣
石標江漢朝宗悲此地西風短髮耐蕭蕭

次端窩族祖詠落月

閔月催人曉前途惜照歸向山如脉脉臨水共依依
影借明星大氣無冷靄微滿襟携爽潤歇馬待朝晞

宿榆關

磧中流水野中山黃葉枯蓬遍路斑駁是行人秋思
苦滿天霜月照榆關

過昌黎縣

千載鍾靈淑公非一縣人堪輿無媿惡元化有滂滂
雄詞懸白日真氣貫蒼旻聞道遺祠在誰能薦藻蘋

宿永平府

此地人言古北平暮秋搖落起邊聲漢家飛將今何
在路右猶看帟石橫

灤河清節祠

廟貌固非一濟祠取焜煌翠霞籠綺檻絳氣繞虹梁
地迥川原映岩幽草木香清風亘六合豈徒在首陽

大風過凉水河

高秋榆葉落紛々風急驚沙暗塞雲盡日驅車度荒

磧教人悵悵憶從軍

襟子店

得錢沽酒酌秋風
萬里山河醉眼中
天下傷心襟子
店無人更和滿江紅

登豐潤城

營州九月異風霜
蒲柳青々野草黃
城上暝雲迷大
漠征人猶自望東鄉

高麗村

村住沙流河水邊
其先來此不知年
高麗舊樣蒸團
餅賣與東人掇小錢

關帝廟

在口皆祠廟丹宮復碧樓
倘聞英鬼降祇為福田求
藝卜最神並崇奉釋氏
浮莫巖名與分公昔讀春秋

薊門烟樹

盤山南畔碧悠口野樹如烟
函素秋冒得日華相掩
映染成水色轉輕浮
四邊天入蒼口夢一墜
人生淡
淡愁最是關河千里
客征車捲幔故遲留

滹沱河

河水一合又旋開
天佑興王亦異哉
陵谷已隨人代
變只今車馬過橋來

燕郊鎮

解樓題古
之燕市

曉渡滹沱向帝城
天寒水落惱羈情
荒郊難覓金台
處野店猶傳酒市名
白草放羊山下遍
紅兜騎馬路
中行判知俠窟無
人在詩句聊為鈞筑聲

東嶽廟

岱宗主生死古語誠有之
尊居五岳首秩祀視公宜
幽州古帝都廟兒何年為棟宇
青門外燠然照康逵
土木貧四海堂獄紛設施
古人問禮本山胡不如斯
拈香沓廝隸神豈享非儀
歷覽驚荆觀咨嗟發歌詩

玉河館

湫二如傳舍東邨近南門羈枕夢頻覺晚花霜未繁
解鞍郵騎瘦持貨買人喧戶外無相識情懷郭向論

次 端窩族祖假花缸魚二首

四角玻璃障寒花巧剪來枝從冰底映葩向月中開
香篆何曾透朔風不敢摧綺綰消息斷鄉國幾時迴
素鬕清若空誰知斗水載金魚十餘頭浮沒遞相代
潑二枕席恂忽如瀛海內雖無桃花浪賴腮瑩朝頻
符藻惜不多瞥然歲其退相憐或相食情用錯所愛
賦形殊洪纖曷若生並在所以河南翁盆中澹相對
役我濠梁游虛曠難與輩

岳王祠

潞水燕山繞，廟宮金扁大字揭。精忠黃龍未醉長城，
廢白鴈傳謠半壁空。錢戟雨侵埋蘚碧，繡袍塵暗褪
猩紅。北人不敢來祈福，魂魄應為百代雄。

金魚池

南池秋水碧於苔，投餌金魚撥刺來。盡日為人供戲
玩，龍門何處有風雷。

琉璃廠

列隧積百貨，乃在午門街。璀璨波斯宝，輻湊四方皆。
入都先往遊，繩直路不差。書肆最易尋，位置頗清佳。

挿架懸標識鱗櫛互挨捱素心愛此物饒眼眩頻揩
寸晷何能適略窺仍降懷回思書簾誚愈多愈不諧
玩物反喪志操約道不乖矧彼克棟宇義當襍雅哇
徐返守故我方寸澹無涯

玉竦橋次使家詩韵

在大內神武門北紫山下

橋似長虹跨北園御溝遙接白河源高荷萬柄迎飛
蓋垂柳千株映駐軒西舫溯流黃鵠翥綵甍臨水翠
蛟奔壽亭往事經灰劫不獨興亡感慨存

象房

在宣城門內

象身既碾碧象屋深如洞牛尾而承頭一物形該象

爾是炎州產，馴擾充遠貢。替駟駕黃屋，長為奚奴控。
怪鼻長沓拖，箝芻口內送。鉤錐遭刺牽，縮踏尚忍痛。
力能制庖豹，胡乃受羈鞅。日夕觀出飲，只堪一玩弄。

訪周菊人達題贈

松江人，滿溪先生後以舉人任京崇文門內

書屋風霜重，尋花海客過。若將人比菊，寒瘦定誰多。

題周菊人看山讀西樓帖二絕

泖水菰烟秋意濃，村原若個夢相從。士衡入洛吳音在，說着尊羹愁殺儂。

湖上書樓小似船，畊雲釣月樂年仁。堂中鶴髮今無恙，只待阿戎捧檄旋。

贈別三明師

俗姓周住宣武門外長春寺

火裏蓮華特地香
長春蕭寂最難忘
世間如有無遮法
萬里山河一道場

次

端窩族祖曉鵝詩韻

留館時每日羣鵝飛滿天以為將曉之候

竟夜睡魔苦掩遮
幾人昏惰棄生涯
朝暎未上飛相
喙獨有城中警曉鴉

自鳴鐘

歲天一小器
終日見循環
妙秘機絨際
音鏗几案間
晷躔猶應度
人事敢偷閑
聽罷道然坐
腦中瀨氣還

玉河館送鰲山東歸

三月旅遊悶殺人快君先渡鴨江津
風雪長程應不說星馳公事更寧親

夜至通州周菊人追到曉別

城東四十里石甃碾車聲行見関山月
翻添鄉國情蕭口櫪馬斲膊口埭鷄鳴
賴有詩人至寒醪共一傾使家以曷月
旋歸裁分韵得旋字

萬里東溟客驅車北出燕羈愁潮到岸
鄉思箭離弦役口臨中道悠口計半年
殊方迷晦朔絕塞積風烟勸野樹寒度
龍灣指日旋城西梅上月應待主人圓

曉渡大凌河至十三山

風沙撲口馬蹄躑催老行人去復還
晨渡河水寒徹骨日高終到十三山

早發閭陽驛車中遇微雪至北鎮廟

卯酒微醺卧小車寒帷斗覺曉寒加
名山知我來游意頃刻粧成六出龍

北鎮廟

北營亞閭山神在
廣寧縣西十五里

連密三百里祠廟占中央秀色蟠遼楚
靈床鎮朔方凍雲凝碧尾喬木拂紅墻
古跡無人問穹碑立夕陽

望盤山

三盤秀色落車前未暇登臨意惘然一片宿猿峰上月行人留訂後來緣

連日寒甚車中作

朔風邊雪倍生寒八塞幾何出塞難惟有東溟千里月轉添清影故鄉看

早發狼子山

歲寒東路近促駕更晨征甜水孤烟澹狼山積雪明谷虛人語響沙凍轍痕耕此處頻來往渾添白髮生

路中逢南至日

久矣倦行役居然度歲華清晨逢豆粥佳節憶梅花

衝雪獐岡險看雲鴨水賒家人無恙否屈指計回車

還渡鴨綠江

九連城下路崎嶇水雪深更凍着鬚飛渡三江天未
曉誰知戩馬化龍駒

安定道中詠木稼

霧松凝細玉寒旭罩輕紗點綴無窮樹鬢鬆一樣花
微風憐瑣碎老雪讓鮮華預兆三冬暖征人穩返家

夜登多景樓

練光浮碧雪埋盡錦繡鉛華惚幻空多景樓頭寒夜
月清虛一氣玉壺中

徽慶園挽 癸未

靈膺郊鞠淑譽彰
婺彩垂闈祚胤昌
宸孝方隆千乘養
羣情顯若祝無疆

太母賓天奄練期
深宮 一作 藥墨感重貽
廡儀

園寢情文叶吉地
灤移舊兆宜 吉地 一作

江言榮五字
柳叔度尊大人稀齡
恩資設宴識慶賦詩見

示遂次原韵奉詒

盈門弟祿歲俱新
花誥獲輝壽域春
玉陛含香推寵秩
羽觴斟灑卜良辰
幸獲升堂容拜母
佇看回色更邀賓
見君榮孝誰爭似
百美皆全世罕人

卷九十四

於使家也夜話至鷄鳴余贈一詩周書翁為贐

葉志詵字東卿官翰林住正陽門外席舫橋往訪值
出不逢留書而來後約與秋舫同會其日葉有公務
不果至東還時葉伴書致意並寄二幅隸書一柄書
扇

釋三明俗姓周住宣武門外長春寺余與石湖往遊
入寺門謂門者曰三明在麼一僧貌豐而渥帽昆盧
衣緇衣鞞然出口吾們的三明也相携入方丈歡如
舊相識筆談良久自言祝髮於杭州席丘寺北來十
餘年引示殿中多宝塔及李太后西像又登經樓文

房與經卷甚整列菊數十盆花方盛開夕始歸後四
日來謝於館中約十月旬日重遊本寺是

同往設午齋食品至三十餘事異蔬奇筍

留贈一詩向夕同往報國寺看松明來騾車

又往廣濟寺看鉄樹口則無矣仍於寺門外分路

別

世學經堂日史

夢經堂日史

易謂之夢經堂識夢也易變夢名經也易謂之日史
 紀行也易行機行也易以史係夢修史於堂也易則
 紀也易謂之史採摛見聞庸寓勸懲堪列於經外
 史之林故謂之史也余於乙卯上元之夕身入中國
 至一所廟曰太學寺有石壘壘而立實是蔡伯喈石經也
 石面剝蝕字畫磨泐余於是不能感集以手摩挲者
 屢陞拜於西楹間儼然夫子之在座也廟貌荒涼有

鞠茂之歎袖拂壁塵徘徊太息良久而覺乃夢也自
謂於心曰異哉夢也夢者有因有想古有牧羊而鼓
吹曲蓋者夫未嘗乘車入以持蓬咬鐵者無因無想
故也今余之夢果出乎想耶果出乎因耶往日無因
近日無想是夢美為至也是歲十月三從兄友蘭公
膺上介之命余以從事隨行入燕旬有九日詣太
學拜夫子之堂堂前石經九十二笏星羅棋布余陡
覺誰昔之夢欣茲就視乃乾隆新刻非鴻都舊鑄於

余心悵悵然如有失歸館寓懷寧人方翔小東書道
至而以蔡經搗本六葉示余宛然是夢中所見余不
覺叫奇曰異哉夢也然後余知夫夢之無因而有因
無想而有想也是行也略紀山川風俗城市人物之
可觀可感可驚可喜者編之曰夢經堂日史是事也
亦安知非隍鹿莊蝶夢中之夢耶翌年丙辰之上巳
日夢經堂主人海觀生自序

卷九十四

夢經堂日史編

達城 徐慶淳公善 著

馬此言輟征紀

今



上之七年乙卯皇朝光緒四年乙卯以道光后妃咸豐是

后進香陳冠事三從兄友蘭尚書憲澤字維應上使

是行也余以從事隨行十月初四日押自京雜教二

十日姨抵龍灣留六日灣上場以一月所

皆取熟於場
市之故也

二十七日巳自來宣閣上使離發出城

西門過百一院灣府下隸之隨後者告曰院是鍊武

之地武士與府妓馳馬使槍妓之馳馬惟灣能之蓋

威化島鬼獵遺俗也自威島墾田以後獵遂廢而妓

之馳馬亦隨而不講今有瓊惠一人而已差過十年

不知何人能繼瓊惠也到鴨綠江三使副使趙秉恒
副使亞知庚申

生書狀申估核
官校對已未生既且一行上下俱齊到諸裨及諸譯皆

身披袂袖周衣上加褂子腰繫藍紬繩帶頭戴笠子

足穿皮鞋伴倘戴竹絲戰笠頂起銀花雲月懸雀羽
翎羽余之所著與裨譯同而腰圍卓綠廣帶稍表異
之裨譯自前皆著戰笠懸雀羽矣余顧謂裨譯嫌其混雜於雋從今著笠于云薄上
扁倉軍官名膺秦有曰吾之打扮何如荅曰執事之
兩班今乃與吾儕爛熳同歸矣余曰今將渡江矣吾
之兩班吾之年齒並掛於江邊柳枝上擬於回還時
更覓從今與君輩相爾汝無復以兩班待我韓曰柳
枝上閑掛恐有持去者不如許賣於人以助裝銀而

渡江則不直一文渡江則可賣其富居其間矣余
曰媮樂哉韓曰執事兩班直富幾何曰直高矣必君
奇而欲居之君其量度時宜以決之韓曰執事為及
第則為方伯方伯所廩雖如嶺東之最薄斷不下三
萬然是未必事也今不知早晚折取其半如何余曰
吾年近六旬塵機已息周寧先斷盡以現職論之韓
曰然則執事之意我知之矣萬兩太守是脚下物其
欲半之於斯者乎余曰唯唯否否萬兩太守吾何敢

嗟如吾者流白首殘年得一初仕吮之如飴積任十
年櫛沐風雨奔走於公役末稍歸宿乃在村中猶言
孔樊破殘殘之邑及至六臘殿殿以宜勉剛果大夫來
馮等語置之下考則始也得錢潤屋之計反為破家
破身之階點檢歸常都無定章分三千金云云太
沒分數矣韓曰審若是也價不直矣每舉必現現
鮮通寶三分而渡江以後此亦為無用之物也
富貴無有用金將以此為用也

券如何今日粟日萬財狗不如目下二金然三韓以
後幾百年傳來之稱號一朝地在列人非我心破城
必須以還退券一坐聖然大笑遂出門入山積聚
江邊御靴設三軍幕軍夜坐帳積光輝使增其輝
亦先三借券收以飲之三使及清五五坐于一幕
亦坐末席命謂滿民曰余以此是百治也耳以遊
美灣云白自由名色已以出使可且余曰我故也
宜早下以三使臣都謂公必可一使及金言大

笑曰其志將欲奪身正使之坐馬頭金弘燁軍官隨行者亦謂馬

半河府搜檢將校來告曰彼欲搜檢衣箱許之乎

余謂河校曰一行中紅人參真個有之何獨搜我箱

為彼等箱而無則譬汝美港校曰搜檢例也以例而

為彼等箱而無則譬汝美港校曰搜檢例也以例而

為彼等箱而無則譬汝美港校曰搜檢例也以例而

為彼等箱而無則譬汝美港校曰搜檢例也以例而

為彼等箱而無則譬汝美港校曰搜檢例也以例而

何心千古流想亦足隨淚今之燕行計其程不過三
千餘計其日不過百五十而猶復言別離之難易耶
灣裨曰執事人無所丐之妓作別於此地故強作大
談也官娃別淚雖是副急當其脉脉斟酒潛潛沾襟
把袂叮囑曰此去萬里服水土趁程途節飲食順時
保千金軀荒村雨露野店風霜眼宜早起要遲如是
之際執事能不淚添九曲黃河溢恨壓三峰華嶽低
乎余曰使我遇這時節奚止揮淚亦當痛哭一場昔

張大牛鵬鵬以爲西巴卒也房妓之屬枕者哭於
五里之亭黃葉紛紛飛盡草凄迷西風殘照角聲
於是將軍下馬執其手而痛哭顧謂人曰爾知我
別而哭之乎腦中慙懣不平之氣無處發憤今猶
境爲哭哭而復之快哉快哉此真丈夫語也君但見
兒女子惜別之淚獨不見夫英雄烈士臨別之感
哭乎奈何奈何馬頭日日已晚一行幾盡悲哉余乃
乘步輦促令渡江江流波細輦夫寒衣汝水繞沒深

中江般渡至三江又寒涼鴨江卽天下三大水之一
而發源於白頭山者也以此水界限彼我作為關防
而渡水潺流今不足以投鞭橫鎖則固圍之方亦足
寒心及渡登岸家國從此渺然回顧九龍亭送別之
人猶立江頭令轎夫疾走三里許書狀官歇轎於路
傍見余至謂余曰渡江時得句乎余曰只有一渡鴨
江非我地人情到此暗銷魂一句而已書曰狀曰自弘
濟院離散時擬賦遠遊一篇及聞匹馬蕭蕭萬里程

都門一出卽燕京之句尚不得下筆今又有一渡鴨
江之句可謂一字文章令人氣沮余曰嘲我太甚余
果有氣沮處記夫魏運亭柱聯乎北極南溟為表裏高
天大地此中間月沙詩也宇宙百年人似蟻山河萬
里國如萍東岳詩也兩先生大筆固非後生所可月
朝而至若今灣尹上有樓臺平野色中分天地大江
聲之句信與此亭爭雄詩格雄渾秦法豪健此余所
以氣沮也余於弘濟院道中口占一律曰

匹馬蕭蕭萬里程都門一出即無京魯連志氣今
東海杜子文章千古壯心笛由裏關山驚歲曉樽前風
雨動寒聲離道不作幾微色即笑人間刺刺情

黃蘆白草一陞彌野行過十里餘峯巒明媚溪水繁
花林數掩巒洞壑深遠隱隱若有村落恍悲鷄大聲
出於其間山迴路轉處處皆良土地膏沃可以耕墾
山川周道可以置邑而彼我兩集遂成閉土可惜可
惜千飯九連城城址尚存古者九城相連故有此名

高句麗時亦嘗都此所謂國內城又曰駿陽城金時
將軍幹曾拒高麗築城於此皇明時為鎮江城游
擊將軍府今清陷遼仍為空地去今二百餘年也
府設幕於文姑前後即教劉溫井碑止宿三使所處
地依坡上設房幕在馬友柳樹其他所處掘坎熾
度加在其上圍以篳屨如入守城然容二人足以禦
寒列幕之連接入其間有行之以合而
角吶哨所以警虎也其碑於義州軍中

責之曰竟夜吹角已有前例胡為乎間斷軍卒曰小
人不知其例韓曰此例也吾於燕巖熱河日記見之
爾何謂不知聞者莫不絕倒

二十八日抵晴日出即發路有溫井水略溫不甚熱
溫井坤之稱由此也至湯站有古城遺址世傳明時
所築而不可考也過卷秀谷時見其俗臨清溪恰似
我國平山卷秀而奇峭峻數及不及耳皇明倪文
德諱泰便東來見平山卷秀與此相似所以名此也

碑碑有朱天使之碑並刻于石壁碑馬頭遙指柳

碑碑有朱天使之碑並刻于石壁碑馬頭遙指柳

碑碑有朱天使之碑並刻于石壁碑馬頭遙指柳

碑碑有朱天使之碑並刻于石壁碑馬頭遙指柳

碑碑有朱天使之碑並刻于石壁碑馬頭遙指柳

碑碑有朱天使之碑並刻于石壁碑馬頭遙指柳

碑碑有朱天使之碑並刻于石壁碑馬頭遙指柳

碑碑有朱天使之碑並刻于石壁碑馬頭遙指柳

乃追悔於心曰東人之壯觀必說燕京而今到柵門
柵門如此燕京可知反不如樓下吾廬之並與草扉
而無之何其苟且若是也彼人老少皆著新鮮衣服
出柵圍之與馬頭革鞞握手慇懃如重逢故人而彼人
之守鄭太平者十之八九鄭太平者宣川人而上房
皆其子也其後人燕凡為一命其為人善飲酒善
率皆曰吾直無為故彼人無不情厚而款曲且鄭太平
之子亦皆曰我東一報故順口呼之聊誇渠輩之能

解東音也俄而門開隨三使步入柵門鳳城將與章
京機國護送官通官董以第符以柵店殿按報單
俄城新以鞅錄者點檢人馬三使去駝檯轎而過
一行乘車騎馬者並下我朝使臣入柵門下轎步過
鳳城將所坐店殿古例也有一大臣以上使入燕謂
鳳城將曰吾雖小邦之人其職則大臣彼不過大國
之一城將也不可過執使奉命以辱君命吾將回還我
國奏達天子講以禮數然後可以更入卽令回轎鳳

城將推謝不已務使從便乃以去駿擗輻為約奈至
今遵行云行數馬場入處於上使下處對炕家鷄姓凡
炕也突之制一字屋之內或開楹為左右炕或通楹
為對炕一間之中三分之地築輒如墻高五六尺鋪
輒為埃藉筆其土炕必西南有窓窓必限壁窓前
甚闊外塗以薄薄唐紙正中一門為出入之處或兩
或一以板為之如我國庫舍板門門隙塵霧隙風透
寒屋樑穹窿無承塵地必鋪輒輒氣逼冷炕埃炊

葛黍十數柄則淑氣上升如甌蒸氣可以蒸餅招下處
庫直自濟府差下處庫直二人渡江張目叱之曰
爾所謂炕反不若溫井坪人字幕吾室露宿於地不
可經宵於此另定他炕然後可免廢骨矣答曰上使大
監副使令監書狀使道下處亦是一般小人以何心
術必定進賜下處於不堪宿之炕乎大抵炊炕之法
只令微溫今乃多炊而烘熱此所以溫氣薰蒸也適
以屏風設以房幕則御寒有餘矣今日何不告我借

來屏風及度幕荅曰何不問小人以處炕防寒之法
乎余無以荅之韓主簿適在傍余謂韓曰彼漢之荅
兩班語有若美操何不打臀荅曰彼漢何罪必欲罪
之始制炕法者宜猛臀矣余曰始制炕法者誰也荅
曰若非韓當必是冒頓余不覺失笑韓曰執事渡江
時自稱兩班高掛於柳枝上今又稱兩班兩班兩班
是何物余曰人辱見之美自厨房備連步飯木板上
置一鉢飯一器羹一碟饌饌則民魚如小兒掌一片

萬外一割鯢藍少撮椒將水半匙合盛而已飯則舉匙
而水銀潑地入口而恒沙淘河氣急急面皮紫漲準
擗大叱嗚投入乾糧馬頭忽思俄於下處庫直一遭
無顏又被強咬馬頭則豈非大敗乎乃忍住鹿氣
低聲謂曰燁曰第拾乾糧馬頭柔曰余家至貧雖朝
不食夕不食飯必炊白米饌必排數椽床必有高足
梳管盤矣汝之待我今不如我東山反幕七分床穿為
頭響響的笑曰朝鮮米朝罕饑俱為一鼓盡上使道佳

還朝夕支供載車而來自軍官譯員至于伴僮皆是
老米餅一樣饑苟違此式少不搏節不得不用不
虞備銀子及至還到灣府牢囚中人盡膏家歲而不
足至於族徵今行公路或六七人或十數人伏於路
傍呈狀於三使臣行次其狀辭即曰宣川某也某也
義州某也某也昨年赴燕多用不虞備其害及於族
戚橫徵破產今年又赴則族取之餘存者必將舉皆
蕩敗云云似此舉措進賜主已為目覩矣厨房白例

所以如此至者高足盤以下重之故為三使臣行次
乃帶三盤而來矣余命曰老米何米谷曰以稻種田其
米皮厚硬糲必固藏於朝鮮且無車運雇直美金曰
米哉米哉米真貴也老米飯黑難堪玉燐仰賴啄餘
飯太少無以充其腹者其奈何我店裡少女子以醬塗
粉插花強作妝飾之態與鄭太平笑呢呢語媿媿見
余而隱隱疑其明瞭而窺視余謂太平曰我國鄉田安
人之汲水耘田者不避其常行人或接語指路而及

逢兩班則必回身而立或低首至地著澁不能對面
余常疑恠今中原女人又復如是其故何也太平曰
此不難知朝鮮兩班素識禮義且極尊嚴故女人自
知其露面接人之爲非禮故自甬流出著惡之心也
禮義之心著惡之心豈有彼人我人之別耶余曰然
亦可謂能知天性四端者也辨明內左右市廛一字
橫列東西街路縱橫綽綽然戶扉棟宇欄碧粉
金扁額不炫燿輝煌盡以買物貨皆內地奇珍無不豐

風余謂馬頭韓時及韓人馬頭曰見柵門殆同南山
荆谷其有馬頭韓人馬頭曰見柵門殆同南山
荆谷其有馬頭韓人馬頭曰見柵門殆同南山
荆谷其有馬頭韓人馬頭曰見柵門殆同南山

荆谷其有馬頭韓人馬頭曰見柵門殆同南山
荆谷其有馬頭韓人馬頭曰見柵門殆同南山
荆谷其有馬頭韓人馬頭曰見柵門殆同南山
荆谷其有馬頭韓人馬頭曰見柵門殆同南山
荆谷其有馬頭韓人馬頭曰見柵門殆同南山
荆谷其有馬頭韓人馬頭曰見柵門殆同南山
荆谷其有馬頭韓人馬頭曰見柵門殆同南山
荆谷其有馬頭韓人馬頭曰見柵門殆同南山
荆谷其有馬頭韓人馬頭曰見柵門殆同南山
荆谷其有馬頭韓人馬頭曰見柵門殆同南山

以號令軍官稱我則奈何韓曰吾聞時者吩咐哀乞也非號令也哀乞加飯使人太慙自稱曰號令乎余乃噴飯滿案入闕帝廟廟制外施金碧若有若精洒殿內塵埃堆砌塑像與我國南廟懸殊全無嚴威氣像亦有佛寺及財神廟廟門兩旁刻分龍虎二字門外有兩柱上頭鑰飾左右對立我國將亭前即守旗竿每月朔望懸黃細旗於柱上無處不然凡寺廟宜在靜僻乾淨之地而此在閭閻市街之中極

兩清製徒人曰沁路寺廟在在皆然云與韓主簿人
酒肆酒保先問斟酒麼余曰斟來酒保各置一小鍾
於前以一小鍾壺湯酒次第斟去余先飲一鍾卽白燒
露酪也凝酒得沾唇未及澆舌而味甚辣烈毒自射鼻無
下酒物計還酒錢每鍾十五文余謂後者曰沁路酒
肆皆此樣子曰非也自皇城裏酒樓真可一飲其他酒
劣價自昂費鈔誠可惜比如我東濁酒假家也余曰中
原無色酒又乎曰色自色酒自酒未見此酒爲白濁酒

矣命曰各殿別監政院使令各宅廳直輩以琉璃風
簷水紗細笠半醉半醒踉蹌而行日落西山鳥鳥擁
翅時隊隊相遇未鍾路前禁府後則不得不一飲未
色酒家亦把酒唱歌通姓通語之際因境界之不合
就中一人突地氣湧揮拳使脚打破酒器左右跌踴
亦是此等風俗第一快事也

此可謂

十一月初一日秋早陰晚晴平明離裝從

而乘車是太平車也車制蓋如我國坐車而兩轡
上設幃屋馭用二騾幹車馭者執長轡居坐前左
長杠上而兩轡則鞭亦有聲聲如霹靂二騾皆見轡
奔走及於左右之台也其指揮而居於後者皆
有一徐姓者稱以同姓來而款洽余問曰爾是
孟子孫乎曰然鳳城西北下一大庄號是各家也
中一人現在台城使通官矣柵門公曰自台柵門
石梁河至台城通官矣柵門公曰自台柵門

為見鳳凰城迂回十里歷安市城城在鳳凰山中唐
太宗親征高麗時此城屢月不下為守將楊萬春射
中左目及其回軍萬春登城拜謝太宗賜絹百匹此
載金富軾三國史而通鑑及唐史所不記也城址尚
存可通線路云云行仁未及見轉入鳳凰城歇宿于
鳳凰寺登樓望遠見鳳凰山峙立於碧霄之上其巔
密如磬石軍中見者皆言不意復見此城也
城近行役之勞者皆謂在外鳳城而康熙時以生盜繁

恩加開... 路見... 車夫... 坐卧... 其... 也... 取... 也... 焉... 人...

行路路去三分僅一分

初二日醉晴寒風勢甚大寒威忽劇燠炕如露路處
 家惟如潑水早設厓伯頽洞元丞相伯頽犯高麗時
 駐兵之地渡雍瓦北河不過一川流兩稱之曰河者蓋
 此地少水水之稍大者統稱曰河貴之也此水發源
 於白頭山分水嶺過松姑及各縣經唐太宗庚午
 時薛仁貴劉仁願駐兵處各設鎮使軍也午飯于
 家三使司館于一坑蓋亦則同坑費用分館例也

向入渡河自此至通遠堡城路廿四里入渡故名
焉言我國至為京此水亦在中間故又名半渡河余
曰此也入字華音即半也唐范家莊通遠堡正名
古之鎮名僅有去城僅廿里自馬一三五初名烟
今通遠帝諱改以飛遠一時之誤也今通遠堡
人夢一人自稱張飛乃言曰今人知張飛二弟之
及元會名何不公也

通遠堡城在通遠堡城內城內有古碑一碑上刻
通遠堡城在通遠堡城內城內有古碑一碑上刻

水田至草河口登州人曲學之以學究僑寓於唐舍
 出示憲課錄曰今夏所課也中有鳥聲韻花外離思
 補校頭好受驚一句謔是散侑有批評清新可誦姓名
 命也之使子姓與子童讀數行書即左傳也啾唔春容
 德語人而句讀音響皆無以辨別過分水嶺嶺東之
 水西流謂之分水渡連山關止宿一
 皇明總兵李如柏督世賢隨鳴泰將
 河路攻連州慶自此有長徑可以不由

瀋陽直抵山海關成化十六年朝鮮請改直路兵部
尚書劉大夏奏以為朝鮮直道之迂即祖宗微意
不可言言狀渡灣時依本碑各書人北下隸姓名居
三不谷各人到此點考余曰無碑者越者法當斬矣
遂令各人立矣點考時無碑者三不谷難度字闕眼
亦不書曰雖欲闔眼無債命何一譯曰昔有一
人無碑者三不谷難度字闕眼率行時多
亦不書曰雖欲闔眼無債命何一譯曰昔有一
人無碑者三不谷難度字闕眼率行時多

初四日癸晴稍暄過娘娘廟廟在連山西五里山峯
之頂卽叢祠也踰會寧嶺嶺傍有三石峰列峙巒凡
弟巖巖嶺之上有石如席形又名虎狼嶺席狼之與會
寧語音近似疑是訛讀而未知孰是嶺之頂有闕帝
廟甚靈異一行下隸爭供金錢禱其往返之安穩嶺
之名或稱天磨或稱大高嶺底有盤龍寺抵甜水站
午飯差入站之水多苦鹹而此獨甘冽故名踰青石
嶺嶺之石或青或藍可供硯池書鎮之屬而無所稱

恨無鑿賞者也兩嶺遠在大關隘也較諸我國摩天
大關不啻如培塿而以險聞於天下何也昔孝廟
入藩時駕次青石嶺有陰雨胡風之曲追思當日那
禁風泉之想到娘子山止宿唐太宗東征失途夜聞
鷄鳴尋林數中遇一娘子會歡天明視之乃一塊石
其形如鷄建鷄鳴寺於山腰以祀之云
初五日甲晴東風塵沙彌天不辨咫尺一行上下舉
蒙塵土俱無人形余謂韓主簿曰自入燕路五官無

所用矣車聲甸甸常作晴雷雖有千兵萬騎之追後者無以聞耳官自聲矣語音彼此不通與幹車的竟日同車一語不相接口官自喋矣塵煤撲面而眼俱眯且官亦自盲矣至於鼻不得息氣咽不得吞涎使一生病身如是而幾何不真哉狂狂耶謂馬頭曰汝輩真非人也吾有使役雇汝往還六千里則酬直討索必也十里十錢而燕行所食或有銀三四兩者以銀計錢錢不當雇備經風雪不言苦况此非心術之

病耶答曰此是中入等誤入也往來經營不過中泉

二十吊謂兩曰吊柵門以一百六十葉為一吊五期

支過可謂空會得邊賣以譯院諸負物貨也而橫財

則足以資生一年轎扶囑引路等名色最為至薄此

亦縛頭而爭圖得際邊畢竟納賄而得之兩會自有定

而賄隨而多小人等此行亦將不廢而自廢矣早發

見村落殷富人物精明平原良疇力農資業入柵以

後此地稍為開豁牛飯于王寶高或曰王寶即王八

漢語之聲相近也俗稱王八為鸞此地有鸞峰故云
路傍人家燒香禮佛蓋其俗以朔陞焚香祈福于闕
帝且有財神之貼壁者每日虔禱冀其興旺至於楹
聯柱貼如洪範乾五福先言富大學十章半理財史記
中有貨殖傳周官半是理財篇等句可見俗尚之重
財也遠左河經無一水田以為闕外水田有禁制故
惟高麗僅有之踰磨天嶺一名馬蹄嶺嶺西有唐太
宗駐驛山又有王祥嶺古孝子王祥之所居此訛傳

也水鯉王祥不曾居此居此者即 皇明時王祥祥
之祖以元將明初歸附其子佐成祖開燕京有爵封
遼東都督其子祥龍其故址有都督王祥墓歷高
麗世最始見山側有墓墓前有石床床上設石香
爐石酒壺石爵又有表碣一似我國墓制意者高麗
校虜人尚遵東俗而然也過阿彌庄馬頭牧翁告曰
白塔見矣南望遠西塔頂巔於雲間從此無山平
原曠野一望無際台為八九百里云漸近遠城車馬

雜遝入由東門編遶屋宇井井雕窓粉壁繡戶綺楹
極其精巧轉入市中每鋪樹以朱紅高柱或樹玄木
高牌所賣之貨名以金字刻于其上又或懸以所賣
之物樣如興盛店裕興局成衣老鋪首飾店貨真價
實不悞主顧仕宦行臺草料俱足等名色是書其貨
名也如木刻扇子烟盃銀錢酒盃紙燭等名色是懸
其物樣也茶市香鋪錦店藥局其他種種名色炫耀
人眼不可名狀穰穰熙熙肩摩轂擊真皇天都會也

城堞四圍方正累壁以築自外觀之宛是粉牆碧瓦
高峻不可攀登內築亦如雖在平地可以守禦路見
婦女多纏足如弓形行步不便遇風則或杖而免仆
滿女不必按婦女弓足起於李後主使潘妃以帛纏
足金蓮貼地行其上謂步步生蓮花墨雖見樂府雙
行纏辭曰新羅纏足如春知其起於六朝
他人不言如我獨知可憐
然史記云臨淄女子彈絃纏足又云榆修袖躡利屐
利徒者以屐徒首之尖銳言之也又石崇屑沈香為塵

使姬妾步之無跡比諸潘妃殆已先之盜發越王塚

得宮人玉屐晉世履有鳳頭重臺分梢之制襄陽耆舊傳

唐杜牧之詩五銖尺裁量減四分碧琉璃滑膩春雲殿

成式詩醉袂幾侵魚子鱗彩綵長身花鬢鞋又如六

寸膚圓光緻緻及慢移弓底繡羅鞵之句可見弓足

之風已久矣悲燕趙女子三四歲即纏故天然纖小

並無弓形弓形者嗤為鵝頭脚不足貴云城內有文

武兩官負錢穀甲兵武負主之商民詞訟文負主之

中國官制郡縣各置文武官文是漢人武是唐人似
出於御宇侮之策經遠之謨矣出西門編如入闕帝廟
廟宇極其宏麗自柵至北京闕廟非止十數而無此
比也按洪武二十八年建漢壽亭侯廟於鷄鳴山漢
壽亭名今人誤以漢字為句永樂中始載祀典每
歲五月十三日遣太常官致祭後主景耀三年追謚
壯繆侯宋徽宗崇寧元年追封忠宣公大觀二年加
封武安王高宗建炎二年加封壯繆義勇王淳熙十

四年加封英濟王萬曆四十二年進封三界伏魔大帝神威遠振天尊闕聖帝真君年前田子之亂討平張格爾時有闕帝顯聖之功勅令州郡於所在闕廟增修虔報云此廟金像身軀壯大左右翼廊皆有畫畱即闕公戰捷之象而右廡配以趙子龍左廡配以張桓侯桓侯之前用亦像范疆張達跪坐受誅之狀固是好事者所為而亦足為千古快心事矣廊之南又建二層樓東扇曰晨鐘西扇曰暮鐘縹緲飛翔制度

絕巧其前又有木牌樓樓上多鴉扇額如曰萬古英
風曰協天護國等類不可殫記凡佛寺神廟必有鐘
樓鼓樓在前對峙晨夕考擊以為日例出廟門北迤
至白塔下塔高約十三四層會長幾數百尺圍十七八
間累甃為八面面各石刻三佛下廣上尖每層加簷
簷端皆懸風鈴最上頭樹銅柱節其莖如竹節維以
銅索宛是堦子上三枚金鎗第四層大書聖德廣流光
四字云而今無矣蓋唐太宗征高麗時命尉遲恭達

此塔面舊有坎字銅碑記云凡八稜高三十六丈圍
十七間而今無可攷面面頽敗風雨剝落用力甚鉅而
荒涼如此惟彼狼居勒碑交南銅柱未知尚存否英
風偉烈留得竹帛千古不泯較此如何或云華表柱
者尤極誕妄古人傳記以華表為城門柱而舊在城
中一民家今失其所云按王鳳喈事類通編奉天府
卷曰華表山在遼陽州東六十里因丁令威化鶴故
名焉柳夢寅集曰使行時入華表關有柱高十丈下

有石碑畫一鶴傍刻令威詩其北有寺云舊道東漢
時為陽平城五代時為勃海後屬遼金而城址猶存
云依城迂回至東城下北轉而渡太子河燕丹逃秦
入燕水處一名衍水又云上流三十里臨河有石城
世傳高句麗太子守城城陷投河而死故名云到迎
水寺止宿或云白塔明中葉詠白塔以示滄人書

白塔十層執欲隨層層剝削層層奇一天曠矣身

偏管大野茫茫影許遲乘鶴仙人餘故郭征驪皇
帝但荒碑浮生坐數千年劫紺雨藍風任過之
初六日虹晴日出後發行厯接官廳瀋陽將軍巡邊
時遼陽鳳城將出站迎接處也午飯于爛泥堡遼野
中最稱沮洳地而今行路乾穩涉皆謂早有抵十里
河堡止宿張鵬翱家問是橫渠之裔世代久遠不可
記云見其壁上有三位主橫從者開視在中之主卽
其祖考祖妣之位而雙書於一面之內在左之主卽

其考位在右之主卽其妣位各書於一而且考妣皆
書姓氏傍題亦書姓名但主據稍長橫制如我國列
置三橫前排鏡臺一雙香爐一坐而全無帷幔之遮
蔽坐卧其下親瀆太甚自柩至此無論問家店舍皆
有財神之祀而無祭先設位處獨於張家有之無乃
先賢遺商之故歟澹人以遼野詩示我卽五律一則
也以七律答之

行到遼陽一壯哉茫茫春色逐眸開車後卷蒼翠

難盡路切空青劃以回四際無雲却轉出一天如
水樹浮來誰知極北春光早羌笛聲聲忍落梅

初七日兩晴鷄鳴雞鼓午飭于白塔僅此處白塔亦
可謂壯觀比遼陽白塔其高總半而八面巖瓦築中虛
上穹其高七層每層必重樁架椽間闔環居其下間
之居人不知何時所建而亦甚頽敗渡渾河一名鄆
里江嘗聞孝廟在瀋時清人進一區菜田在河邊
建亭名之曰野坂今不知其處到瀋陽城外門明如

里門環以土城從者曰自年以前南匪以後始築土城
云城如我國閭家之土垣不可以完以大國而有此
姑息苟且之事乎三使陪表咨文以次入城由撫近
門行館于城南閭家以饘改服道袍與三使同詣太
學四拜庭下陞殿奉宙則當中奉安至聖先師孔子
之位朱漆木牌以金字雙行書之右用漢字左用滿
字朱子在西從享之位從享凡十二位皆朱牌金書
雖而程子在廟位此與歷代有異而我國所未遑也

殿外楣揭先覺斯民殿壁揭萬古師表韜與天地
參嘉慶聖協時中韜光德齊情載韜豐其尊仰斯文
如此啓聖祠在殿後當中有五位牌書叔梁公防叔
公祈父公木金父公夏伯公是夫子五世並享也左
右六位周濂溪之父蔡西山之父亦從享焉欲入明
倫堂牢閉不許欲入書院鬪子門者以為欽差來留
外人不得入云轉到行宮有碑以滿漢字雙書曰諸
王以下人負等皆下馬由文德坊牌門陳核而入顯

瞻宮衙示丹腹眩眼試士有閤較射有場黃瓦碧瓦赤
欄玉砌面面出色嘗聞盛京文溯閣藏四庫全書不
知在於何處宮門之內盡鋪花輓窮極巧麗未知迷
樓何制長嶽何狀而恐無以加此也總移數十步有
太廟門之扁太廟既在此則社稷必在其右而未及
武德坊牌門聊按忽有守者阻擋徑出過西街即三
學士成仁之所也追念當日猶不禁志士扼腕慷慨
之懷也朝鮮館在東門之內館中有封鎖處即昭

顯世子 孝宗大王所御之室今為都下馬頭率夫
馬留接之處余曾見海東瑣語中有一編文今記其
略曰

孝廟在潛邸時有一妙年女子求見自家樞密願
為婢使觀其貌雖無姿容氣骨清秀決非賤流遂
許遂室寢食閱數月忽告去問其所向曰漢出無
所向醫問有古師不知今尚在否也因飄然而去
及御潘館一日夜靜月明東歸之思不禁悽然歎

步庭除西風颼颼踈燈燐燐一女子杖劍前立曰
自家能記賤女乎 孝廟視之戴珠冠插翠羽腰
束蠻裝足跟雲襪雙手携三尺青蛇劍疎眉若鵲
凝眸如星意認其劍客良又答曰未記曰往年久
留宮中抑忘之耶問何以至此曰幼好劍術欲求
託身適行天下遂結緣於九大王已有年矣今聞
自家到此更願一瞻儀容乘夜而來借叙經歷歎
歎者屢以如此如此善保龍體再三申囑冉冉而

逝其所為說不傳于世云此近齊東俚語而亦安知其非真歟

城裏有八衙門將軍衙門奉天衙門學政衙門五部衙門將軍英隆旗奉天府尹堂景霖工部侍郎錫霖戶部侍郎書元刑部侍郎善壽禮部侍郎和色本兵部侍郎富呢雅杭阿蓋中國軍制漢人為民故能為商為農為工滿人但屬於旗軍名隸軍籍者多是壯健官給糧銀妻子亦計口而給故無所事於生理臨

陣戰亡則錄用其子孫云按盛京古爾慎地瀋水一名萬泉河瀋陽之名由此也清太祖獨斷定都於此癸卯修建城垣已亥始製滿字遼東經略楊鎬集奏瀋陽分四路來攻薊四十七萬清祖大敗于薩爾赫山即漢語木厨山也姚汝田方物諸種到柵交付於鳳城將次次遞運至瀋陽又為交付於東京到北京交付於我使以為進獻乾隆時以朝鮮方物之難於運致特定此例也方物未及到首譯舒萬留此云瀋

陽稱盛京與北京南京興京為四京其地方東南至
鴨綠江五百七十餘里東北至回客塔二千餘里西
至山海關八百餘里北至邊門四百五十餘里為蒙
古地境南至海七百三十餘里去寧古塔一千三百
餘里版廠在瀋陽寧古塔之間瀋陽之地北極出地
四十二度當天星柁木之次入尾宿十度之分古挹
婁國唐置瀋陽遠及興遠軍洪武始置衛詠詩志感
詩曰

設險蒼茫野瀋陽知在斯行人今日淚東國百年
悲學士成仁處先王滯館時不才身已老把酒
漫吟詩

初八日卯晴早由外攘門出門樓跨十字街上樓下
四方設門與路相直東西南北衙衙相望如繩市肆
門戶之櫛比四方如一焉門上有懸門以板木為門
用轆轤上下之門閉後始下懸門而置閉之云瀋
城之內東西南北皆有十字閣其下有四門各通四

街閣之上懸大鍾崇德時有軍國機謀欲與諸將會

議則輒搥文政殿大鍾而城門八處德威天祐福勝地載撫近內治

外懷遠皆鳴鍾而應之鍾閣則牢鎖不許人登前有大

碑書曰寬溫仁聖皇帝清太宗勅建崇德二年五月日

立行數里入實勝寺即東人所稱皇帝願堂也其說

無稽按盛京通志天聰初西蕃喇嘛僧喇嘛即道德無上之稱

馳載玉璽轉國牽烏牛白馬而來曰東方聖人出故

奉獻因建此寺今考嘉慶乙丑潘幸時行宮壁上板

獨詩有松杏捷後建寺之語而說之不同何哉意者
崇德以偏師破洪承疇十三萬軍於松山杏山之戰
歸建此寺以紀戰勝之績實勝之額所由起也仍是
奉西蕃所獻三重以誇耀之歟抑寺之創實在天聰
而其後崇德卽其寺豎紀績碑且易其額與

余按越以下和所獻之璞琢而成壁後求婚於趙
以納聘馬始自並六國得之命李斯篆之曰受命
于天既壽永昌使玉工孫壽所刻之

太師觀又以
蘇田

王制墨李斯以魚鳥篆刻之 秦子嬰奉重降沛公於軹道傷高
 祖卽位服其重因世傳之謂之傳國重漢孺子未
 立歲於未央宮拳篡位使王舜迫太后求之太后
 怒罵投重於地蟠角微玷重仍歸拳及更始滅拳
 校尉公賓得重詣宛獻于更始赤眉殺更始立盆
 子重為盆子有盆子獻于光武至獻帝董卓作亂
 孫堅得之於城南獻于中表術奪之於堅妻術
 死荊州徐球送重於許昌獻帝遜位並以重歸魏

錄刻有除曰大魏受漢傳國之重魏亡重歸於晉

晉懷帝遇劉曜之言歸於聰聰死歸曜曜滅歸石

勒勒滅歸苻苻滅歸劉石二虜共五十二年以

晉帝重歸於石勒石滅晉征西將軍譙尚購得於

冉閔之將軍於除以還東晉時穆帝永和八年也

是後宋留漢書相傳以至於隋滅隋東漢書歸於

子正道並重入突厥唐太宗曰重入突厥

昌貞觀四年蕭后與正道自突厥奉重歸于唐末

溫篡唐入於溫莊宗定亂入於後唐莊宗遇害明
宗嗣立再傳養子從珂是為廢帝從珂自焚自是
重不知所存至宋哲宗咸陽民段義獻重及徽宗
為金所虜凡有寶重金皆取之重凡十有四宋之
南遷二百年無此重也明矣自金取於宋寶重
出處得失未見明也元三十一年中丞崔
段秘書楊桓撰書而辨其文曰受命于天既壽永
昌此為傳國璽云云說曰與從珂同焚于洛陽之

蓋武樓而他日段義得之獻于宋哲宗既曰入金
與金哀宗同焚于幽蘭軒矣翟朝宗又得之獻于
宋宣宗宗璽之屬跡在宋屢敗露矣而元之崔致揚
桓又何由得之以此觀之今西蕃所獻玉璽非傳
國璽也明矣然則此璽果是何璽而來獻于清朝
立國之初乎縱使真得秦璽亦無道之物亡國之
器豈舜之五瑞禹之玄圭乎自秦以來不璽為輕重
於天下所重在於璽而天下反輕是以豈非區區婦

人之智乎

又按開國方略曰天聰九年九月癸丑貝勒多爾袞等收服察哈爾部衆獲歷代傳國玉璽藏於元朝大內至順帝棄都城獲乃之入沙漠後崩於應昌府璽遂遺失越二百餘年有牧羊於山岡下者見一山羊三日不鳴草但以蹄跑地牧者致之璽乃見歸於元後高博碩克圖汗後為察哈爾林丹汗所破璽歸林丹汗林丹汗亦

元商也。貝勒等聞重，在蘇泰福晉所索之，既得，視其文，乃漢篆，刻誥之寶四字，璫璵為寶，文龍為紐，光氣煥爛，洵至寶也。多爾袞等喜甚，曰：「皇上洪福非常，天錫至寶，此一鏡萬世之瑞也。」遂收其重，而還。太宗設黃案焚香，設玉重，親捧之，率眾拜天，禮畢，諭左右曰：「此玉重，乃歷代帝王所用之寶，天以畀朕，非偶也。此與成吉思汗、西蕃喇嘛僧馳載玉重之說，有異矣。」

有二至燹

正殿安佛像似是喇嘛之像殿扁曰海月常輝殿內
左柱掛乾隆所射弓韃右柱掛嘉慶所射弓韃弓樣
絕大皆是錦裝前有床卓卓上羅列端刻烏銅香爐
添燈書畫夜常炷其他寶貝精巧燦爛當中有一部佛
經漆紙金書末有臣和珅書四字和珅即乾隆寵臣
之專權者意者以此戲媚而珅敗後猶存也殿東有
行宮書畫神像置方正殿西有喇嘛所寫之像為

聚地講經處亦擺列禪榻而已庭東西各有碑閣而西
碑涵字不可解東碑漢書書曰蓮花淨界實勝寺記
續碑行世不得詳見東西比且有廊廡中比皆有佛像
又有樂器之類具如百數之檀栴之樂器又有儀
仗之飾僧徒臨幸時設殿如魚龍曼延之具南端外
有宏古守直之房首僧年老不見外人其餘僧徒二
百餘或著白衣或著赤衣或著黃衣其古也其古年不過十
二三者四五也固守直僧有闍者名三其後古年幼

者逆送填代僧各月給銀二兩首僧統計一歲俸銀
千餘兩云僧與馬頭輩語馬頭輩如充耳口哇不
能對余問馬頭曰何也曰彼以蒙古語薰薰我不知為
何說余曰快哉曰何快曰自入柵以後汝輩輒謂余
曰作行幾日公路所經習聞滿語不啻眾林之喙而
不解一句未學一言以此鈍聽何以記誦四書三經
乎昔有一相公使行時比至皇城盡得滿語街談巷
說賈豎鄙俚之言無不通曉譯員輩皆以為不及此

非口讀卽不過耳票則聰明何若是懸殊乎余聞此
發駢無以答矣汝輩之赴燕自以為二十餘行則聞
蒙古之語可謂習熟而今與蒙古語一不能開口汝
獨非鈍聽耶今吾多辭滿語赤飯者吃飯也何于睡
者好睡也斗流者豬肉也只丹者雞卵也謂主人曰
掌櫃的謂車夫曰幹車的問人年歲則曰道多年紀
問何物貨則曰甚麼東西馬頭恰恰的笑曰壯哉進
賜聰明也初行能識四五轉語若三四次燕行可識

十數條件矣赴燕下人自有生之初不識天地字一
番到燕通解漢語如有宿習者箇箇如是余曰兩班
聰明本不及常賤也昔金相谷以文章鳴世而曾讀
伯夷傳一篇一億一萬三千遍而猶不能突誦一月
尋訪友人友人不在家只有十一歲童婢應門相谷
留訊於童婢而旋起童婢之不能誦問童婢曰能誦
傳唱否婢刻下立誦不錯次序相谷曰這聰明這聰
明始可以投伯夷傳汝輩聰明直不過盲者直門也

遂進茶少憩步出距馬木紅欄外有碑曰諸王以下
到此皆下馬滿漢字雙行而書之登車就路厯搭橋
由徑路而行從者言太祖福陵太宗昭陵在關連山
下北距十餘里而樹木如雲可坐而不可辨嘗聞福
陵山名天柱昭陵山名隆業渾河界其間太宗有二
馬一名大白一名小白經百戰成殊勳今昭陵前二石
馬是也又聞永陵內寶頂上生瑞樹一株圍覆城垣
云此樹雅馴抵永安橋築路始此蓋皇帝潘幸時

御路當中築灰為馳道比諸左右配道高為一尺以
遠路泥濘車行不便故也見今潘幸年久築路幾盡
平夷橋梁舉皆朽頽橋成於康德時而官聞本朝人
金萬海年二十被虜赴役築永安橋以賃舍後贈還
而能為滿語屬譯負入燕過此橋手撫橋之第幾石
流涕曰此吾所負石也同行譯官鄭忠元聞而傳之
云午飯于大方身民人劉桂方家案有書籍能通經
史曰伯兄善以方善文學方在數十里外訓蒙鄭太平

指一村家曰年二十時赴燕到燕寧有一女子年少
美艷而形容憔悴衣裳襤褸步步蹒跚而來
伏三使下處曰家在廣東開店資生家夫消折本錢
數萬金一朝不知去向十餘年漠然無聞或傳生在
關東為人傭雇故為尋其跡單身離家今為四年跋
涉幾萬里幸到此尚不得其處而盤纏絕之爾家
恩賜語音凄切精誠懇到三使各給五緡京錢也
百拜叩頭出門啼哭于其時也朔風蕭瑟寒雲慘慘

若有助其悲哀人莫不感其義歎其節多出銀錢以
贈曰前路尚遠庸備盤纏女人獨受東人所贈曰吾
聞朝鮮禮義之邦此邦人所贈何可不受至若本地
人恐有他意義在必辭故所經諸處一切却之聞者
噴舌曰賢哉女也及回路到此入范局則乞錢之女
現居於此問厥由曰向日抵此遇夫仍開范局云心
竊以為至誠感天正謂此也其後厯路到輒相面今
生四子家產漸饒其女亦老矣余曰願見其面曰渠

必不肯然回還時可以問之矣以詩贈潛人詩曰
箭橋解一這時燈殘伴渡龍灣歲又寒萬里青袍今
學士五句華髮一郎官知心湖海登樓詠對江山
河舉自嘆莫道後用傾蓋晚無忘此日接盃歡
潛人以詩答之曰

初九日啟晴曠到巨流河卽金遼諸水都會處也又
二里渡周流河堡崇德取築而城堞甚固今有驛丞
治之屬錦州廣寧齊齊魯屬舊堡在西片城址至今尚
存午飯于新民屯屯是瀋西大都會人民市肆之盛
儼若邑治比遼陽等處不啻過焉康熙時聚民成邑
隸廣寧北距蒙古地方四十里兩界物貨交易于此
故市肆若是殷實而民戶殆近七十萬禦敵之意亦
在其中矣余問店主曰此處田稅幾何荅曰田有六

等隨其饒瘠各有加減而十畝為一日耕稅為銀子
一兩土沃處二兩大畝如此過柳河橋自此民家舉
皆無椽屋不起脊蓋板塗反或曰明時遺民造此屋
制以示無上之意或曰近海多風故以防捲茅飛瓦
也到白旗堡止宿有以鐵索穿熊鼻而行者使之呈
技牽熊者以鼻繫鐵索移鎖其項熊乃立而行數
回忽仰臥以四足使槍使棒惟意所欲

初十日巳晴暄歷一板門市井之櫛比與新民屯相

上下矣至二道并二飲一小兒衣服整潔儀容清
 峻料非常賤問其姓曰宗親其名祥焜其父文恪以
 潘陽刑部主司必意還京內眷追設抵此兒年九齡
 能通三經好說書言說聞店壁上有題五言古詩一
 篇矣今十餘年之間無以言其處且其詩即經世
 故習知俗態者之所作而何人何時所題與其寄托
 之本意莫有傳焉甚可歎也詩曰寺壁石為碑絕
渴點行幾欲過未肯令即知事歸後行數十
下重以難想其命且賦其下字

里有一小峴問其名曰月峰山遼野八百里未見培
塿而獨此地有山路出山腰下車登頂俯覽四野恬
襟爽然北望靈巫閭山橫亘千餘里卽周禮幽州之鎮
皇明時賀欽先生之所隱處起伏天際馳騫雲端其
北則蒙古鮮卑之地可謂天限南北余見壘巫而有
感於懷乃拈韻曰

巫閭大幹白頭來來作長城抵海迴天造此山分
華夷如今華夷孰分開

後者曰遠陽白塔見於東方雲際而老眼霧花未能
遠窮過烟臺站自此始有烟臺制如我國烽臺但築
在平地高為數十丈圍亦如之所以置守兵而通警
急者世傳戚繼光所築或云袁崇煥為防遼州而設
此五里七里巒巒相望而見今魏圯幾夷其半可知
其無所事兵矣夕抵小馬山止宿學院張振鏞守之
武弭臨溪保定府人年今四十八有子四人率家眷
住此二十餘年與其弟子劉慶泉來訪余惠感者劇

不能久話勸送於三房約以回還時往謝東八站水
味不甚惡自老邊城以後醜如和漿水色又淡黃煎茶
瀝器即津流如涎飲到臍膈便覺燥閉痰盛余謂書杖
曰自此至皇城水品如此云將何以堪之曰我東順
天黃州最稱水土之惡而人皆求其伴君將厭避黃
州之萬兩乎余曰西邑之水洗錢而飲故非但無病
病貧者潤病瘠者肥黃州錢流溢無窮獨此水飽
添病貧乎寃乎烟臺詩曰

五里一墟七日黑風城三日定州五日
積禍成帥當時在費才

十一日候早陰飛霜如雪見村園林木皆著霜花俗
謂之山稼或謂之木稼一壑皓皚復若雪樹皆梨花而
杖條亦皆白玉雕削矣到中央堡午餐自此距北鎮
廟統數十里云而行期甚迫未能厯覽可恨抵廣寧
店止宿

十二日料晴大風午餐于問陽驛過陞山堡蓋平明

一山氣勢峻極形體磅礴橫亘西北自四五日來無
日不見取今稍稍在背後西南望大野而去忽見石
山當面縹緲橫看側看移步換形不覺聲奇問其名
曰三山者指其峰巒其大則不及之爲其細則
又過之不知命名其義何居此地本名石山姑而石
山姑三字華音訛訛酸枝也訛訛酸枝三字東音之十
三山也華東二字自來知其孰是而訛傳誤讀或無
怪五代史胡濙北行記東行過一山名三山自此

幽燕二千里金華至言昆山靈巖十三山深曲人家
盡幅間云則恐非訛也山上有金牛洞水石甚奇
云抵石山站止宿自柵距皇城此為半程幾日之行
才到半程坐思前程踴症陡起弱欲飛也似瞬息到
皇城而不可得如是思重輾轉失眠

十三日輕陰過大凌河河水已合而大車上重猶慮
河水之未堅皆將由橋而不可方軌故橋東西大車
之停輪者不下數三百次第過橋不敢爭先雙轎及

坐車皆由水路旋轉如蓬布一快心也鄭太平曰胡
人之驅車者每多愚頑沿路大車與使行狹路相逢
輒有恚鬧生梗者十餘年前隨副使到此橋書狀先
行爭路數十車夫打倒三房下隸至破傷書狀坐車
裝蓋副使迫見累狀怒叱渠曰汝捉一車夫來如或
未捉當打殺汝矣渠亦氣憤忿怒可耐住拔轆石大
呼車夫一齊四散乃二步作一步盡力追趕踴躍擲
杠中一大漢之腦後翻倒在地更舉杠亂搗之解渠

纒帶結縛到店副使怒猶不休決褫千度方草禮
部呈文迎送官來乞萬端曰皇上聞知則罪將及身
副使曰幾千里同行之義我不可起然使迎送官嚴德
之於是迎送官究覈三十餘車夫姓名袒囚縣獄車
下所載東西一筐屬官自是殿後車夫見我行必讓
路而過余曰副使誰也曰無識也故年久已忘之此
地卽明將劉綎戰沒處數十萬衆一時俱沒每當雲
陰雨濕之時如有煩冤之聲年使渡河時必有乖風

妻兩云按劉將軍縱勇敢善戰每奏功以負氣難下
人旋起旋廢畜健兒戰馬雖家屠秦秦者如平日黃
父令進賢將軍救之偶值技勇命取板扉以當筆錯
落亂點抽箭擲之皆中黑處又出戰馬數十餘匹一
呼俱前麾之皆却噴鳴跳躍作臨陣勢見者稱數將
軍曰某投閒何足惜獨令羣馬仗櫓思戰場可惜言
已歎歎貞夫亦改顏良久明史杜松抵潭河戰死馬
林抵二道關敗績劉綎獨決入三百餘里克十餘寨

至決河敵詭為漢卒裝透圍夾攻遂戰沒朝鮮將金
應河亦死之開國方略云劉綎戰死達哩岡朝鮮都
元帥姜弘立執送明兵之匿其營者兵敗來降太宗
以其報恩而來不加罪又云大凌河戰時有黑雲大
風敵縱火逼我軍天忽反風林敵兵遂大捷時天聰
五年九月也明史無大凌河戰姚文田詩註云大凌河明軍
屯據之地太宗破明錦州兵於此掘壕築壘仍為畜
牧之所不煩得運供億而為攻之役或遠矣前古云

今見牛羊之放牧殆遍野矣有詩曰

大凌河畔雪紛紛戰壘遺墟尚黑雲
漢卒行人慟哭劉將軍

曆四同碑即明都督僉事王平王宗威墓碑萬曆中
王氏父子兄弟俱為立節豎碑褒之墓四隅各立一
碑而碑樣相同故稱四同碑今存二碑二龜趺過雙
陽站北距錦州為二十里錦是遠右大都會車馬絡
繹不絕江南物貨由海道至此云開國方略云祖大

壽敗降太宗遣歸錦州大壽時中變後錦州既下大壽

終降又生擒明監軍張春春不屈太宗賜以珍饌班

師賜宴命坐諸降將上厯小凌河至杏山堡止宿松

山杏山即明季大戰場清太宗以偏師破洪承疇十

三萬兵於此片甲不得回云明史葉積壬午錦州破

承疇進至松山為聲援王樸等軍潰民仰承疇俱被

殺贈官賜祭錄一子後明生有乃止○開國方略云

肅親王豪格等克松山城生擒松督洪承疇巡撫各

丘民仰稽兵祖大樂後克錦州城松督兵祖大壽降路

傍有紀績碑碑有閣而日暮不能辨字承德承疇終

背主七字猶可見卽乾隆詩也背主三字千古斷案
使承疇有知能不愧死於泉下耶店主之子美少年
稍有文識夜到舍所張燭筆談語及洪承疇事少年
歎歎曰洪承疇降于本朝開國規模多有贊畫而滿
人之計口給銀其意實在於蕩竭國財疲弊邦本而
至今遵行不思通變滿人之屬於八旗者自幼至老
不事農桑仰賴廩調生齒日益繁殖總用漸至窮絀
此所以坐受其病也朝衣中有補服如我國紋繡各

有品制自閤老至九品皆以鳥獸為文或有繡狗或
有繡羊此視我犬羊之意也忽見店主來尋其子見
此筆談忙手扯去投諸爐火叱責其子曰汝之識字
適足為禍幸爾曾出門金不與見憐然憐人以杏山徑詩

示余

松古之... 廣漢時明月至今...
雲石蒼... 夜雨歸... 死難期... 遺... 自...
愧... 承... 終... 背... 主... 敬... 日... 秋... 年... 莫... 地...

十四日晴是日南至厨房晚進菜豆粉余謂
 頭曰新得菜豆為粉燕京冬菜例之菜豆為
 中平也
 海海如雲如雪如雲如雪如雲如雪如雲如雪
 點海如雲如雪如雲如雪如雲如雪如雲如雪
 城海如雲如雪如雲如雪如雲如雪如雲如雪
 山歌血盡如雲如雪如雲如雪如雲如雪如雲如雪
 不問此用坡上甲子大歌清也
 有詩曰

捲地朔風吹八旗
醜樓白日起紅夷
如何礎殺袁
崇煥白壞長城
國以之

自大凌河至山海關幾百里盡是崇禎間戰爭之地
故崇禎嘗有京觀之禁沙中猿鶴尚不禁志士之沾襟
夕低海寧城二兩城南門內大街上有祖大樂祖大
壽兩石牌樓兩座樓壯雕刻工巧祖家父子兄弟四
世樹勳故勅建牌樓於家居之鄉寵復倚仗若是隆
垂而終未克錦州之失節恨不得踢倒牌樓快流土

夫隴西之耻也有詩曰

未酬勳券竟亡周
荒落家鄉有牌樓
我欲靴尖踏
荒園子秋為洗隴西者

十五日初晴未明至青坡亭欲見日出距海幾里許
而陰雲翳如無以眺望厝壁海店路有賣益色白如
雪搗樣如糝料其介西而畫買之抵中後用土宿此地
堯謂名於天下闕帝廟最為靈驗云

十六日初晴抵宿中前兩城中有佐領二衛

夢經堂日史編二

徐慶淳

達城 徐慶淳

五花公筆

十七日預晴過大石橋自此望見長城逶迤橫過
閭山之腰如蛇行如練掛焉漸向角山而東從者言
此是秦時所築萬里長城也過八里鋪厯入秦城關
朝在大野中名阜之土城關西壯眺野突然
長城逶迤通真

漢楚垂泣之狀侍女二人衣白衣手持畫帶畫金傘分
立左右乾隆扁額曰芳流遠水揭壁曰而愛國俗樞
朕曰奉皇安在武庫空而馬也無惡妻女未亡也尚留
后召遺芳又于古無心於部遺一自其有死為細常
陝西人范七郎名輔而安歸言日名赴役長城其妻名
名孟身至城下哭而死後人祠之明清以來多立碑
記之廟後石堆上刻陞夫石三字因又鑿金石為數三
足痕如階級然以為每日登夫時所登處云石上又

有小亭扁曰振衣極為瀟灑石壁有乾隆嘉慶道光
所題詩又有內閣賀廷佐書刻作如是觀四字亭傍
有觀音閣安三佛像東有行宮皇帝瀟幸時留宿之所也
廟門外有碑大刻止此石三字字體古勁未知誰某
所書嘉慶甲子乙丑年間朝鮮使臣見此碑有劄刻
三韓委希孟立六字云而今無存焉摩挲細覽終未
見痕五十餘年之間石之磨泐如此堪為一歎有詩

西為精魄后為身卒苦空上幾度春江水茫茫林
月落子規啼血送行人

歷歷空城石危有四方亭以鏡筆之高可十丈即殿
殿上有一塔之如烟雲自殿上殿兵可以瞻
望登五層則山海一城之內如平原可見又俗稱汗伊
魯城其地今如國內動靜一及之間等此或稱吳王城
前吳王在斯築高層閣然吳高樓自昌寧對屋為廡
數年而成與頤內為相角之勢要道以通內外今

湮塞不可用未知傳說之孰信而熊楊所築似是的
 聞也歷歡喜嶺距關五里到山海關關將副都統督
 理章京署領皆列坐于衙殿考閱報軍點檢人馬三
 使之檣轎過殿皆如柵門之例蓋關是七重譙是三
 層故當角山盡處距海不遠所以謂山海關天設峭
 唯之地蒙古野人朝鮮諸國皆由此出入故譙在嚴
 重山海關濟語馱札哈關即古之前關徐中山鎮北平
 時移設于此又稱五花關有練五空城與明關名五花城

唐太宗時此後家恬所築謂之老邊牆中山所築謂
之新邊牆自董家口築至澄海樓者卽今之闕城城
堦堅厚譙樓壯大外扁曰山海闕第一門虹蜺石楣
所刻也或謂之李斯筆而遠野之外亦能望見額字
云者俱是荒誕不足信也或謂集李斯字秦時亦有
今之字體歟到第二門商賈行人大小車馬一時輳
集門路阻塞與三使從門邊步出內楣扁曰天下第
一闕至第三門建四街牌樓下有十字路市肆物貨

亦是大都會亞於盛京扁曰祥霽博素乾隆筆也錢
牧齋有奉酬山海督師袁崇煥詩曰臨渝今是國儲
胥有鎖鑰東門萬革車自註曰山海古臨渝地俗稱榆
關誤也按戚武莊隆慶間在遼薊奏言塞上周垣二
千里請更甃築諸戍士劃地受工跨牆為臺臺高五
丈虛中為三層臺宿百夫械器餼糧俱在虜至則富
碑以守退則番休先築千二百座在縣官僅發士萬
緡考工足當百二十萬矣從南翼城門出向陞海亭

車夫及下隸未及追後乃騎一馬縱轡橫馳幾自乘

車因頓之餘便若兩腋傳翼南距五里許城有十餘

丈缺處傳是吳三桂所壞而引入清兵處順治元年甲申四月

城三桂毀康熙遺教不尊若值皇帝幸行則必由此

作路似是清人遺識興王之跡也遮以鐵網環以紅

欄云而鐵網紅欄今無見存只以幾個羸卒結幕防

守又南距十餘里路傍有二大砲露置岫上長二把

餘重八十斤標刻曰道光二年所鑄窈料砲製如彼

壯大以此破城何城不克至望海亭一名澄海樓即
山海之南長城東地盡頭也 皇明時稱觀海亭亭之
軒楹朽敗不可攀躋而登亭之南城根直入海中其
下鎔鐵為覆釜金形釜蓋架以巨石城之端按其上所謂
名龍頭也風起浪湧聲勢震撼殆乎不可久立東南
大洋茫無涯際時見帆檣遠望如雲在青月澄明之中也
東五里許有石屹立海中其巔巖巖如雲霞云是碼石也
此不可信古之平古碼石今蓋夾左即向西數十里

沙堆走入海中稱秦皇島始皇東遊海上廣置亭
之庭有二碑一書天開地啟一書一与之多天啓年
間越人劉永基所書也嘗聞有宋開禧所書天風海
濤而今無矣亭之東壁有歐陽修及文與張昞等詩
廣載詩西壁有田皮曲任由表劉論廣載詩其後
戊又與于敏中梁國治等諸公詩又有道光己丑與
許乃普曹振鏞梁國治等詩曰秦時長城之北
為里餘而俗傳四十里者謬言也由是觀之中山之

修築似因家恬舊址也由徑路渡浹河余謂書狀曰
彼河柳之秃老者安知非遼東伯掛弓之柳乎曰此
是潘河浹河在北方與京地方余笑曰潘浹雖難辨
別此地臨關負河亦一塵壘戰之地使我當其時可以
橫行直衝之間曰吾見君不足當一火兵而強作大
談也誰能信之余曰吾今日來一歲馬揮鞭馳突入
一海關如無人氣凌奇偉偉一物之想乘此勇敢
一往推我所以有生晚之衰也相與大笑抵宿杏花

蘇東坡國長句曰

東坡先生詩云海邊雪海邊山海邊海邊漢任鴻萬里

海邊海邊海邊海邊海邊海邊海邊海邊海邊海邊

海邊海邊海邊海邊海邊海邊海邊海邊海邊海邊

海邊海邊海邊海邊海邊海邊海邊海邊海邊海邊

海邊海邊海邊海邊海邊海邊海邊海邊海邊海邊

海邊海邊海邊海邊海邊海邊海邊海邊海邊海邊

海邊海邊海邊海邊海邊海邊海邊海邊海邊海邊

其納兵直缺三丈郭正欲心肝萬人嚼又欲腰領萬
段斫京觀高築石磊落天陰雨濕江猿鶴赤霧黃
袍今寂莫天晴野曠海宇廓東國行人跨羸駱戎
裝燼吏氣騰躍虜酒不醉更滿酌寒風射眸如劍
鏑東龍西突真雙鏢八旗健勇孰櫻搏古來北伐
連一着今我橫行堪大噓安得一旅仗南霍快渡

龍圖

一
從兄生朝一行

樹示三官素厚賜款通官達明四並納利於人鳥鳥有
生朝

十九日... 路見... 僧三格... 今皇

帝... 皇城... 本國... 飾

金... 銀... 綉... 者

帝... 太平... 者

屯... 也... 也

後... 也... 也

烟墩幾乎五里七里無一間斷其制壁築四面高為
 四五丈圍亦如之上可容甲士數十人所以備候匪
 而嚴防守但無人守直只存空墩未知何意此是賊
 繼先兵制而自置是明設置云自闕以西又設更鋪
 三里一鋪連鋪不絕鋪面粉牆必書地名更夫姓名
 又書解捕賊名軍器軍糧軍器軍糧軍器軍糧軍器
 有小屋屋中貯兵器之弓矢刀鎗皆在其內書曰
 某口路伏兵有某土炮者上設塚堞略依烟墩之制

至沙河驛午飯過榆關卽唐詩所謂撥金伐鼓下榆
關之虞蒙恬所築之長城在此自徐中山移關之後
只傳舊名毀與城並無存焉但近地多榆木其來蓋
久關之得名似由此也今之所謂關門只有西廟板
扉村市頗殷民業未一畝夕抵榆寧縣店止宿店門外
設影戲大車上四面遮障位層樓樓一面塗紙爲窓
窓內張燭燭前用紙人紙馬旋轉機括牽動繩索其
影照窓上或作鎗劍或聞狀或作歌舞或戲杖或作男

女對立墨鬋狀奇奇怪怪形形色色無不畢現而胡
 人六七立於樓下互言互答如唱如泣以應樓上之
 演戲擊柝打鉦彈琴鼓瑟以合樓上之節奏辭調
 女觀戲者如堵牆忽自樓上音自樓下惟聲辭
 動如沸馬頭來告曰上及奴子等皆緣雲梯
 登樓者非急下無以避人今此樓上音自樓下
 三得文速下群胡相
 三幾于令人神觀今日

嗟吸而為風陰陽之理摩盪而為雷此非靜之業歟
乎激木哀則至札乎之風如激木戰則至部部之
足今吾激於得文而不知其理已之乎吾用之於
是恫聲必果何如張直德及大橋上人等語其
文來伏於前曰欲觀假假真面聞與晤客舍言後與
我俱是假假戲影中人坐在戲中况見真面不知
遇乎

二十日祀寒食食不飽晚風由古驛吹入

城城中市肆間閣積設官中有牌樓三所一日總督
六鎮兵部高海聖廟一日兵部給事中王純一日青
州府知府王華山皆以巨木結構塗以丹
朱其門額亦皆以巨木額如名重
者如金守初額如名重
亦如金守初額如名重
神在在皆然知縣衙門扁
額如名重亦如金守初
極高者即行宮也曾聞明
野又獻尚有雷傳山川明
進者亦見一人由迎恩門

... 於雲霄間其地曰教驛... 孫居此世寵以爵士文公... 後飲馬河唐十八... 也過驛... 果領... 綱目果好仙術多... 元中... 通... 後竟... 信... 南... 城... 由...

門步入城中路傍有七層石塔雕刻奇巧此之白塔

壁及築其功倍之通衢有一衙門為

屏翰余謂之曰古北平第

永平府為四門曰儀門儀門

庭除廣闊嚴保禁門

明堂殿有

有

有

首分由... 欽

欽... 欽

欽... 欽

欽... 欽

名... 欽

欽... 欽

欽... 欽

欽... 欽

二十一日 既晴登青龍橋渡灤河橋灤河古濡水也

白雲洞 灤河橋 進書 滌軒有釣台於河上尚有遺

人馬羣行其趨 灤河橋 唐詩

有此也既渡入 灤河橋 城門

舊里又曰 灤河橋 城門

灤河橋 城門

灤河橋 城門

灤河橋 城門

灤河橋 城門

錦石嵌壁而揭之廟後有行宮殿宇樓閣重重疊疊
 真所謂千門萬戶窓牖交疏簷樑藻梲窮極雕刻以
 沉香樺榴白檀絳真香之屬刻畫松竹梅蓮蘭蕙之
 類無不精細侈靡而舉世頌地則落翰目荒涼竹草
 梅蘭之椽榭欄檻則大木之為梅老竹新筍碧綠
 古梅疎枝倒掛
 觀近觀無
 其假設奇夫殿前
 山上種
 尚亦大明頽散各
 西有一堂高

遊堂堂後有清風閣樓為二層其雕飾之工無以輝
其樓下灤河環流樓前河之北岸有孤竹君祠祠側
有孤竹君妻齊姜墓墓前石人石馬是為竹則雖是
矣安知其非真邪昔晉郭文舉嘗曰國歸夫道舍走
馬放行此其世也又王望之嘗曰灤河田灤水不竭
不遷于他處果此地與否會于龍潭宮房舍殿殿
向也即是日甚寒鐵鐵鐵鐵鐵鐵鐵鐵鐵鐵鐵鐵鐵
此以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正

陳談愧君猶食首陽薇之句意思不及奈何奈何余
曰俄於喫飯時乍間思得

既食夷齊廟無心採薇薇我其箕聖國夫子盡同

歸

一向自以為不多之讓其成公也其不與殷之亡而

其辭亦入於周家不取於之與金曰首陽山獨非周

之後稽乎疑案也書以詩義矣其文道前人所未道

之

少壯一里對山數十里之田是也其地橫曰於田

其地亦曰於田其地亦曰於田其地亦曰於田

其地亦曰於田其地亦曰於田其地亦曰於田

其地亦曰於田其地亦曰於田其地亦曰於田

其地亦曰於田其地亦曰於田其地亦曰於田

其地亦曰於田其地亦曰於田其地亦曰於田

其地亦曰於田其地亦曰於田其地亦曰於田

其地亦曰於田其地亦曰於田其地亦曰於田

未知也余曰汝見岳陽樓乎曰瀟湘洞庭金陵建康
臨安鉞猶無不閱歷而鳳凰臺岳陽樓初不能辨別
余曰余嘗見之矣洞庭湖南岸上彩閣丹樓其非岳
陽樓乎濟人尚悅未及對馬頭從傍驚問曰何時見
之乎余笑曰以意料度恍若目見也余謂馬頭曰彼
濟人之言皆實也昔徒於株灌十餘年前用濟人高姓
者初過此處有舖在路乘車及歸其家銀有餘
素與之親此為貨自其後乘小艇浮大洋

故為標記如是者凡五家得救知其情徑搜法緝之云
二十三日午時將近橋子店十里馬頭寺自此地始
有風聲吹來聞者皆謂南風吹來而西風吹來則
龍潭寺之風聲吹來而西風吹來則西風吹來則
往往見人乘舟而下風聲吹來則西風吹來則
為二三日有風聲吹來則西風吹來則西風吹來則
有補船人乘舟而下風聲吹來則西風吹來則西風吹來則
即日中人乘舟而下風聲吹來則西風吹來則西風吹來則

昔江州女子季文蘭當亂被虜為瀋陽章京所買過

此題詩在壁曰惟憂生死知何處癡哭春風上瀋陽

其下書曰奴江州虞尚卿妻也夫被殺奴被虜今為

壬章京附賞貞女在正月廿一日灑涕拂壁書此惟嗟

天下有心人見此傳而見極相傳以為文蘭妻此詩

辭賦書此詩在壁其後乾自此東知文蘭

事過此詩在壁余世有補伯常無烟詩在巴

陵女子言女子名希孟魏公琦之五世孫實為

書男頌之婦來開慶已未元兵陷岳陽韓氏被俘梨

衣書詩數百言其略曰儼此清湖江流安能作弱如遂

自沉死鄉詩以吊之曰英蓉港亂入秋水五骨直焚

相親不死云云醉曉山夫文蘭所遇與希孟無異而希

孟之潔身教不吟詠其即可尚夕抵豐潤縣止宿由

近旭門門東入城中富庶可將撫寧牌樓於表甚多

而谷家牌樓尤壯上層刻文林郎都察御史谷選中

層金字刻大中丞三字下層刻書曰巡撫湖廣鄭陽

等處地方都察院右副都御史谷增浙江學政谷應

泰蓋谷是縣陞至今子孫世其文學焉魏泰時亦有

道釋原本不傳今行詣太學奉審大成殿位版序次

及扁額所揭略同潘陽象尊牛鼎歲於學堂真鼎則以

籀篆刻銘在內鼎樣如恒用炊鼎鑄以青銅而耳三

足而足之上象牛頭三之趾象牛蹄所以名牛鼎也

籀文有搨本釋以楷字其文曰維甲午八月丙寅

若稽古肇作宋器審厥象作牛鼎格于太室後用

萬寧神休惟帝時寶萬世其永賴豐潤縣志以為此
是劉宋孝建宋孝建元年八月二日作以享太廟云
當以此為宋鼎而其為商鼎云者恐是傳會也教諭
與其子出迎三使握手相語余未及問其姓名太學
之東有二層六面閣高入雲霄即文昌閣也最上層
安文昌帝君塑像四侍童分立左右而其中一童笑
容如生左右有二馬一以瓦鑄一以銅鑄試傳經料
一必焚香抽籤以占吉凶又有二層飛樓扁曰魁樓又

曰天下文明樓上安奎仙之像一足踏龍頭一足舉而不伸右手執花筆若有記錄者店門外大街上東西橫截架木為門以青布裹其架木揭扁曰轅門店度以畫雲之簾四面遮堵御史自皇城到山海關巡察故設此等候云

二十三日午晴渡還鄉河一名渡水為山叢錦云凡水皆自西而東此水獨西流故謂之還鄉河宋徽宗北狩時至橋歎曰吾安得以此水還鄉人謂其橋為

思鄉橋又過高麗僅蓋朝鮮人殺俘所居之地路過
其口引水作坎介於地末一如我國之制市面皆
與我國相似我國莊園而屋宇屋舍之制與德

國無異我使過此道因不

首隊其驛不復致音

古無終國也為終山有鐵田五畝其下有種三田即

亦似得壁聚妻之

此鐵礦餘石

之名曰玉田五侯鑄載薛瓊至孝家貧米薪遇老父以一名物遺之曰此銀實也用四壁土種之銅盆中當

得銀如言種之旬日生苗再旬開花有銀色如銀及結實皆銀也銀亦可種與雍伯種玉俱奇聞也

二十四日松陰院晴由東門入玉田城中過十字街

樓樓高曰景山觀海又曰勝輝由西門出歷彩萍橋

即金時學士楊繪舊居彩畫繪日輝也過枯樹店後

者松陰院頂一樹曰此樹不葉不死人以為神云

余曰金置世法萬本無善且其假因無以分西又聞昔

日使十四日過此見所謂枯樹者枝葉青茂傳說未

罪當刑薛度使張守珪奏于朝亦不殺遂隸天寶之
 禪豈亦運數使然耶卷註陰符者杭州靈隱寺飛來
 峯有楊坤真伽石像嘉靖二十二年福清陳仕賢知
 杭州命斬之可比右中屠者迪與曹攝之廟康遇時張
 御史瑗誦平西山碧雲寺寺到蘄州由東門入廟曰古

泗陽有獨樂寺寺有二層殿宇扁曰觀音之閣傍扁
 曰太白殿殿之太白之集宇殿內安觀音塑像且立
 於地有樓臺四層樓梯至最上頭始見觀音之
 面面觀音面面高幾半餘丈從者曰觀音曰城文亦佛
 甚且其後面安一婦女塑像曰太白夫人

也後庭又有平閣一佛方醉卧藉以錦褥加右手於
枕上露一肩跣而足而卧曰太白醉眠之像不知傳
說之何據而太白本不剃髮唐詩曰金粟如來是後
身或由是而為佛像歟使太白有知亦當笑倒也抵
城外店上酒店壁上有七律一則墨痕淋漓余時病
腕不能把筆投寫誦在心中因病思之忽忽未免遺
忘只記末句之痛哭然頗誤此句其下書曰乙卯四
月錦州焚雲題其詩甚佳海沒自來有青樓之意也

旨悽悅音調艷華恨未記得全篇而與李文蘭詩大略相似

二十五日甲晴風寒午飯于邦均店到白潤店入香

華庵即尼姑所居庭有萬曆年間翰林周延儒所記

碑又有乾隆己巳幸盤山時白手太后設帟垂重修碑記

白絲松二株雙文右庭中佛殿之內有康熙所書

林法界四字所居尼姑殿數人而椅几床卓極其

潔辛夷水仙迎春梅花之屬並種于畫盆盆花方善

廣東有五六塚，以周桓王等國三四坐其間，

白石為之，兩柱兩筍，飛簷橫闔，將不畢具，亦一奇觀。

也。渡津，沁河，甘水，水從者，言沁河，感冬不冰，昔漢

武帝為王郎，將遂，漢主霸，說，水，

其後，武帝命，其，

此其大度，何如，

神靈，助，

廣，莫，

行，

又有載人而去者頭小而昂項長而曲背有兩峰如
著鞍然脚有三節遠望如龜近看如鶴能載七百斤
日行三百里所載偏多石炭蓋北京薪貴故凡用火
皆以石炭燒之一藝可支數日而石炭甚重故載之
必用牽馬至聯絡數三十匹老學庵筆記曰蜀多竹
東南方多木炭北方多石炭其言果然爾雅集云載
之奇畜有兩峯如鞍背是也其色蒼褐負物
至千斤凡有負載輒先屈足受之今嘗借貽卷中畫

物圖實是... 今所見... 抵... 六...

... 晴... 房... 房...

... 欲... 欲...

... 服... 服...

... 此... 此...

... 有... 有...

... 在... 在...

省其渡橋也至通州城北門外燕京地最高距通州
四十里地高五丈河中置十閘始可行舟去上都一
千里地高四十丈按元郭守敬議開通惠河引昌平
白浮村神山泉過雙塔榆河引一畝至泉諸水進都
城鑿石爲閘置閘以宣節之後漕舟皆於此停御史具
中議置閘五閘閘置剝船六十每棹一塔扇陸稅
費銀兩三萬有漕價十萬餘金至公運河而南
幾五六里河中船船不多自甲南有揚州進貢船船

漢猶為人易俗謂通州夜市者此也未知成都廣陵
 此此何如而定者以為數年前過此則四街燈燭通
 明如晝昔時雖有燈燭亦不自日一自開寶之不通漸
 至前此地四京通作大陸都處
 入... 以今日... 繁
 繁
 二... 自通州抵皇城... 路...
 漢... 路見人家... 相接...

周垣垣內列植林木皆井井成行每一錯亂枝葉密
長亦無多壅其前必有墓舍施以丹雘舍外必立紅
箭牌門外必有甍屋築之橋下設虫蛇上圍朱欄傍
立石牌書以墓宅墜地各相區別而或立石牌橫楣
刻某官某之墓或立穹龜閣為二層覆以黃瓦墳上
或以白灰或以泥灰封而圩之此皆京都吳世御相
冢世葬之處一垣之內塚形器器兩墓之間難容一
足大抵一家墓地所占不過數頃非如我京之塚占

四山且塗地皆是野田軟沙汗陷之處此亦有來龍
作腦坐局案對寵帝得破之合於風水歟昔有一人
酷好堪輿周行八路期占大地而東方相地者言人
人殊莫能執一自古名墓或山水背走砂或作脚橫
斜而後裔極貴盛或坐案平穩朝帶拱護而子孫多
零替遍踏幾年未見福地吉岡意謂中國大方也且
偵知秘訣千百種書皆從中國來則宜有術業神眼
者乃遺樓入燕亦見地理學諸人無不親執如兄弟

日相來往論其理氣之裏旺質其利害之有無則彼
人之類對汗漫齟齬久愈落落如是凡三載乃謂諸
人曰吾今歸矣後會難期不勝悵然而吾之三載入
意欲聞地理之經奧諸人終靳一言未聞其要須臾
愧誠心之不足而亦不為焉諸人慨然也乃掃地而
起其中年高者一人曰坐吾語汝汝欲聞地理之說
乎爾不知地理之始起則有如夏虫之語冰此所以
未嘗實言之也地理之太繁不可盡言周禮有云

會之書雖不足信而不過是國都正南北之位家宅
相原隰之宜也今之所謂地理方書肇於貞觀之末
蓋東方山明水麗人物輩出比侔中華唐宗茂功於
安巾憤憾于中乃令一行者流纂輯穴經必以大幹
支脈為上地使其書流入東國自是殿後增波其書
愈出愈奇於是乎東國之英人皆尚其書甚者高峰
絕頂懸棺而空思者深掘地而埋凡山之穴
凡處必有塚形之品在然東方人物之比古眇然豈不

夫為一神狀穿窬深氣之發也耶且汝自入柵門至
三城寨十里巫閭之岡角山一拜屈向嘗見有一墳半
突地本避穴居龍虎峯巒嶺中地法之說於古有之
其人自謂吳地北平之原曰吳公巨卿嘗讀鴻
書一曰此乃地法也其地法即人家之業
一碑曰之村吳地之吉凶亦全在遂誤者東人之膏
膏雖有命倉何以報之其人既大悟及其歸家火
有書曰是乃地法也其地法即人家之業

即此間寄舍弟墨書曰鄰家莊有墓田一塊價十二
 兩先君嘗欲買置因有無主孤墳一座必須刨去先
 君曰嗟予豈有掘人之塚以自立其塚者乎遂去之
 他塚家亦買必有他人買者此塚倘然不保吾意欲
 買者亦不買也此地下落石不買也買者十二金買
 此塚亦不買也此孤墳以石示子
 先君處
 子大堪
 信香筆
 厚雖有

此理漸明也此言之中州
入州爲曲言擇風水善惡可知也此則以經云否有
德廟廟夏之德在焉中州建康也
德廟廟夏之德在焉中州建康也
德廟廟夏之德在焉中州建康也
德廟廟夏之德在焉中州建康也
德廟廟夏之德在焉中州建康也
德廟廟夏之德在焉中州建康也
德廟廟夏之德在焉中州建康也
德廟廟夏之德在焉中州建康也
德廟廟夏之德在焉中州建康也
德廟廟夏之德在焉中州建康也

殿其西為炳靈公殿亦各有仙官神將之刻侍蓋其
 塑像即元時昭文館太學士劉元所塑而元之技學
 于波羅國人有哥尼云其後有育德殿是為神腹左
 右俱有殿室其間環匝大庭每間列塑地獄七十二司
 三十六子亦塑像較應苦樂由畫示以有惡警惡像者
 殿後有石像高曰碧霄帝化胡印為金漆天妃塑
 像其左有石像高曰聖母印上女身佛造像極其神
 貴殿後有石像高曰聖母印上女身佛造像極其神
 貴殿後有石像高曰聖母印上女身佛造像極其神
 貴殿後有石像高曰聖母印上女身佛造像極其神
 貴殿後有石像高曰聖母印上女身佛造像極其神
 貴殿後有石像高曰聖母印上女身佛造像極其神

師碑銘諸書多之掘去者云鉅建此中天牌張雷孫出私
與全壽其餘碑石如林殆過百笏通官六人來使三
使強位東語而全似小兒學語比之東譯漢語不啻
不及由朝陽門華門入門凡三層樓殿皆以青瓦屋東
四牌樓大帝廟扁曰復仁迤南少西渡南五河橋此
平館所即南水館而華人所謂四夷館也隨三使由
東城根遷根遷街街在正陽門內人清門外圍牆各
樓正方如棋盤即元宮殿月唐也家諸如等第十五

會廳首譯與禮部侍郎議定進香進表時服色我使

當服波淡服禮部曰華人既過百日已為華服不可

服波淡我使曰上國雖已華服我使方以正衣冠

且有進香咨文則宜服波淡禮部堅執不許我使遂

揚黑團領為首之儀服金冠唱出來會

鋪殿是與地無異為我使侍郎身著

頂掛金冠身著金冠地無異為我使侍郎身著

床黃帕之冠身著金冠三跪九叩頭

何不號呼... 朝鮮館... 內即方物... 驅入同信... 房董者自... 明外...

局等號皆是交易我國物貨之所而物貨中人葵最
為役人兩貴重故舉重以色輕云聞琉球館在我館
西欲往見門者阻糖曰外人不得擅入馬頭曰朝
人通行國中無有阻礙而他國使館必咨禮部而
行之外設人守扉有守直者

卷九十四

夢經堂日史編三

遼城 徐慶淳公善著

日下臚墨

二 入 知晴留館 又見必問姓名官

三 何幹入 難隨胡隨對

四 行上使 觀慶

五 諸座右 余謂

六 南 國山川人物

不遠三千里而來身邊幾人子
好道成我空空的暇人請
說我請我請我請我請我請
道空空者入以入以入以入以
空者俱是奇形異體不可名狀
身是便今日高門
如其真也身者楊雄真如
良漢也

更何擇焉近因封樁之不購天府珍藏流出市肆此

其物也余曰殷之琮璜周之球刀本非可賣之物今

之真者復再致安知非琮璜球刀之比乎竊為大國計

之可慮也彼格才割其蹟開開也斬之也開開也

一曰隋興安鄭西開開也隋門制與朝

一曰隋興安鄭西開開也隋門制與朝

今在東漢甲中之變明開開也益地守城立

一曰隋興安鄭西開開也隋門制與朝

一曰隋興安鄭西開開也隋門制與朝

又有外門設而不開惟皇帝幸行時由之左右有月
宮觀童子門為出入之路東門之內有觀音大士

宮觀童子門為出入之路東門之內有觀音大士

萬曆間魚玄其昌撰書清

正陽橋跨巨溝設城河繞以石欄中

由左右步行由中中是進路也橋之稍

南立樟林甚壯觀書正陽橋三字於楔相以金填之

夏月三日由西門送月橋而回向琉璃廠殿是夜造

琉璃尾處清澄滿漢監督設監其事云廠為市肆
都會南北狹而東西長約三里許玩好書畫時果貝
寶充溢煙鋪按倚晴閣雜抄白琉璃廠原為燒殿凡
之用北史魏太武時月氏人商販京師自云能鑄石
有五色琉璃于是采石礦中鑄之光澤美于西夷者
今廠中所煉大約本月氏人遺法也其法凡有青碧
二種明代各廠俱有內官司之如殿凡外有製
魚瓶貯紅魚雜翠綠中一日琉璃片以五色琉璃

物花草故入窓戶一日胡蘆小者寸許大至淫及色
紫者居多一日響骨胡蘆小兒口銜嚙吸成聲山谷名
報氣一日鐵上懸一簪以受風塵者也入贊文新書
畫度即今世之老油丹鋪之標幟也宋陳旉曰
快聲響骨等類年並存守先物未知郭景純曰此何
如而抽閱諸快駛者面目如飄花過鳥眼若應接不
可盡其百分之一

十二月初一日記諸風疾以白雲帝親筆在卷末

禮部知委三使祇近慈寧時初刻隨三使由東華門
詣神武門內朝官車乘分列于左右無一喧譁朝士
則各有前導一人手燈而行燈大如盆燈面各有標
識如光祿寺翰林院之類不相錯雜我使隨四譯館
上使副使書狀官燈籠而行見琉球使臣已齊對坐
繩床見我使而起禮敬也其人俊秀智大而有禮
之意無鄙陋之態言與中原一般射覆同
我國進士懷璋橫高尺四五寸以金漆

平奔為對三使並叩頭率地歸朝向東橋而去

後漢書中國天下咸服惟區外自仍舊俗

後漢書南天氏文王遣使來朝漢元其請今

漢書有附異同以其俗而不知其者對所

漢書有附異同以其俗而不知其者對所

漢書有附異同以其俗而不知其者對所

漢書有附異同以其俗而不知其者對所

漢書有附異同以其俗而不知其者對所

城者風馳波奔使人眩轉

初三日晴臨使行演禮于鴻臚寺蓋慮外國人未

諳朝儀故至矣禮故令預為肄習也帝曰肅然

儀大會於殿前到鳴贊與羣班輩分列左右東西鳴

贊三呼班班跪伏叩頭禮畢起立

班班跪伏叩頭禮畢起立

班班跪伏叩頭禮畢起立

班班跪伏叩頭禮畢起立

而清國定制王公班于丹陛上一二品列于丹陛三
品各就班次東西外國使臣在西班最後云與書狀
議觀之戲首譯曰進香之行無此例也余曰今中國
日為演戲用樂獨禁外國人觀之戲耶未知何戲用
樂乎曰雖不用樂而以進香為名有所不可且非正
初也戲人散處未及聚會無以觀戲云

初四日辰晴廣元蔡局宋文元因眼鏡新信來見人
甚安詳精明可與往見疏濬局事書鋪長古事

鋪主曰漢唐以來書畫幾名家今無見存宋徽宗手
畫尚有傳者此亦多屬本書法則周秦篆籀豈與款
碑刻可作寶玩漢以後筆家不啻千百分門則今之
所求是何名家余曰今之名家誰也曰畢溪已故何
紹基赴任南州去後者曰門外有石戲者出而觀之
有二人對立十步之間以一巨石如鎖樣重可為數
三十斤者以右手向對立者投之則彼乃向空投石
以右手亦向對立者投之如是用四五十次傍人嗚

米稱善其脊力之勇健無比而猶復校力習勞如此
日已暮忽忽歸館

初五日陰晴晚往琉璃廠文華堂冊鋪坐閱羣書因
錄問鋪主曰金口訣書青烏經石室錄江註近思錄在
此否時有一人年少體胖容貌豐且指手卷坐椅問余
曰能通天文地理醫藥性理之學乎余曰能君亦能
之乎曰能余曰可與論證乎曰市肆之中來人若人
自多稱博學以欺人者實多也此不多也

面賤姓方名翔弭小東家在徽州懷遠縣舉秋圃
因幹留京余曰鄙姓徐名慶淳弭海觀為遊覽中國
隨樓入燕偶爾見君於市肆君其隱於市者耶彼者
從他來喘息而告曰門將下鑰乃起揖相別忙入城
門始緩步道遠於棋盤街器器塵初靜纖月流影不禁
思鄉之愁朗吟瓊樓玉宇高處不勝寒之句而還寓
按胡氏經籍會通云燕中書肆多在大明門之右及
禮部門外拱辰門西花朝後三日則移于燈市每朔

陞並下浣五日則復于城隍廟中燈市歲三日廟市
月三日今京師書畫此日在正陽門外西河沿館惟疏
精宦殿間有之而亦多見燈市初在雷靈佑宮稍列畫
攤自四橋後移于正陽門大街之南則無畫。其每月
朔望及下浣五日皆贊皇慈仁寺書攤止五六間有
秘本二十年来絕無之

初六日御自苑雪下空朝始止後漢後初有也有一
書畫攤在正陽門外西河沿館惟疏

東書也書曰

昨在書肆中得親定字并頌慶談淡為歡喜然特

檢出已刻舊作三本

金亭在學草楊經

堂奉贈即

希指教倘有贈言必當奉和亦藉以結翰墨文字

緣也差拙著金亭在學草楊經後有為花松吟少事沙

東使紀程序一首此公現官吏部尚書即奉

便寄國日記渠之同標凡為倭防邊通侯什鈞亦

曾西又奉使此二公於丁未戊申在京應試時清

嘗館於其家故尊處風景略知世矣天際耳期有
一主好友人為四川也州李莘也士業係撥貢生
受官後有詩才其詞賦皆在府和領與貴國
不第舉於三五日內為備國本也專此希
敬請好安尚作雅興也期期焉乎六日同館
諸詩友均和致候道
舍以明富躬謝典李莘仙然會之登有答

初七日和晴早飯乘車使馬頭韓時良從後出正陽
 門向懷寧館而去過一橋馬頭曰此名虜坊橋橋之
 址舍曰葉總督宅余曰葉總督是葉名璉乎曰然余
 曰然則橋址有吳梅村偉業之舊居唐濬時湯少宰
 看曾亦寓此有詩曰侑人錯比楊雄宅異代應教度
 信居橋西即四川營皇明時女帥秦良玉屯兵之所
 教宗宣帝賜詩曰蜀錦征袍手裁成
花馬上請長
 理會昔年未行燒髮身自禁
垣影歷之直出外即古臨

書屋也有詩曰詔許推乃家且書難之各舉亦有槐市

街移居詩曰劫逢春相帽海陰莊隨分琴書古小齋老

又曰一居門萊市費高驛地街長稀道與談由此觀之

非古藤屋則必槐市居也聞葉聖陶家有一子午泉曾見

是否曰見之子午泉亦在家後墻下圍如一石窠其深

數三丈北京之水蓋多淤濁而此井獨行于時及午

時清冽異常其他時刻依舊淤濁而此井獨行于午泉亦

曰葉總督方在河南視兵而其父志說東御及其弟

名禮似在家可以劬刺就見否曰十年前荆我使之入
都都中人士多有逢迎會集自南匪以後外藩人交
通邦禁至嚴非但到處阻閼並與赫蹄而不相來往
曾有雅契者約會於麥局暫時立談余曰禁志說翁
輩淡之婿也筆蹟之東來殆家樵而戶帖東人視若
同城之人而我獨不見面目而疑可恨曰樂事是麥局
商人其子名瑛登科後現為大家云余曰何以知之
曰麥局人傳之者多矣及到博安縣隨見一官負某

四人轎前擁後衛少立館門外使從者留刺在館中
熟視余而去見其狀貌甚是精雅瑞詩蓋四人轎前
有導騎一人後有從騎四人轎如我東之制而以壇
四圍以流蘇覆轎極為輕緻輿用四人立必一行解
者少疲則從騎四人下馬交解疲者輒騎從後生力
輪逆其行如飛下車入館少東出門迎揖余答揖坐
定少東曰今日臨枉大星有信余曰茅仙何在曰先
期設約於其友人友人有違等候另以明天盟約余曰書

肆遊迄千載奇逢天涯知己一猶多矣曰天地之論
可舉其說乎余曰能事未湏相促迫曰仁兄志氣卓
犖奇傑非沈潛理學之像能是不能也余曰余實庸
庸僂侷者卓犖奇傑何嘗近似過情之哀不敢當不
敢當至於理學挾泰山以超北海之類也中東相摩
大笑曰書肆之問情實哉凡凡既以能答余亦強應
曰能能之一字豈非證交之友契乎余亦不覺見笑
小東曰日俱敷酒契會其甚冷不可以久留請凡回駕余

曰道途艱險者大多且素患咳嗽近益添惡症雖
久留亦無以請日遠來凡與羊克明日早晨聯鑄到
天泰泰參局第軍運同館書狀官連被往會美曰書狀
官是三大人亦有之職乎曰三大人中國之稱謂也
書狀官與邦之職名也其姓佐模其名潘人其稱
文童博識往高專對之任也曰恰好恰好余曰俄者
支門留刺者誰也曰花家宰也過其門而行非留刺
即中州之詞也余曰凡所作金高草中某使紀程是

其人曰是也余曰一十幾何曰其傳人與

其傳人與

其傳人與

其傳人與

其傳人與

其傳人與

其傳人與

其傳人與

春風吹綠柳
綠柳吹黃花
黃花吹白雪
白雪吹青烟
青烟吹紫霧
紫霧吹紅霞
紅霞吹白日
白日吹黃昏
黃昏吹黑夜
黑夜吹天明
天明吹白日
白日吹黃昏
黃昏吹黑夜
黑夜吹天明

風雨五月異
異夢到江流
江流入丘道
丘道廣心愁
愁苦子野情
淚淚已枯
枯則盡
盡則無
無則空
空則寂
寂則死

少遊梁益壯遊燕敖歷名場鎮十年愁向飛鴻境
 余跡懶從騎鶴問腰纏青衫押主敦槃會白社
 吟骨肉緣刺骨聞中看明月此番已到六面圍
 七千人似生軍下風箏扇靜不聞一竹一木
 有散五符符神方換骨丹
 文鼎可移地祝莫教
 衣巾結習然難
 言酒時文事詩得失任教心領取

與命相違。無以。及春風。月飽。看頭。不。其。故。
余曰。以東野。不。率。之。氣。孰。知。奪。奪。故。仙。丹。幾。今。世。人。集。非。
子。亦。謂。之。命。相。違。也。夫。過。矣。余。何。謂。之。命。相。違。耶。余。
命。相。違。也。

覆。其。不。可。及。也。余。亦。謂。之。命。相。違。也。余。何。謂。之。命。相。違。耶。余。
命。相。違。也。余。亦。謂。之。命。相。違。也。余。何。謂。之。命。相。違。耶。余。
命。相。違。也。余。亦。謂。之。命。相。違。也。余。何。謂。之。命。相。違。耶。余。
命。相。違。也。余。亦。謂。之。命。相。違。也。余。何。謂。之。命。相。違。耶。余。
命。相。違。也。余。亦。謂。之。命。相。違。也。余。何。謂。之。命。相。違。耶。余。
命。相。違。也。余。亦。謂。之。命。相。違。也。余。何。謂。之。命。相。違。耶。余。
命。相。違。也。余。亦。謂。之。命。相。違。也。余。何。謂。之。命。相。違。耶。余。
命。相。違。也。余。亦。謂。之。命。相。違。也。余。何。謂。之。命。相。違。耶。余。
命。相。違。也。余。亦。謂。之。命。相。違。也。余。何。謂。之。命。相。違。耶。余。
命。相。違。也。余。亦。謂。之。命。相。違。也。余。何。謂。之。命。相。違。耶。余。

苑賦七才相許雪梅詩錦
霞風物高軒訪黃葉秋
吟聲盡扇移臨眼莫愁迷
五色宮鳥應借上林枝

磊砢欽崎最越越輝輝
異地便忘年接道並
龍

空抱痛哭金方空夢已
幾傾羞梅憐醉後成
梅

護此生綠髮何如
種散把酒明
梅

把青
梅

梅
梅

步等
梅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蕭閑清枯之像首幅中手圓扇余曰此非少白之七
分乎曰昨午以賤齒五旬東臬寫真作壽一毛一髮
俱是傳神余曰像雖逼真幅中恐不入時少白擲帽
於地撫光光頭氣忿忿欲語低首長吁手斟一盃勸
余曰且樂生前一盃酒東臬曰先生醉矣曰而今之
世不醉者幾人以吾觀之不醉反恥東臬於是袖袖
彩毫對視余面三數回霎時下筆而示余曰恰似清
字乎余曰似不似有難自知而驟觀氣像便非別人

初十日蚊晴以清心丸紙筆墨摺扇之屬分贈小東
平仙小東答書曰

伴來奉手示并惠賜之物高義薄雲實有規箴
却之又蹈不恭祗好對使拜登拜圖報耳故謝
敬謝羊仙之寓去尊館甚近即命令紀順以送去
渠以十三日辰刻具疏奉還至時陸偕申澹人先
生同至楊梅竹斜街蘊和客寓也千萬勿違是禱
專此鳴謝復請升安餘晤不盡小第方朔頌初十

日奉和之詩附以呈教潛人先生均此照候不復
一一詩曰

人海攘攘等擲梭音見在藩服得陰何傾襟如在千
尋上投綯先將七字哦異地雪霜宜縱酒強臺文
守要橫戈方干不第馮唐老幾度悲涼為爾歌

咸豐乙卯十二月八日承海觀仁兄先生惠贈
佳什媿不敢當謹依原韻奉和然巴人之曲不
足以報白雪陽春也即求教之為希弟方翔小

東初草

十一日刻晴在館無聊與韓主簿臨館門觀行人見蒙古人牽馱駝載家伙什物于背令其妻抱兒而據其上緩緩而去余問馬頭曰彼向何處去曰蒙古館在玉河橋北蓋蒙駝來自北方惟蒙古人能馴故凡蒙駝載運來往者皆蒙古人也余推乃韓主簿到蒙古館館不過三面築牆一面作門限初無棟宇之制以瓦甍帳如人字形張幕於空楹中如是者十餘處必

鋪我氈數圍於地上男女雜處幕中聚土作塊以支
鐵錫拾馬通藝之烹羊豕肉不去毛男女對坐而食
女皆少女男多老醜絕不相倫而並皆不類積垢在
面只見兩眼閃閃蓋聞蒙古之俗專以酪漿數肉為
之茶飯能三日不食三日不眠不嗜五穀不喜宮室
出行則盡室載去隨處張幕殿冬感累亦所不恤所
以華人畏其凶悍皇帝至為結婚於蒙王以制之云
韓曰蠻夷之稱大羊正謂此也蒙古之先云何曰元

之先國號蒙古蒙古者國言銀也因女真國號曰金
乃以銀號其國也世祖一統改號曰元今蒙古人屬
於內服與滿人無間於進用而朝衣皆用黃色與銻
亦取黃色大抵中國之制皇帝服御尚黃故朝臣及
他諸國僭不敢用黃衣黃輿惟蒙古則不然即如畏
其凶悍而優假之與抑或蒙古舊制用黃輿

十二日 庚晴花松岑尚書沙紉以七絕一首贈余
昔年奉使赴東瀛偶爾題詩付驛程自愧何如文

潞國海邦人士尚知名

朝鮮徐海觀郎中隨貢使入都承問訊詩以謝
之感豐乙卯嘉平十二日松岑花沙納

中東以五律寄余

海國文明盛天官意氣隆知音多季子童蒙有萊
公七字傳何遠千秋在此中叔舟富才學可否和
高風

明天順間張寧出使朝鮮申公叔舟為參政唱

和甚多。此松在人家屋脊，舊有表，使朝鮮詩畫流
播者甚眾，咸豐乙卯冬日，海觀仁兄後遊入都，
屢次垂詢，蒙辱感其意，作詩謝之，因題其後。即
東滄人編詩集，呈教，知為希懷，竇方朝，東初

二二 藁

余和松山今韻以酬之

仙槎萬里遠，蓬瀛輿城輿。圖載紀程流，水落花清
俊。筆至今灣上，讀高名。松山今韻
昔年除歲
流花
清俊

大氣落花
知之句

又以二絕贈松本

華中英眇發眉端
白草心儀路上觀
响外空聞

容難解高門徐
獨歸惆悵一郎官

昔我詩篇不我
以何愧若遺段
換琴

香山知己天

東韻以答

同地感地
為琴

今光武合符在... 我羅漢風... 卷九十四

... 卷九十四 ... 國白頭山 ... 名非 ...

國之文也無論山溪自紅色白濁橫同為使行時
買人參今俱以土地所種藥材為地則色白紅潤矣
松滋藥材藥力少選村白參以藥材專用白參而中國
之拾白取紅未知其功與否也惟辨大泉入于行藥
之大小泉余嘗見之其色白而光佩之則俗謂
之白參辨大泉者其色白而光佩之則俗謂之
白參者自夫丙丁以後有及未嘗鑄矣既有
之者入京以白參為中法示常平大錢一分

曰此非朝鮮大泉字也余曰可也曰年別從馬
來得余曰此在畿邦亦難得也余曰年別從馬
無觀者珍寶帶入中國意在求利也余曰余
前問合於三使韓主簿在傍曰曰不字諱余曰我國
錢未嘗不有禁而內朝曰是胡人錢也余曰
寶字天等錢漢又有之今故其間以當曰面自類
朝鮮通寶我世宗朝所鑄也其子時未有楷字尚
以鑄此按宋董道錢譜載海東錢凡四樣曰三

晉三韓一用寶東國重寶東國通寶兩朝錢不載
馬以此有非又錢也 世宗朝正統七年民間不

復故復曰故取 仁祖朝持錢而用者皆持西民

不便用其國也常平通寶始於世宗朝其用則

與夫及入其國內集各次入其國其用亦散布為

其用者其用者其用者其用者其用者其用者其用者

亦其用者其用者其用者其用者其用者其用者其用者

其用者其用者其用者其用者其用者其用者其用者

十三日呼禮已刻節三使臣詣禮部議其禮
禮部允其請以奉天覽大廳器血饌等物
內三使臣各命書餘澤醇與三使臣各書禮部
自理下已世禮禮奉人廳內觀百器與三使臣
禮部禮部禮部禮部禮部禮部禮部禮部禮部
禮部禮部禮部禮部禮部禮部禮部禮部禮部
禮部禮部禮部禮部禮部禮部禮部禮部禮部
禮部禮部禮部禮部禮部禮部禮部禮部禮部
禮部禮部禮部禮部禮部禮部禮部禮部禮部
禮部禮部禮部禮部禮部禮部禮部禮部禮部

及通官輩雖在座不少顧忌亦不禁止彼中紀綱極
為寔心我國下隸何暇操束余謂書曰汝曰君之所謂
大國如此則我國要集統退飲食之類則不無之事
先明矣今公等踏致其金膏以遂腹飽公見大國入踏
致其腹飽則我腹甚於此此雖公等集也公等入下賜
實公等之貴臣也外諸公等之貴臣也公等入下賜
後其知是公等也公等之腹儀屬何義諸公等之貴臣也
公等之腹儀屬何義諸公等之貴臣也公等之腹儀屬何

有... 命... 有... 道

姓名李福厚字華厚江西南昌人國寶也年餘
江南江寧縣人賀良貞字幼甫湖北人傳起字杏
民江西人李載庵年少媚嫖有尉正之狀陳子餘磊
落個儻有李馬之氣智如南精明如詳秋水冰清傳
古民沈潛重厚方寸無所動之意俱以舉步為動春山留
京劬工云茅仙曰昨承賜詩今蒙惠顧第恐無甚寶
之懷袖中三歲字不識茅仙指壁上障子白君識此
像乎余曰真日金東坡先生乎曰何以謂東坡先生曰

余聞唐伯虎所標東坡笠屐圖行于世今見笠屐之
像此真東坡先生耶羊仙曰東坡先生是吾師手摹
先生之像揭安壁上朝夕拜揖以寓景慕之誠余曰
東坡先生現今在世吾輩當依床下拜千載之下獲
瞻真照敢不寓敬乃具書狀起揖羊仙曰看君風貌
似吾師東坡先生文章書法在坡門可以升堂入室
如弟者敢在下風余曰兄之言何太妄也面談非友
道也曰實實如此自有月朝小東曰東坡之門徒者有

如凡者弟亦當執鞭矣余曰今日之會專為愚弄老
我而設耶不勝可慨羊仙曰言實由中切勿見外等
仙曰情到之語有同春風對君青。吐我赤心余曰
弟以兩兄視若同胞春風猶踈羊仙擊節歎賞曰今
天下有此人耶傾心之言到骨不忘幸逢知己天涯
咫尺羊仙曰弟之為人何如嗟須下筆余曰素無許
動之眼何以論人高下曰兄弟之間猶如是耶余無
以再辭乃題四字曰光明俊偉羊仙喜曰光明二字

盡出愚弟胞襟平生所為事無一不光明。實無愧
耳。小東曰：余獨向隅耶？余曰：何若是強？一能曰：第
言之。余書曰：小東沈湮亢傲。小東喜曰：使我自道亦
未過此。兄覩破吾兩人如見肺肝。歆服歆服。余曰：兩
兄盍為我下筆。羊仙乃大書曰：海觀海東名士為人
重厚坦直。小東繼之曰：卓犖淹雅。余曰：重厚之於卓
犖，全不襯著。坦直之於淹雅，自相齟齬。兩兄之論無
或近於隔靴捉癢耶？小東曰：兄之自期何如？余曰：壯

中空洞無物卽一跡放散漫之凡夫耳何足過詡余
謂小東曰采与詞中劉媪卿今尚在小星之列乎曰
年前已羨梨花於青蘿山中余曰嗟乎以媪卿之花貌
蕙質貞心芳信宜料早年玉碎耶曰一自朝雲之死
射雉求鳳幸得名家閨秀姓蔣氏年今二十二通經
史善詞賦因南遷避寓於山東遊學於京師家室貧
不無佳節思親之心也羊仙出入疊嶂爰春痕尚本
事詩示余曰此詩何如采与美人余數回吟誦心神

蕩越如入迷魂陣乃曰春痕閣主人可以一見否曰
是不難以十五夜月三更為期如何余曰春痕閣余
已見之其主人在余眼中芋仙瞳眴無語小東曰春
閣何在余曰閣在巫山之上洛浦之濱畫棟雕楹桂
殿月珠簾飄洒湘竹雨其中一美人含情野立其貌
則漢宮之飛燕無色其才則金谷之綠珠還恐其姓
虛其名影芋仙大笑曰鬼神易欺海觀難欺靈輿難
聊述此遺懷安知天津胡孫竟為大耳三戲鏡兒否

策好笑余曰詩體壞娜纏濃義比長吉富較入筆詩也
李載庵謂余曰因小東昨承惠法書書感感多愧多愧
再求大筆余曰杜筆不過具畫鴉墨豬初無名號語
按點畫之間專時肥瘦聞人求書必先覺其時類其後曰
吾兄法書弟甚愛重今日筆談之字似有大真者矣
小東所書詩幅尚是中駟未見精妙一二三四求
吾兄以箋紙數幅為弟抄吾兄舊作以留香入目為
耶作書須隨意恣肆不必求工至祝至祝字之大小

如筆談之式。余曰。向凡不欲為。果欲在。世必何。樂。取。
笑於大方。子曰。神文。果如是乎。一。果曰。吾兄。請。法。在。
中國。亦。名。家。何。必。溫。謙。弟。一。母。三。白。鍾。在。人。偶。多。
禮。印。說。書。之。數。說。子。之。入。也。自。家。手。中。逐。出。天。機。
濃。淡。大。小。不。定。皆。入。眼。非。俗。一。聞。又。有。何。說。人。不。能。解。
住。家。或。世。世。不。定。亦。如。夫。也。中。東。以。此。為。國。人。學。
仙。佛。道。教。之。入。華。國。三。世。及。今。亦。有。何。說。人。不。能。解。
皇。清。治。世。若。無。人。自。入。之。機。何。有。自。生。之。道。也。

余大笑擲筆小東問澹人曰王山灘是何語澹人唯
唯不荅小東再三苦請澹人曰王山灘東國善書者
稱號小東曰好好乃書於紙曰海觀筆法無媿王山
灘渠亦大笑以家兒相而送韓又醉之詩示兩人
小東曰調高氣逸茅仙曰如讀唐人寒下曲小東又
曰帝兒突過米顛矣顛以石顛茅仙又曰帝兒筆
力能扛鼎茅仙曰令從兄友蘭先生竟不肯見弟耶
余曰因公事未了尚不出館門一步也且近有病

未及言訪芋仙曰如此則是弟塵生一世而今兄友
蘭柱到北京一遭也書北窗雜感韵和你贈芋仙芋
仙擊節詞詠音響瀟亮朔風寒雪動人慷慨泣數行
下曰丈夫處世何有感音三乃歌東坡浪淘沙曰千載
之上作吾師東坡先生知我余曰恨無茶裙醉小東
坡也裙醉三字又園枕曰風流豪傑晚年行樂事
不流汾陽福力芋仙曰此所以春痕詩飲酒金粟滿
聞此夫笑噴酒一座皆拂衣而起日已西下矣

夢經堂日史編四

達城 徐慶澤 會 署

紫禁城述

十四日駐晴方物進呈于太和殿隨請譯由東華門至

太和殿西門臺座見太和殿 皇明時皇極殿

間改今名康熙題額曰建極殿其基高二丈殿

一丈廣十有一間殿五間雄偉壯麗真是白皇帝柱居

殿前月臺環以白玉 柱之似閣下壁寸五出各三成

陞間共列鼎十八及銅龜銅鶴各三日圭嘉量各一
而陞之下為丹墀元世祖思創業艱難移大漠沙草
植于丹墀下示子孫無忘草地謂之誓儉草分東西
有文武官行禮位乾銅為山形鶴正後一品至九品
次第列于東西庭庭面極廣潤東西廡各三十二間
東廡中為體仁閣西廡中為弘義閣又有內府銀皮
緞衣染茶六庫分列于兩廡歸館胥班即胥吏也以兩種
香錠即印命印十八學士百八念珠也命曰南京所造

朱色香如龍柱齋戒之款以漢冲者北京所造玄色
香諸種之款以合香樓者俗稱不可買耶雖或有
之中國時俗亦不貴此香耳韓主簿曰何以多識香
名曰此在衆香譜韓曰衆香譜未見板刻余曰一部
衆香譜在我心中印板十八學士每串六圓分為三
件百八念珠分為四件則每串九圓三線也分為三件
則每串九圓四線也三線香稱曰南村香少論香四
線香稱曰北村香老論香一線多少本不足較計而

巧分標弮位為寺之東俗之習以為足嘔想
十五日癸時隨三使往雍和宮宮在大定門內本
三帝潛邸也以後古儀中之前有胎毒門中有雍和
門門內有天王殿殿後有雍和宮宮後有永佑殿殿
後有法輪殿每殿各有三佛塑像殿西有戒壇後有
萬福閣三層鐵欄柱密雲其中立一銅佛身短廣
大高幾數十丈入閣中攀緣雲梯而上層四環轉如
是者凡三層到最高層四圍闌干繞佛之肩佛面十丈

沈如未曉之夜東西又各有一殿東曰永康西曰延
寧西閣之中有一木合籠層層刻畫諸佛不知其數大
幾三四尺驟看如懸大鐘試以兩手推轉則隨手而
轉此所謂相輪也未知東表向設機之如何而極其奇
巧凡佛宇之宏麗佛器之侈靡殆無此比也出宮門
迤到太學卽文廟泮教坊而卽元明舊宮宮也行四
拜禮于大成殿及殿宇宏偉楹木陰森有肅然之心
而孔夫子位板未泮前書滿泮宮東西配位孔顏五

弟子贈子子賜子子好子外惟朱子陸子東西廡各三十間列
真比前代最多元明諸儒亦多此寺者殿內尊釋道
葛代皆四國禮器云按明太學志曰隆慶元年加為奉太
學朝鮮陪臣李崇等各具本國衣冠赴彝倫堂外
立文臣班次之次庭有乾隆時平定回部兩金川告
成碑又有題名碑按慈恩寺題名起於唐朝進士張
莒題姓名於雁塔下遂為故事宋朝進士及第題名
皆刻石於相國興國兩寺起在唐之慈恩寺塔也至

明乃立題名碑於國學題名記或學士或祭酒撰述
其由始重永樂壬辰以前在南雍今太學櫺星門內
諸碑自永樂十四年丙申科始至崇禎十六年癸未
科止並七十六碑螭首龜趺星羅林立誠一代之鉅
觀也至清國題名碑止順治丙戌一科丁亥以後無
之至康熙中祭酒欲疏請崇禎十餘年史言之允行
內閣乃置碑於太學時悉取元朝進士碑磨去刻
今碑皆已毀今三年一立石皆是物也此雖與五代

官成均乃於壬寅搜剔遺石種為
 移植二株繪圖紀事並有題詞
 有彝人兩堂康淵書額曰文行忠信東廊有繩愆廳及
 鼓房又有率性誠心棠志三堂西廊有博古廳及鐘
 房又有博道曰義教廣業三堂其南有辟雍乾隆甲辰
 所建也至是為園之圍以玉名欄于四面有橋橋有碑
 閣池之內有石島之中有殿即辟雍也環四方水
 以御觀者依周時辟雍之圖也乾隆初之院雍雅講學
 有碑記之至嘉慶重修丹雘改觀南有碑記設三虹觀

東西廊有石經以細楷刊十三經形如居碑者九十
二座森列排立一室香然東人榻來者程有數本云
國子監書目故舊有孟四元賦蓋孟宗獻李友之歸唐
靜居士全時魁于鄉于府于省于御前故稱四元其
律賦為學者法此近日律賦之祖也監中有古栢相
傳以為元祭酒許衡手植云歸路入文丞相祠卽古
柴市丞相成仁之地也數間茅祠僅蔽屋兩楹像王
立忠魂義說森然如生傍有一圓石刻公像刑不可

記其上鑄公自序守攝宛然東壁上竅一穴缺破之
石即唐李壯海峯所書虞麾將軍李秀碑也碑已斷
裂在蒲城縣曰德中劉遠夫御史謫為蒲城主簿訪
出以鐵束銅之昔松園金尚書顛入為時金姓人
忘隨行見丞相祠荒廢頽敗題詩于壁曰葺祠煥
盡丹青香滌粉飾通庭寂寞城西丞相廟夜
挿斗牛星其時御史劉遠夫謫為蒲城主簿訪
於外藩云云即今重得今年久更至

補而詩不及前人何以動得彼人油然之喜也自愧
自愧追昏歸館山東有書以蔡邕石經舊本自愧
余余曰異哉此古之石經也余於太學未見古經一
片石泐以為石經之真不道在今日曠野之石經
虛乎記新書其外一龍卷記石經成後後後後
索其文曰

漢靈帝熹平四年三月詔議諸儒正五經文字於石
文於石於石於石於石於石於石於石於石於石於石

俗儒穿鑿疑誤後學乃興堂谿與楊賜馬日磾張
訓韓說單颺等奏求正定六經文字自書丹於碑
使工鐫刻於是後儒晚學咸取正焉其後雖屢經
喪亂猶未大壞後魏北齊常伯夫相繼為洛州刺
史毀取以建浮屠精舍大致頽落所存者委於榛
莽皆俗隨意取之隋世國子祭酒崔先請置書
府魏命國子博士孫搢等補其殘缺高祖崩後
神武執尺自洛陽還行至河陽道經此

國初開地唐御史府得石經十餘石此又唐末淪
沒出之宋初者也東觀餘論云漢石經在洛官前
御史臺中平久推散洛中好事者時時得之張彥
龍圖家有十版張氏婿家有五六版王晉玉家有
小塊此宋初所出後復推散者也畫墁錄云嘉祐
末得石經二段在洛陽城乃蔡邕釋書郤氏聞見
錄云近年洛陽張氏鼓地得石十數漢蔡伯喈釋
尚書禮記論語俱已缺壞此又在御史府十餘石

之外者也宋乾道二年洪文惠出知紹興曾以
所有尚書會詩儀禮合羊論語合二千一百字重
檄在州始蓬萊閣至元時已毀不存順治初孫退
谷履有尚書論語百餘字後歸無錫黃小松司馬
家乾隆五十七年知紹興府高鏡鑲奉旨特校而
摹得之又得金匱錢氏所藏錢氏尚書會詩儀禮
合羊論語並去盡毛已周有無不同之說及博士友
立姓名五百餘字與昔者以爲錢氏所藏也

余以為石經非獨漢蔡邕所書也魏曰始中又立
古篆隸三體石經古文用鳥跡科斗體篆象空文籀
胡毋敬體隸用程邈體晉永嘉中王彌劉曜入洛
焚燬過半天寶中刻九經於長安禮記以月令為
首後李林甫請也五代孟昶在蜀刻九經最為精
確朱子論語註引石經者謂孟蜀石經也宋淳化
中刻于汴京今猶有存者云石鼓之傳疑亦久矣
元和志曰石鼓文在鳳翔府天興縣石盈如鼓其

數盈十蓋記周宣王田獵之事卽史籍之跡也世
人知有鼓者自唐而始隋以前未聞也自周至
隋數千百載何以無人采錄卽開元以後張懷瓘
韋應物韓退之直云宣王之鼓實泉曰岐州雍城
南有周宣王獵碣十枚歐陽文忠公曰石鼓文可
見者四百六十五字不可識者過半卽韓退之謂
牧童敲火牛礪角年深豈免有闕訛者也就其文
考之晚者言之有曰我車旣攻我馬旣同者車攻

語也有曰其魚維何維鯁及鯉何以標之維楊及柳則兼記豉魚也又蘇詩所謂衆星錯落僅名斗者也且其字體為大篆而籀又宣王之史也楊升廣云當為成王之鼓也左氏昭四年柳舉言於楚子曰成有岐陽之蒐杜預曰成王歸自奄大蒐於岐山之陽杜預之謂成蒐在岐陽者即石鼓所奠之地也岐在豐西三百餘里安得謂駕言徂東云云或以為後周宇文時所刻按宣王之世所用皆科

斗籀文今觀說文所載籀文與今石鼓文不同石
鼓乃類小篆觀孔子篆比于基及吳季札墓皆是
科斗則宣王時豈有山篆乎又按南史襄陽人仇
古塚得玉鏡竹簡古書江淹以科斗字推之知為
宣王時物則宣王時用科斗書可知矣或以為岐
本周地平王東遷以賜秦襄公自此岐地屬秦秦
人好田獵是詩之作其在獻公之前襄公之後乎
地秦地也字秦字也其為秦物可知此說亦有理

也

蘭亭自唐至南宋臨摹本不下千種而要以定武本為第一定武本中亦有損本裂本肥本瘦本紹興所刻御府本張璪所刻邯鄲本東本本行于世石刻之在國子監者明世得於天師土中宋刻存世者當以此為第一即歐陽詢所臨也蓋右軍三十三書蘭亭三十七書黃庭經云

十六日卿晴隨三使出和火門向東往神木殿殿有

巨木元體幾盡朽敗只餘榑筭堅幹朽然臥地非松
非柏長六十餘尺或曰神檀木或曰旃檀世傳永樂
帝遣北京宮闈時自南宮奉致因不中規矩棄置在
此又云明時置此以應甲乙生氣云騎馬屠鬲木立
帝相見其圍之絕大可知也道光時始建殿宇以祀
風雨今乃頽圯無餘有乾隆所題石刻神木謠謠曰
遠辭南海來憐都甲乙青日氣鎮權輿長六丈餘巨
通衢歸必騎者能談諸又曰燕京初建明成祖搜

摩訶曼荼羅極柱標之下由密定塔極根怒嚙出蛟龍

兩翅翹倚毗圍若堵騎人共來觀不觀

蓋由木人造五百年之久而初輪尚存此之出點然電

亦由木人造五百年之久而初輪尚存此之出點然電

亦由木人造五百年之久而初輪尚存此之出點然電

亦由木人造五百年之久而初輪尚存此之出點然電

亦由木人造五百年之久而初輪尚存此之出點然電

亦由木人造五百年之久而初輪尚存此之出點然電

... 女... 如... 向... 元... 外... 招... 使... 三...

手折荷右手執盃歌小聖樂詞松雪名甚即席賦詩
曰萬柳堂前數畝地平鋪雪錦蓋連荷主人自有滄
洲趣林下吹歌白雪曲手把荷花來勸酒步隨芳草
去尋詩酒後及天幕城外便有無窮萬里思其遺基
在何處唐書大學生士益都鴻臚館在何處宋書康淑
明史記公孫龍待詔者皆雅俗士也此檢詩也奇齡有
前史記公孫龍待詔者皆雅俗士也此檢詩也奇齡有
元時史記又正公孫憲作萬柳堂或云皇明時雪樓

才不逮此詩無日不賞談故明詩真中萬柳堂題詠
甚多嘗聞堂中諸生多肄業者而今有幾人歟余謂
後者曰萬柳堂西有夕照寺乎曰有之余曰此黃金
亭舊名其也德都人景有金亭夕照故以夕照名其寺
也上金亭醉一盃欲吊燕昭王而今不可得尸地痛
哭一場羈館寒燈獨與鄭太平對坐余謂太平曰汝
今日有何所見乎曰有一寒心事琉璃廠口老李鋪
李素素有親熟厯入門訊則道者李素素取不語云故

問其由蓋皇上以標紙親署花押值銀於本鋪者已
數次由此見絀矣余曰以此為寒心乎銀錢之難辦
雖使諸葛亮復生亦無奈何余嘗聞戲賊破井州時
民家有漢昭烈借富民金充軍餉表及武侯押字在壁
如新云矣以諸葛而猶借民金今之執政如諸葛亮
者有之乎余曰然則借紙押字乎曰未也余曰借紙
借押字亦向一紙也借亂矣格物要論載姜孟魯借
字跋云爾馬氏之押署名而小兒精神受教

然見於談意之表，會末五季，諸人押字，莫不推說。觀
 揚傾歌，或鴻臚亂之相尋也。昔人重押字，亦有會
 率刻及以，雖有絕之，公廷銓，顏山，雖也。戰風，山
 至皇官，亦有押字。如西聖御押，藝種，及大京，及
 起惟仁，亦押。關王，安石，位押，先橫一書，畫及司，押中
 一圍圍，之不同。時謂如及字，有集，古名，用及，押
 書者，謂之書。漢，陽人，家有鐘，鐵，押書，及大，押字，及
 次，則是神仙，亦有押字。

十七日巳晴隨三使曉由西直門向海淀俗稱西山

未及十里忽見珠宮貝闕渺茫於絳霄丹紅雲之際余

謂後者曰吾人今升天乎玉京十二胡為乎來在咫尺

於馬湖到繡漪橋橋跨昆明湖築磬瓦如魚鱗凡七十

餘層上有高梁下有虹蜺穹然作門海船揚帆而

出入東西有兩碑門間之東西盡是水田籍田亦在

其中登橋四望美泉白塔高出天半晴波彩舫浮在

湖面沿堤聖廓如其廣凡八面過十七橋橋門上

皆為虹蜺以通舟楫橋凡六十餘間白玉欄干雕
獅子循湖而環橋盡是而有山片山片上有廣潤靈雨祠即
直隸禱雨廣祠後有官曰虛虛堂嘉慶堂前用樓
東高曰耀金濟東南有日谷日蒸雲堂後有樓曰洞
正當賞嘉慶四面以大湖石築石假山洞穴嵌空宛
如天造上構涼亭及洞是留賞樓樓下一帶湖水
環繞如半月形自湖是湖也圓明苑八風閣在其北
萬壽山文昌閣在真武殿清漪園春閣程頤秋景

鍾有句園在京城西海陵與武清侯清華園
相望亦曰風烟里今暢春苑即西園故址也
在其西
瓊島玉嶼泛泛水中飛甍浮檻羅絡相連未欄文砌
參差交映者不知幾許所雖使二岳者繪素佳園無
以盡之西湖臨安余未見其具面海泛一區不過是
依樣胡盧而見此已覺心蕩神迷來自南渡以後不
念與復何事宜也湖邊為半鐘鳴銅却存石榻舉頭
望湖生氣浩動或云牛躍入湖清運始訖或云鎮壓
湖水皆是事說不可信也圓明苑舊有席園到今

只有空園還到南海波第宅園林繡戶朱門真一洞
天仙府也唐入覺生寺鍾名大僧寮深幽靜寂竹林
花木位置井井慈定大師妙脩高足皆有入定之狀
佛殿後辟畫盡刀山劍水業風苦海之形凡造惡業者
皆受刀鋸燒灼之刑大鍾懸于高閣高數丈厚半尺
表裡俱以篆華嚴經永樂時姚少師所監造擊之聲聞
數十里本在萬壽寺乾隆時移置於此緣雲梯三層
而上閣十二面圓如鶴長鍾之頂有穴可容一卵達

于下又以如拳之鍾低懸於穴下擲之以錢入于其
穴則鍾起有聲謂之新歲吉兆男女雲集爭相賭擲
以為祈祝錢積于地厚可沒膝居僧收此以資生云
出寺門向德勝門未及十里有土城闕遺址林木蒼
鬱相傳是古薊州亦曰薊邱樂毅書所謂薊邱之植
於汶皇此也薊門烟樹為燕都八景之一乾隆書
刻薊門烟樹四字立石於此 明金幼孜詠烟樹詩
云夜色蒼蒼看薊門淡烟疎樹碧三風肅德勝門是皇

城北之西門元時為健德門 皇明正統初改今名
崇禎甲申之變清兵由此門而入兵部右侍郎王家
彥守城立殪處過德勝橋橋之西有積水潭每歲六
月六日中貴人用儀仗鼓吹導引洗馬于此自崇禎
時已後云自西直門至圓明苑四十里此爲第石路蓋
皇帝輦路也

十八日輶晴隨三使向五龍亭入東華門歷昭景門
循宮城而西過神武門至玉蝀橋橋跨太液池中分

為橋橋凡八十二間白玉欄干週遭兩邊東西立牌
門東扁曰玉螭西扁曰金鰲或謂之金海橋明董穀
詩曰正愛湖光澄素練却看人影度長虹張廷璐詩
曰百尺長虹卧碧波菰蒲兩岸晚烟多畫出真境橋
為禁苑通衢大道車馬簇簇往來歷金鰲橋後東夾
路抵陽澤門蒙古僧前導而入闡福寺寺有萬佛樓
扁曰莊嚴圓徹樓凡三層上層有大佛高數丈以白
傘蓋之下層及中層三面壁上以青碧貼壁為金龍形

安少金佛萬軀長不過數寸大不及一拳每佛軀前
面刻乾隆庚寅製其數似不止萬而舉大數故名萬
佛樓迤左有閣扁曰福田花雨有佛長三四丈六頭
千指兩跟踏定無數奇怪人形強半現出手撐于地
身戴佛軀不知何所取像也轉向五龍亭亭在太池
池北三層亭當中最髙者曰龍澤左曰澄祥滋香右
曰湧瑞浮翠五亭臨河橫列如行龍蜿蜒故統而名
之曰五龍亭石欄閣道曲折相續鋪甍為軒四無障

屏南望蓬萊一名萬歲山皇明崇禎皇帝殉社稷又

山祭天樓閣隱映禁林之中西望玉螭金鰲如天末

虹蜺河水一望澄澈真所謂琉璃世界八旗禁旅每

冬習水嬉于此云粵瞻瓊華島得身出太液池中以太

湖石築亭臺四五層環樓閣朱萼瓦翠瓦參差如鱗最上

層凌霄霄白塔五頭矗而立此廣寒臨瀛諸閣而皇明

時瀛臺也怪巖奇石礧礧砢砢者皆宋徽宗艮嶽之

遺自汴中輦至燕所謂移長橋也按天祿識餘曰宋

良徽成令有司多造油絹素裹加水濕之括雲於元壘
絕嶽之間車駕所臨輒開扉之復更滿然虛起名曰
貢雲其遊羨奇巧至於此極安得免靖康之禍哉太
液秋風瓊島春陰為燕京八景之二云西入宸朝香
林牌門門內有殿殿內有極樂世界以木為假山周
圍里餘巖壑深壑窈窕重疊青真若有風聲人面皆
有蹊逕由之可以上達曲曲作龕安小佛像或合掌
住禮或手持蓮花見人如笑像亦可愛余與諸人

路各取一徑而上無數回遂不覺半繞九折與諸人
時或見石壁或聞語乃終不可見或有欲尋可接武至
者亦與諸人亦同時而見其山奇異尖峯成削
巖壁如削金佛一尊坐於巔上其下有冥思鏡
石者有功德者皆能見之今自何修而
至此不知居三殿八十一難居此殿入言四男八子
文文上無量福田仍又云其殿前見其頭筆在地上
文文通入今人不見其殿前無異此而地上人亦

爲仙樂舞令不盡能爲一國器上
或上其有焉如如如如如如如如
子行書曰皇后姑香前信前信入
後高麗國西國國國國國國國國
海國國國國國國國國國國國國
信來書書書書書書書書書書書書
乎曰其入等於書書書書書書書書
不許在國也

奴使之在殿中必晚視象奴多受錢而後仰鼻俯首
嗚呼世之教院則跪教拜則拜其在朝會則端立午
門之內在侍鐘鳴鞭響是百官入畢則以鼻相交而立
無一語者朝畢則直如常百官不跪立仗則
乘馬而行象所而求代行此後他象肯行不終終
不事也其通或傷人則宣勅杖之象踏地而受杖杖
象之通也其如人意每歲六月初一日視象于西
河東之通鼓浴必交之交村水也雖仰面浮合

兩岸觀者如堵云

十九日初晴興澹人往臨和店芋仙方舞會前為淨
服福榻而待少焉而東亦至芋仙曰今日東坡先生
生日也兩兄不可無小像之賀余曰為先生位賀後
古幾人前人之位至矣夫遠矣吾輩荒陋之辭何敢下
筆乎芋仙固請不已余卒拒不可得乃書曰芋仙曰
古文宗千古忠壯吾師吾師可以千古芋仙欣豫舉
節曰至哉文也善哉賀也前二句道嘉慶先生平生後

二句為寓景仰之恩先生英靈必當許與於泉下今日之會亦有允於先生也余曰過矣吾非妄人耶李仙又使余題之於小像之筒余再三堅辭又不獲已以細楷題之款識曰朝鮮正士郎中徐海觀撰景仰瞻先生小像於楊梅村斜街緼和老店李士安宗李宗游館作有款題於長十二月十九日

中東問曰朝鮮信國使館在日依山兩屆
坐而有之真選好正天子特宴之所不過大略之

山五龍其海甸之陽其國明苑皆是人造其者異國
聖宮之太極殿其山殿諸宮中者乎余曰且往見海
邊真是佳處處之仙人皆及勝於天位然其地與洞
岳陽亦如此乎余曰然也其地與洞岳陽亦如此乎
由則有洞是神道來者其言吾家三百餘里人全世
間未見來石人則可謂其地數月矣余曰其地與人
有類其高其國一見其人則知其地矣余曰其地與人
不見金山山則亦可謂其地矣余曰其地與人

全國何不示我余曰凡何不以江南全幅示之小東
曰來生願為高麗人余曰余則不願生中國曰何也
余手脫頭上帽而投於地曰其於此帽何小東睜目
彈手急杜其然余曰中國之財竭民窮何至此甚鏹
崇銀票鐵泉大泉俱拂民情票紙及泉貨之制只行
於百城百里之內東林之外尚不遵行是民不遵
古王城之中朝廷問者無紀綱紀綱者治天下之
第一法術矣獨治天下為然一家而有一家之紀綱

國而有... 紀綱掃地... 兵餉... 財何... 紀綱... 春... 致... 武...

覘國余又曰大國之憂不在於兵在於此也小東曰
天下之憂海觀憂之余曰南匪何尚用兵曰南匪困
於虐政嘯聚潢池苟且偷生之計而升平日久民不
知兵中外遽爾騷動朝廷失於調度浸浸至于尾大
難掉而今則皇上英斷多勇將帥得人賊勢漸縮差
過一二年自可討平自數年以來便是中興也余曰
今之柱石之臣誰佩安危曰湖南總督曾國藩其人
耳本是湖南人而年今六十朝廷之倚重如文潞公

士林之雅望如歐陽公余曰吾見增報中御史宗稷
辰上疏以為曾國藩所薦十人皆得偉才云云以此
觀之曾公誠非虛名也余謂中東曰聞三閣老新出
皇上雖在恭默之中良弼之得用何若是多乎中東
曰宋朝自建隆元年至嘉祐四年一百四十年宰相
凡五十人明業禎十七年間命相亦五十人可以觀
治亂矣余又謂中東曰武丁以夢相傳說事著于書
夫而世多疑之夢而得賢可也或否焉亦將立相也

與且其翊求以象之肖也天下之貌相似亦多矣使
外象而內吾亦將寄以茲梅舟楫之任與雷如是則
叔孫之夢堅牛漢文之夢鄧通卒為身名之累漢惠
可為與或曰非也武丁嘗遊于克野而後即位在民
間也知龍之賢矣一朝欲舉而加之臣民之上人未
必帖然而聽也故徵之于夢焉是聖人之神道設教
也是所謂民可使由而不可使知也且又商之俗質
而信鬼因民之所信而導之是聖人所以成務之幾

也莊子載太公之事云文王見一丈夫釣欲舉而授
之政而恐大臣父兄之不安也欲終而釋之而不忍
百姓之無天也於是朝而屬之大夫曰昔者寡人嘗
見良人黑色而頰黠曰寓而政於臧丈人庶幾乎民
有瘳乎遂迎臧丈人而授之政或者之言亦有理也
然而武丁文王之用說與堯猶田單之妄用一男子
為軍師類乎聖人之神道設教以禁成務而不使民
知恐不如是也其所云寡人嘗者實帝感恭默之誠而

齊之也其性情治者其夢寐不亂乃可以孔子夢周
公同觀而非叔孫之踐妖漢文之啓偉矣鄰人夢鹿
而得真鹿心誠於得鹿也心誠於得鹿者非天理之
公而尚可以得鹿况誠於求賢而有不得者乎司馬
彪莊子音義謂傳說生無父母洪氏註楚辭謂說一
朝忽焉後天而下便為成人無少長之漸此兒童之
言也固不必辨余又曰以傳說太公望言之國之興
由一臣則國之亡亦由一臣秦之亡由商鞅晉之亡

由王導乎美小東曰王導乎江左之管夷吾也江左人物
當推第一而今謂之晉何也曰王導非純臣也世徒
見晉明帝以大義滅親履之而實不然廷機執械之
萌蓋非一朝一夕之故導不能先啓元帝潛為之備
及敦至石頭導不聞有正言規之而受其司徒之擢
君臣大義社稷為重李懷先將叛而其子璿言于德
宗君子以為忠孝而全導之于敦非父子此也而依
違其間坐觀成敗得為純臣乎敦之主導勢已無可

奈何導又在帝左右而王氏子弟布滿中外明帝忍
道其心內應故舉春秋大義滅親之言實以安導心
而散敦黨也夫大義滅親石碯是也碯子後胤碯手
誅之謂之滅親可也導之于敦親非父子始也不能
如李璿終也不能如石碯謂之滅親是欺天下後世
矣敦之反也元帝下詔云敦有捨王敦姓名而稱大
將軍者軍法從事敦旣死導貽王舍書猶云丘承大
將軍用萬綿綿或云已有不諱故違明詔而特伸私

情此非敦反乃導反也導銜周伯仁敦既得志問導
曰周顛戴若思當登三司而導不答敦曰若不三司
便應令僕而導又不答敦乃曰若不爾必應誅而導
又無言二人竟死夫敦之用周顛為三司令僕欲使
助已為亂耳導當言謝在朝廷非臣下所得專情
及其言應該導當言刑在朝廷非臣下所得專罰
可也然導豈智不出此哉假賊手以戕忠臣其心不
止報私怨而已使敦謀事成則導能如未全豈乎能

如司馬牛其言不能也君尊臣卑如天高地下
 成帝李廣利之嘗言曰臣嘗聞之怒曰王仲子
 侍中孔坦交表其宜尊卑聞之怒曰王仲子嘗
 下望之禮也其言不亮之察察戴若也
 耶夫漢帝之禮不失君臣之禮也
 以賞罰之禮也君臣之義也言不如思也
 春秋無侮之禮乎朕漢代博陸之裕者由上者之政
 不綱而王氏族盛大恩後世根節曲致

爲孔明矣哉武庫猶如索隱可無下語
論自年矣自若今年猶不向者有如此
今論今始以夫金曰今之執政者誰也
仙李其甚自曰曰中果執酒之政乎
謂何者其甚自曰曰中果執酒之政乎
鴻椿草鞋金三也言其我曰海東名
墨余謂年也自若年也潤華之資負
袖架上一快書曰前曰故詩海觀在
九澤華實校

視之香相華說也。東曰觀演戲乎曰未也。明天與

酒人拜會。同往觀劇如何。余曰好

四雖大風。余曰大風也。不怕大風也

不怕大風。西月城

美五。樓酒肆

車或皮。秋或與美

衣帽。半醉半醒

流水。相聞風

之後有揚全調鸚者有打牌踢辣者想知鸚鵡上使
文與副使往見范曾鋪感說花草之勝曰奴地鸚鵡
茅茨蓋屋覆其南嶽之約陽日光透明致萬物其中
有佛手天竺水仙牧子良蓮蓮橘柚桃杏梅杏蓮祥梭
春如春之花之屬方爛開無異三春此方之靈藥也婦女
冬霜雪之中有此方春和智京幹旋造化誠可異也宋
時武林馬陸感花之法紙糊密室鑿地作坎覆以竹置
花其上糞土以牛溲硫黃然後置沸湯于坎中候湯

氣熏蒸為扇之經宥則花放今京師園丁皆用此法云
惟桂花清涼而後放今與桃梅牡丹之屬同置煖室
地窖宜其不殖也

二十日或晴後餘與滄人聯鑿到蘊和館芋仙設酒
肴以待兩人曰今日之別難期此生再見不替不滋然
余曰何必佳哉因相對大若憐吾兄弟會當再見
東曰今日痛飲酒不必佳也實理語也上使文率安瀨
兩箇過店門聞吾輩在此仍入見少東芋仙兩人筆

談半時先即回車兩人相顧甚喜問余曰大人
著衣對何製曰臣能對也問曰大人曰好裏好裏
仙風道骨官居何品曰輔國樞密大臣奉敕金受大
將軍內閣學士兩人曰好言好言即承德詩人見風
儀頗有唐中郎容儀亦在焉老為言曰別是也
東同往中和堂御殿其地宜設樓塔一處或此
是朝士進觀之所故朱輪華轂皆由門卷可
者之多至矣樓制甚密故欄楹固若口口

場可以倚欄而臨視樓上間間障隔而各設床卓椅
 手所以處觀劇之人而樓下設長卓長椅次第列坐
 日已向申戲亦過半戲者各執刀槍並戰鬪狀問其
 名曰徐中山擊鐵木也又有一美人擬粧盛服與男
 子對戲問其名曰唐伯帝賜秋香也美人所謂戲場
 妙音也此是華音也此是十五十六歲女子而形貌絕
 佳能度流麗肌膚與手勢一似女子而體態難辨可謂
 傾國之色聞南京人皆戲具先以木金周行海內四

最鮮南松鴨形如鸚鵡而小能為人語其聲音之曲
折轉舌如數歲兒初學語舍曰異哉恨未見也

二十一日配晴隨三使赴巳刻後東長安門轉入天
安門五箇虹霓向南闕門前環金水河跨石梁七即
外金水橋前五華表二此名陞君柱門內五華表二
此名敬天柱華表頂上刻牴牾牴牾者二獸名秉心
忠直故也按此亦兩空扇扇室叻睚眦之屬而龍生
九子各有其名 皇明時承天門順治間改今名門

內東西各有翼廡東廡中為太廟街門西廡中為社稷街門轉入端門門制與天安門同元世祖建都時問于太保劉秉忠定大內方向秉忠以麗正門外第一三橋南一樹為向以對之上制可遂封為獨樹將軍賜以金牌每元會聖節及元宵三夕懸諸色花燈于樹高低照耀遠望若火龍門東西亦有翼廡為各司朝房未及午門而少憩于朝房午門前御路東邊設床卓禮部侍郎寶象殿前三使行三跪九叩頭

仍須賞兩退午門只設三虹蜺自立國之初有翔鳥
數千百羣開東集于午門上日出飛散以為常稀曰
朝日鳥道光之末或有不集之時集亦稀少自四五
年來翔集依舊此可見清運之末衰云左右紫禁城
各有傑閣臨于城上俗稱五鳳樓凡文武官由左門
惟宦室由右門視朝與駕出入時鳴鐘于樓上朝臣
年老位高者特許直進禁城騎馬馬周瞻紫禁城制度
厚為一馬場制如都城只有四門南為午門北為神

武東曰東華西曰西華設如有變都城未守亦可以
堅守宮城昔在常預甲申流賊之變都城失守而尚
以宮城拒守至於九日之久而若非廷瑞輩之潛相
內應開門納賊則額額棠壩豈能飛度而勤王之師
未可以待耶况其錢穀軍器銀皮緞衣瓷茶器皿酒
醋諸庫俱在其內又有煤山聚石炭而造炭以備不
虞則雖經年閱歲未可率拔壯哉宮城之規度也出
端門及天安門登外金水橋南望大清門則與天

安門一般門內左右有東西廡各百有餘間所謂千
 步廊也凡吏兵部月選刑部秋審禮部鄉會試磨勘
 與學士郎房云朝服帽上學選與程無絃怒其色甚鮮
 此謂之免者此即朝衣亦有朝服身我國黑團領
 此謂之隨品取象與服皆無異其在是者中斬為一
 同際者此謂之朝服亦合為一
 此謂之朝服亦合為一

朝服

二十二日燠晴山東學使俱有書致東書曰

海觀學兄大人吟席暇日中和園一聚及搗遠人

幸見未聞祗三置陽關未定銷魂尤甚居者如此

會者可知聞燕燕庭前春三三業於今日即

老我病宅祝壽時難知此脫此出城歸寓不及躬進

希原之弟明年三四月間即可赴蘇州在縣丞亦

即後軍以弟留此亦法及想世之學子雖與起田無

緩由此見長文苟有命海危日欲謀司道更可希

當不至丞倅終老也令即石顛才高氣壯宜為偉
器正合東坡詩中有子才如不羈馬知君心是後
周松二句渠作絕句數首第心信數詩題寄以備
採風以傳門望至若日後思果有就望便寄至
都中過長安門外南軒第道遠道遠權存即可
發家以方以馬君係同國語名錄或帶松園渠
子後思果有就望便寄至
東坡與尼札日後思果有就望便寄至

羊仙書曰

海觀郎中仁兄足下天海茫茫偶與會合遂締交
右文字直均愛於骨肉此生得見吾兄與友蘭樞
密語人與士感深知己可以無憾已曷且蒙惠贈詩
翰已謹付裝池行張四壁以用有先後有輝矣他日
出都或與西歸示我子孫永感不朽豈非盛事耶
名曰卷之百瑞文集無後說起此數情當宛轉寄
書各存存思益以文章章道義我風節相教勉夫若假

緣會預見否則書所難悉現傳以之與君世世
為兄弟結來生未了因馬耳擗管聖祖惟冀長
途在彼緣緣道弟疑謂承明送應飛燕幸其慰甚
咸西區在在十一月廿二日西蜀弟來幸弟弟化
願首身拜禮諸君在空野山陽明外讀如右長母相
也

又
中
又
中

時咸豐乙卯鵬月十三日也

天上朝回過腐儒一時刻蓋寒通衢是日磨人書

禮部禮成後輒雲烟入手收詩卷北承兩先生和予

成巨快墨淋漓袍笏後容拜畫圖公坤像兩先生

教喜明拜部為巫索解人鎮相得始知吾道不曾

孤百年莫忘尊前語春屬猶踈骨肉俱兩先生

我華文字因時不吝言一家春屬海鏡曰視

肯與佳句到鵝林海上成連對鼓琴之興舞筵鈔

萬本教同啟尋享千金西先生酬傳海東實子詩屬書屢

博才心豈殊中外詩世名應重古今不在於燈風

兩夜平生辛苦事清吟

奉慶海觀先生仁兄壇且姑誦定忠於華仙榮李

士茶拜亭並識於京師獨支樓

是日點檢行李只有購書十餘快束裝付之大車夫

單身高枕夜淡轉輟轉玉簿適至見余無聊獨卧謂

余曰明將早發教喜無比胡為作此無聊想余曰君

携我何念余試言之美朝解人自年五六歲稍有知
覺則求物產之奇巧者必曰大國之物語人物之傑
持此曰大國之人至於文章書畫山川宮室皆稱大
國以不得一見為生事恨以金所見雖昔之恨及不
之恨也憶京不區越亦一國之地山川則嘗問流溪
之流餘脈而三人也其地有楚禹湯之靈皋
之與之法一書也其地有楚禹湯之靈皋
之千里曠野一書也其地有楚禹湯之靈皋

之高起亭閣殿宇之麗華之百官之服章者異於中國
尋威如者長者莫不冠帶會必以猪油為味臭惡
不潔噉衣服必以粗布為衣者猶聖王不視婚嫁之用
樂九章之禮帶也然則禮樂之於中國豈可合異
天子至於金鈿飾物之類固皆非中國之物
不過欺騙小兒奪取小泉之計古之唐虞夏商周之大
國亦如是而猶以未見為恨耶韓曰既入中國不見
天子面目是可恨也余曰天子之像何難知乎西日

見晉書
余曰未也
金荆達也
唐代
記云
為
曰

是中庸之庸則何如韓曰庸是鹿皮曰守之庸也韓
問余曰皇城今係順天府而宋以前屬於何州歟余
曰按古書北京即唐蒲鎮遼金別都之舊城也元遷
都稍東村是舊城東半遂入於朝市間西半猶存跡
為蒲太后城蒲即遼后也又云唐時此為范陽蒲鎮
安史及後改名盧龍而所治幽州薊縣不改今移薊
以名州移盧龍以名縣各去此數百里其實唐之盧
龍由薊州也韓又問曰寧古塔屬何州而與廢

四部相繫乎曰然寧古塔即古肅慎之遺墟也漢
唐以來東北無強國雄部惟我青甲一境擅東北之
形勢也宋元以來每以擊朝鮮等為名東大役其
時見遼東是時入事為我土而山內外諸種部落服屬
於我一自女真滿洲之種起於鏡泊之中最盛大
至元末為人所逐是為全國及夫我土之敵逐
東歸見其奇落散處于長滿鴨綠二江之西北或稱
野人或稱諸部其後我二境其地也今西則李滿

佳印其大者也自茲以還我國邊界不靖大抵女真
餘部有熟女真生女真之別至於皇明萬曆以後生
女真董山之一派忽大於建州衛而統屬毛麟衛左
衛右衛等種落而屬四郡密通之故最受其弊此所
以四郡之廢而及弘治時以後兵力日強威仍以北
上而自開元迄瀋陽東下而扶遼陽以瀋陽稱盛京
以遼陽稱東京以建州稱興京而寧古塔以西並據
而有之遂有戰於大小諸柵之間常積未入主燕京

而建州卽陵廟之所存老城卽都邑之所居故其所
制置與盛京無異云矣按黃道周博物典彙建州政
云建州卽金別部元置萬戶府清分爲三曰建州曰
海西曰野人而建州居中雄長地最要害永樂元年
設建州衛每歲十月入貢此建州之始大也遠野以
東列置三將軍其一鎮守奉天等處地方而坐瀋陽
其一鎮守寧古塔等地方坐船艚其一鎮守黑龍江
等地方而坐文辭城秩皆一品各統滿洲康熙末年

最憂黑龍江以北之家古故加設白度紉將軍云而其
坐地不能詳知然似在黑龍混同之間蒙古四十八
部中東北諸種最強盛大鼻獺子亦在黑龍之北東
自黑龍江至開元以北及松秦長城之外遼北遼西
至于漢西域于闐地方皆身是蒙古之界其廣比中原
不啻屢倍上古則不載於史而荒漠無人居唐虞以
後地益廣人益繁今為四十六部互相雄長各帝之
開籍稱東西南北皇帝一曰皇天極一曰青月太極此

在中國之西南一曰厄羅斯即大鼻也一曰塔爾喀
此在東北寧古塔東至東海三千餘里西至開元城
遠僅五百九十餘里南至長白山一千二百餘里北
至咸哈邊六百餘里蓋我國地形北高而南低中級
而下羸以白山為頭大嶺為脊若人之側腦僂背而
立者嶺南之對馬島湖南之耽羅島又如兩趾之支
馬坐交面已即堪輿家之正論而以京都定四方之
方位則穗城為子海南為午其酉豐川其卯江陵依

此而覘之壇城之向背偏正如指諸掌而凡今之所
謂地面者無一非舛錯也類皆因幅而排位因位而
成面或長廣乖執或濶狹失宜輒以西之義州北之
長興視之若東西兩界之準而對布兩角如扇子之
撒開以鴨綠之入于海者謂之極西豆滿之入于海
者謂之極東然後列置八道三百六十州如亂布其
子行一局之上而強自指點議其山川程路則殆無
異於反鏡索照而其不見矣不特職方氏者稀矣其所

人爲此者或不過只舉白頭一兩滴水西流爲鴨綠
東流爲豆滿之古語硬執以爲膠固之論殊不知兩
謂二水之分東西者特取最初發源處爲之說未嘗
盡論其水流歸趨其試者豆滿之向德城者或東或
北而流到美錢僅或後爲南流也入于西水羅鴨江
身其流稍及過三甲慶四郡之區許多屈曲及江界
河原皆向西南而及昌城又折而直爲南流包故軍
亭之西而入于大德江故都三山出六鎮者皆曰北

卷九十四
 一四六三

過五里十里快至西行海風所射盡相寒地是

卷九十四

慶應堂日史編五

四三

慶應堂

玉河

三日

...

...

...

...

今皇帝服夷之服行夷之行已無是論雖以古之皇

帝之禮薄於見其明也上言中於其目既

其禮也海內咸知已矣其言樂則樂天也

其禮也禮也禮也禮也禮也禮也禮也禮也

其禮也禮也禮也禮也禮也禮也禮也禮也

其禮也禮也禮也禮也禮也禮也禮也禮也

其禮也禮也禮也禮也禮也禮也禮也禮也

其禮也禮也禮也禮也禮也禮也禮也禮也

夢入登車翻覺歲華淡山後一見如知己梅在殊

方知許心安得追風乘快馬霎時飛度浪江林

出如大門東沿通州江邊而行此之朝陽門右路甚

是便道曰太暮抵通州店即行三使先已到矣上使

林樹曰南燠煥與副使書狀相達行吳地極乎欣然

無曰家國太平曰入茶局

立曰有黑鸚鵡曰入蟹呼曰茶

火曰語曰入

之龍山三湖而漕艇會泊之用也因此起疑欲實其
疑余曰何疑曰中國以河決為憂集河之役歲費銀
數十萬計其有限之財歸之尾閘國用固以爲細何
不任其決大流爲華爲余曰今之海濱皆治河所以隨
決直其流者皆已也蓋河之爲憂者非治河也治其
道則其流自適也治夫其道則爲治也夫治河得夫亦
在事夫治河其人皆之治河在社今之治河在治在
在事夫治河其人皆之治河在社今之治河在治在

石龍門由華陰底柱達及大陸播為九河入海其治
淮則道自桐柏東會泗沂入海自是總河遠者七百
七十餘年至殷至地而不聞有所堤塞者猶近猶禹
迹故也及周定王時河南徙於陳夫禹故道遠為患
害自後治河伏有其人漢宣帝地遠中郭昌乃各穿
堤不令北曲河渠通利此以決河分殺為功者也漢
平帝時河決潰積者及修治永平中乃發卒數十萬
詔王景治渠築堤十里一水門此決河與堤防兼用

者也自此閱魏晉南北朝六代至唐河有小決溢而
無大變遷者皆推五景之功其餘李尋解光王橫韓
叔之徒或欲復禹故道或議任其自必未有建非常
之責賈讓之論誠傳矣然當時已難施行況今藉河
以濟漕乎唐史不載河患程子謂漢火德多水災唐
土德少水患唐河朔之地天寶後久屬澤潞鎮節度
惡不聞朝廷故也唐中一二代河患豈見真宗時
夫十萬修河張守節以河決為憂王濬以河決為

陽失位其後商胡為壠之役幸伊昌王復河故道歐陽脩齋中嘗力言以為不可神宗時河溢上命神宗以為河決不過古一州之地或東或西則言無可校聽其所趨可也惟王安石力主塞之議然固守義之言信鐵龍以指泥車為礙河見無益于國計及為子京笑謂元人治河最善其法曰填壘曰築壘曰有紆因其直而濤之直者高有卑高者卑以度卑河身有廣狹狹者以計闊之廣者為比以計德之

堤一也有刺水堤有截河堤有護岸堤有緩水堤有
石船堤治埽一也有龍尾欄頭馬頭等名為埽壅堆
捲岸制狸掛之法有用土用石用鐵用草用木用筏
用繩之方塞河一也有缺口豁口龍口之異其法較
前代最為詳明明劉文夏治張秋缺口沁兩岸堤壩
三表貫索網聯巨艦穴而塞之實以土至缺
沈艦壓以大埽至平濬由長者河防一覽凡
築橋網繩釘及油之及

劉四任治河前後二十五年嘗知地形水勢以借水
濟沙築堤東水不涸而西水不溢下至木石枋槓
運鋪造府隄等項皆自製又嘗說曰河二曰渠
以故清次三曰淤四曰創淤五曰
直隄六曰五曰六曰七曰八曰九曰十曰十一曰十二曰十三曰十四曰十五曰十六曰十七曰十八曰十九曰二十曰二十一曰二十二曰二十三曰二十四曰二十五曰二十六曰二十七曰二十八曰二十九曰三十曰三十一曰三十二曰三十三曰三十四曰三十五曰三十六曰三十七曰三十八曰三十九曰四十曰四十一曰四十二曰四十三曰四十四曰四十五曰四十六曰四十七曰四十八曰四十九曰五十曰五十一曰五十二曰五十三曰五十四曰五十五曰五十六曰五十七曰五十八曰五十九曰六十曰六十一曰六十二曰六十三曰六十四曰六十五曰六十六曰六十七曰六十八曰六十九曰七十曰七十一曰七十二曰七十三曰七十四曰七十五曰七十六曰七十七曰七十八曰七十九曰八十曰八十一曰八十二曰八十三曰八十四曰八十五曰八十六曰八十七曰八十八曰八十九曰九十曰九十一曰九十二曰九十三曰九十四曰九十五曰九十六曰九十七曰九十八曰九十九曰一百

漢高祖王莽始元四年三月凡六日廿二年乃其續遂

漢高祖王莽始元四年三月凡六日廿二年乃其續遂

漢高祖王莽始元四年三月凡六日廿二年乃其續遂

漢高祖王莽始元四年三月凡六日廿二年乃其續遂

漢高祖王莽始元四年三月凡六日廿二年乃其續遂

漢高祖王莽始元四年三月凡六日廿二年乃其續遂

漢高祖王莽始元四年三月凡六日廿二年乃其續遂

漢高祖王莽始元四年三月凡六日廿二年乃其續遂

河運通濟 漕運送河 運送河 運送河 運送河

漕運通濟 漕運送河 運送河 運送河 運送河

漕運通濟 漕運送河 運送河 運送河 運送河

漕運通濟 漕運送河 運送河 運送河 運送河

漕運通濟 漕運送河 運送河 運送河 運送河

漕運通濟 漕運送河 運送河 運送河 運送河

漕運通濟 漕運送河 運送河 運送河 運送河

漕運通濟 漕運送河 運送河 運送河 運送河

漕運通濟 漕運送河 運送河 運送河 運送河

黃磯嘴長壩以殺黃勢淮水始足相抵則沙逐水流
運道可無誤矣又恐淮黃並漲堤岸潰裂其最宜保
固者莫過高堰高堰者淮揚保障黃淮關鍵也欲道
河入海勢必借淮以攻沙淮水南決則濁流停滯清
口亦涇河必決溢上行平地而邵徐鳳泗巨浸為憂
是淮病而黃亦病黃亦病而泗亦病也必修濬以補其
高寶湖以通其源俾入淮畢趨清口會入海則
河漕俱利此宜與黃高漕清之一長策也自嘉慶以來

凡係天下利病幾盡指畫俾國永賴之功而猶姑
河計不出此今年東決則集東明年西決則集西而
且姑息之方反致蕩析遺獨之患雖以今年言之聞
於中國人則河決於河東河東之漕船亦不歸矣之
工費至傾內帑之儲而完於苦無期云指畫幾天年之
鈔歲供河伯之旨中國之財竭民窮非由南河之決
餉也實由集河之役講員余獨以為中國之漕自漢
唐惟河是已如吾不信試以吾言直置漕中漕亦如漢

者苟求漕運之方便固莫如海運海運之法秦已有
之唐人亦轉東吳粳稻以給幽燕僅給邊方之用而
已用之以及國則始于元焉至元中伯顏始建海運
之策命習知海事者朱清張瑄羅璧自平江劉家港
入海運至京師其後殷明略重開新道自浙江至京
不過旬日雖不免風濤之險所得甚多明初海運精
以給餉遠東至成祖遷都命陳瑄督運設天津衛以
直沽迨永樂十二年專令支運轉漕遂罷其舊法

人情不得不然命謂副行人曰今番別行專為節行
 修掃玉河館數人請燒肉果也諸人曰中旨否否批
 官不與也

一曰... 路透四
 ... 在馬... 樂... 餘...
 ... 直... 為
 ... 者... 移...
 ... 命...

高士奇勝遊盤山登上盤至黃龍祖師殿舍利塔佛
 瞰虜龍古塞黃花白狼三千里外烽臺濠輒瞭然目
 中真大觀云舟州詩曰層巒不盡青天去亂瀑雄爭
 大空來者可謂得此山體勢也崔簡易過漁陽橋在
 懶詩曰空回山即廣成處帝軒轅聞道胚胎蘄州只
 有盤山與空同似指盤山邦均店過大興詩曰垂允
 戰虜龍古塞如將勝負分邦自似足虜鹿故地
 盤山與空同似指盤山邦均店過大興詩曰垂允
 戰虜龍古塞如將勝負分邦自似足虜鹿故地
 盤山與空同似指盤山邦均店過大興詩曰垂允
 戰虜龍古塞如將勝負分邦自似足虜鹿故地

近容或無惟簡易之機行亦屢矣見聞亦可詳悉而無他及證可恨抵陷于薊州

二十六日甲申晴午飯于鰲魚山店取徑路入宋家庄是

明末宋姓人築塢自守處敗墟尚有基址墻是築塢固

可容百戶之村塢中築一堡敵樓制若烟臺高出城

上所以瞭望而備禦者世傳宋家寨塢築及清兵之

入關隘族固守不服清祖志之使紬司銀數萬兩至

唐源嘉其守郎特蠲其銀至今歲紬七百兩云及其

門有兩少年出而迎接容貌端雅衣服鮮麗外門扁
譽著成均曰堂扁杏苑先鞭尚書乾隆年孫曾聞
皇明鼎革後宋氏家世不做舉業今其榜楣如此以
世代之漸遠而子孫遂赴舉歟問兩少年姓名則是
兄弟而兄名舒惺弟名舒恂俱登鄉薦現帶廬盛名
文筆俱有英妙老主人年逾五十儀容沈靜情聞名
鸞閣辨香靈金曰家傳高節世守清名使滿邦之人
猶式段木之虛可欽可敬惺答曰世守先人家範貴

爾遠播虛聲屢承貴國光顧者以矣余問曰聞貴國
有萬卷書今猶可問否荅曰先人手澤豈至失落但
未必至萬卷耳敵樓在內堂之後一行皆登樓而余
時病腕將由攀躡踏於樓下老主見病處以白布
散藥贈余曰調啞塗之不至成瘡余補謝萬千聞未
登樓者樓凡五層皆緣雲梯而上到最上層四望通
敞高山大野平鋪在下古之齊魯落星不足比其高
云樓中可容五百兵而恃此不屈於大兵之壓臨其

志誠壯美室屋排置猶有故規之可觀而家勢雖未
及舊時富饒然闕外歲入銀尚有萬餘兩云夕抵王
田店止宿以藥塗腕夜涼漸覺止痛穩睡

二十七日卯晴抵宿沙流河店主張燈賽神余謂韓
主簿曰清人之尚鬼自天子已然君知堂子乎曰不
知也又有園殿神是何神也余曰清朝出軍祭告堂
子與郊廟並重元日皇帝拜天於堂子出征拜天亦
如之故或以堂子為祭天然四月八日則奉神佛於

堂子而祭之園殿神名曰海歡台言武萬本貝子神
其建堂子東南隅每日首祭之內管領一人充獻祝
樹解帶入跪祝叩首自給滌日祀堂子則並祀園殿神
禮馬兩祭馬神在殿前西偏園殿神清太祖初起兵
即有社堂子諸族人謀害太祖亦誓社堂子堂子自
是滿洲舊俗祭天祭神祭佛之公所園殿神貝子之
祀不知起於何時

二十八日晒是日宜煮酒燒香有沙河驛塔人有詩云

和其韵曰

九旬仍佐路中人萬里羈愁眇一身風雪許多經
甕炕充陰客易送車輪樽前柏葉將迎歲闕裡梅
花又立春除夕如今餘信宿病思還與物華新

二十九日巳晴是月山自沙河驛離鼓到野鷄屯午
飯夕宿永平府城外店三房下隸適相來現即拜歲
也市廛街巷砧砧之聲撼天動地竟夜喧擾萬里重
關離家陰歲感懷羈愁亂如焚然曉枕荒雞轉輾失

睡於是乎吟詩遣悶出步庭燈影送三星斗閣千
道逡巡之際天已曙矣就拜于上使女書名帖二
紙曰徐慶淳敬請元朝新祺送于副三房即遵彼例
也詩曰

去去何時已明朝即二年愁多山萬疊長短路三
千歲月重關外夢魂流水邊老妻應守夜務稚穉
燈前

丙辰正月初一日抵晚飯于館空堡雪如不風

寒甚劇，冒雪抵宿，撫寧縣公路人家，市肆牢閉，外門不通，外人在在皆然。人或以紅紙書刺，貼于門扇而去。如我東各司下吏之，以單子問安之例也。惟飲食鋪迎客如他日矣。余謂韓主簿曰：「今年幸不添箇日何也？」元日不喫餅，漢也。韓曰：「雖不添，漢其如更添白髮何？」余曰：「年將暮矣，妻以久之曰：『東坡之書白髮出於不計，但恨汝無可奈何語耳。』」

初一日，起早晴晚陰，抵宿。知花店韓主簿與店主叙。

舊飲酒不覺大醉歸宿其寓卽與我寓隔壁韓醉鼓
淋漓其後者曰進賜醉矣何多客談也隔壁兩班不
能睡矣韓怒喝曰汝云兩班兩班是何物也在朝鮮
稱兩班可也今到中國亦曰兩班兩班乎汝所見不
過中人也畏恟兩班固其宜也吾則在朝鮮畏之在
中國不畏汝胡為以兩班恐嚇我也如是為說口頭
不絕兩班二字竟至天明余不得交睫韓早至余寓
余曰自今日以吾兩班相換君之中人意向如何韓

不省曰何謂也余曰然後可以穩寢韓口呆不能答
在余傍者詳述前夜事韓曰不知不知不敢不敢余
曰君以為在中國不畏今反畏之耶昔一字相家貧
內門低小輒屈首出入矣其後高大其門而猶屈首
如前歎曰積屈者不可快伸以此推之雖富不辜之
時常漢真可凌逼兩班也君乘醉大談醒來納歎此
何如大門之屈首乎相與大笑

初三日庚午陰午晴抵宿中前兩燈下閱文如子韓

主簿在傍曰隋史不為文中子立傳何也余曰此凡
千古疑案也唐初修史時為教者魏徵本不與者陳叔
達皆及門也而房杜諸人又皆佐命力豈不能為其
師立一史傳而必待三百年後宋景文修唐書始為
之表章乎王績南齊諸傳耶宋史謂通為長孫無忌
所惡當時畏無忌故遺通而無忌之惡王次則由于
主簿次子勳勳貶侯君集君集與無忌善因而無忌及
其祖耳余謂隋書不為王通立傳五代史亦不為韓通

立傳二人未嘗以一傳有無為輕重獨可為當時攝
史筆者惜耳

初四日醉晴寒抵宿中後兩唐壁掛火鏡余曰此必
是旗人家也韓主簿問曰中國軍制未能詳知所謂
八旗是六軍三軍之制歟兩謂旗人民人何以辨別
歟余曰自黃帝創立八陣遂為萬世兵法之祖三代
之盛寓兵于農雖并之為方者九而耕夫惟八實亦
八陣之遺意諸葛武侯亦復有八陣圖以是知八之

為數乃兵法之所不能外中國八旗之制最為詳備
其尊者無常則為公卿有事則為將帥其卑者時而
耕于野時而蒐于郊上之子下不常如身之使臂臂
之使指其躬擐甲由月者雖最貴亦不敵除其籍惟博
士弟子貢始復其終身而其存在旗也則如故矣清太
宗撫有金遠幾多之八旗之制曰正黃鑲黃正白鑲白
正紅鑲紅正藍鑲藍每旗皆有三部以從龍部塔及
備小國臣順者子孫臣民為滿洲諸部北引弓之民

羈化內徙者別為蒙古而以遠人故明指揮使子孫
他中朝將衆來降及所掠得別隸為漢軍各管其部
中才賢用為大將將其衆階正一品曰都統都統之
下副將二員曰副都統正二品各領五員正三品隸
於都統副都統佐領正四品駝騎校正六品每一佐
領置一駝騎校至五十名無常員惟人數之多少而
置焉謂之馬軍營滿洲蒙古又選馬軍精壯便騎射
者為一軍置大將一員正一品位視都統而稍貴其

五尺之表度人如表能勝騎射充壯丁入籍至六十
而免有甲卒缺出卽以充選其餘為餘丁不任征伐
國有大役卽以役之凡壯丁制產之法一壯丁予田
三十畝以其所入為島島菽之費一兵有三壯丁將
不下十壯丁大將則壯丁數十連田數頃故八旗將
佐居家皆強壯擊筑衣文繡策肥日從賓客子弟飲
雖一卒之言亦皆爲人之奉又設官博學選八旗俊秀學
于其中三年比其藝而升進之遇郎中員外郎等事

缺選于佐領世職習文藝達治體者充之謂之保選
後又增置大點營馬軍都統副都統兼任其事蓋論
復古軍政則周之季季其始因民為軍拙行不覺其
擾後東遷不振敗于鄭敗于戎晉位五軍非奉朝之
制至戰國蕩然漢南北軍強幹弱枝而武帝虛躬兵召
配天下閭里宣風以後反借用于四方唐府兵其始
與周制暗合及天寶浸衰費人于宮置軍其中安史
亂後大河北較三朝以論則秦漢戰國之亂極矣

生民朝不俛暮起有允命之諸侯無匹夫特起之禍
周之制最優矣

初五日姪晴寒抵宿寧遠衛余謂韓王溥曰寧遠之
役史稱袁崇煥集將士刺血誓守令閩卒羅立教西
洋巨礮傷清城外軍此時清國未備火器清太宗天
聰五年鑄紅衣大將軍礮鎬曰天佑助威大將軍造
礮自此始撰載出行始于大凌河戰袁崇煥傳載天
啓四年五月毛文龍遣將松鴨歸江越長白山復清

譯蒙古語以蒙古字合我國之語音連綴成音
因文見義美遂以蒙古字合之國語謂之滿文
國中滿字傳布自此始

初七日卯陰雷震宿雨凌河神氣不平以人參茶
和茶飲之譯員曰自參燥熱不如飲復之和平余笑
曰君欲聞必償之始製平清初國人的採金復償之
水以待售曰明人採金欲命國人恐其害道無利
利益清太祖教以製法令熟而乾之可以經久不壞

售仍許通市于明所濟甚衆民用倍饒

初八日丑陰東風昏後雪霏抵宿大凌河余謂韓主簿曰此地卽祖大壽兵敗勦歿之處獨不愧何可剛張春者中韓曰願聞之余曰清太宗親師圍大凌城七日與明約兵祖大壽所書招降大壽曰人生豈有不死之理但爲國爲身三者並重今既不能盡忠也國惟惜此身命夫豈意歸順也身雖獲全妻子不能相見生亦何益清太宗親師圍大凌城七日與明約兵祖大壽所書招降大壽曰人生豈有不死之理但爲國爲身三者並重今既不能盡忠也國惟惜此身命夫豈意歸順也身雖獲全妻子不能相見生亦何益

魏升鏡元信庶子大凌河城各官督與
用大凌河司官督與元信庶子大凌河城各官督與
入魏升鏡元信庶子大凌河城各官督與
此言金元信庶子大凌河城各官督與
州之著者魏升鏡元信庶子大凌河城各官督與
明監國道元信庶子大凌河城各官督與
太宗元信庶子大凌河城各官督與
勿殺之使遂其志元信庶子大凌河城各官督與

曰我死志已決盛意欲生我而食我我亦知之但烈
女不更二夫忠臣不事二主古之定理也我為君盡
忠而死殺之以成我志日後上之諸臣亦有為上
盡忠而死者我崇禎自皇帝聰明執政大臣奸惡視我
如犬馬不足比數雖使我受命而乘山豈有軍已覆沒
而猶欲生之理我君為臣下家祿不能知我我必自
盡我死而後已但無生還者已被擒縶加萬
刃殺之皆我死心在陛下也我亦能死也又曰爾

天曰我之父祖未嘗損明邊一草寸土也明無端起
釁分邊陲害我父祖恨一也明雖起釁分我尚欲修好設
碑勒誓毋越疆圉敢有越以自見即誅之明復渝誓淫
兵越界請助葉赫恨二也明拘殺使臣殺之邊境恨
三也明以女嫁適家古恨四也
夫葉赫之守疆土耕田藝粟明不與之緩遣兵驅逐
恨五也明言葉赫之言特遣使臣遣書高誥與言肆行殘
虐恨六也時倫諸國合兵復我明抗天意倒置是非

妾為奇斷恨七也以此七六恨師出有名欲與明講
和曹欽和書十數次而邊臣不奏天子不聞竟無一
言相報此所以清國之坐有天下也韓曰姜弘立之
投降朝鮮之大耻萬古難洗恨不磔殺之當時朝鮮
官無義士耶余曰君言是矣清史不載遼東伯殉義
之事實只書姜弘立歸降之事按清史云明萬曆四
十七年令遼東經略楊鎬集兵瀋陽分四路攻清劉
綎康應乾督兵四萬人合朝鮮兵趨興京劉綎斃死於

達哩岡明遊擊爲一琦兵敗取殘卒今朝鮮都元帥
姜功烈營時功烈據固拉庫崖知明兵敗大驚遣通
事執旗告清曰此來非吾願也昔倭侵我國據我城
郭奪我疆土急難之時賴明助我獲退倭兵今以報
德之故奉調至此爾撫我我當歸附且我兵之在于
明行間者已被爾殺此營中皆高麗兵也明兵起區
于我者止遊擊一人及爾後軍士而已爾執之以爲
于是先遣使元帥請清軍降遂盡執明兵擲于山下

付清翼日晏切烈辛亥五千下山降詣興京與副元帥等南面謁見

初九日朔夜雪至曉不止雞叩鴻亦擬見北鎮廟與三使先向松花洞雪轉深迷失道不知所向仍改路轉尋北鎮廟風雪大住寒威凌兢抵廟廟前聖立石碑門五間門皆由規門內第石為階階以五欄左右對設鐘鼓兩樓東西各有陰碑閣四殿扁曰攝殿正氣殿內安塑像衣冠即聖聖巫間山之神廟有小金像亦

山神也隋時封為北鎮玄冥神唐封廣寧宋金加王
號元封貞德廣寧王嘉靖改稱鎮靈巫閭之神今
因之左右塑像與畫像儼然羅立不知其何神殿之
兩傍有石碑十餘有曰御香碑記三四碑即至山以
後降香時所立也有北鎮廟碑即皇明永樂年間
建北鎮廟之碑也四殿之後有別殿別殿之後又有
別殿而其中空室無一物最後有寢殿高曰龍始神
區即山神與神妃並安之所王披黃服妃亦黃服

謂命命娘神也。後之西有山巽然其下有穴。故
實如門可容人出入。其面刻畫松一樹。刻刻一詩。詩
曰：鎮廟神。西。山。巽。然。其。下。有。穴。可。容。人。出。入。
其。面。刻。畫。松。一。樹。刻。刻。一。詩。詩。曰。鎮。廟。神。西。山。巽。然。其。下。有。穴。可。容。人。出。入。
其。面。刻。畫。松。一。樹。刻。刻。一。詩。詩。曰。鎮。廟。神。西。山。巽。然。其。下。有。穴。可。容。人。出。入。
其。面。刻。畫。松。一。樹。刻。刻。一。詩。詩。曰。鎮。廟。神。西。山。巽。然。其。下。有。穴。可。容。人。出。入。
其。面。刻。畫。松。一。樹。刻。刻。一。詩。詩。曰。鎮。廟。神。西。山。巽。然。其。下。有。穴。可。容。人。出。入。
其。面。刻。畫。松。一。樹。刻。刻。一。詩。詩。曰。鎮。廟。神。西。山。巽。然。其。下。有。穴。可。容。人。出。入。
其。面。刻。畫。松。一。樹。刻。刻。一。詩。詩。曰。鎮。廟。神。西。山。巽。然。其。下。有。穴。可。容。人。出。入。
其。面。刻。畫。松。一。樹。刻。刻。一。詩。詩。曰。鎮。廟。神。西。山。巽。然。其。下。有。穴。可。容。人。出。入。
其。面。刻。畫。松。一。樹。刻。刻。一。詩。詩。曰。鎮。廟。神。西。山。巽。然。其。下。有。穴。可。容。人。出。入。

四字篆圖詩刻細楷書法奇妙可任傳玩而今值寒

節無以揭出云石面又刻一詩詩曰時登醫巫閭山

頤雲合滄素望裡收名景景景殊堪為鳴鐘擊帶

幽雲空樹古龍飛古詩曰鳳皇臺留斗北留神

一書意年萬紀元皇始二書三書真題又有石面刻

碑又元皇始三字翠石刻碑三

碑石碑數人石書字方一而書字高

金字碑也人書字高水盆三字詩刻

時時曰華屋閣不發發德德今不發不發音應也
家修養法將注注法說時時也秋轉音康也
時時大命元氣命命命命命命命命命命命
三時教上鏡面五時命命命命命命命命命
二時命命命命命命命命命命命命命命命
命命命命命命命命命命命命命命命命命
有行百司命命命命命命命命命命命命命
問問接也中有一自答命命命命命命命命

環繞西北桃花洞現在眼前卽如鎮廟勝景云而風
雪層亂雲霧窮冥越尺難分靈境一覽亦為天公調
戲也余有絕句曰

桃花洞裏訪仙家曲水迴環路轉斜洞裏春風桃
花紅似看頰刺佳和花

桃花洞裏訪仙家曲水迴環路轉斜洞裏春風桃
花紅似看頰刺佳和花

桃花洞裏訪仙家曲水迴環路轉斜洞裏春風桃
花紅似看頰刺佳和花

要路平地三分覆雪花

欲入桃源若上天此坐難得洗塵緣今行縱未換
靈境半道歸來半是仙

寺殿于僧寮冒雪而行入廣寧城城中雖非廣潤人
民市肆足稱嚴邑東街有石牌樓樓凡三層制倣寧
遠祖家牌樓而宏壯侈大不及焉最上層有石刻世宗
二字中層有石刻天朝奉四字下層有刻鎮守遼東總
兵管見少保兼太子太保寧遠伯李成棟十九字出西

門向廣寧石雪平地又失路日漸昏黑一行彷徨
于積雪中忽聞吶以聲自南而來尋聲向前進始逢下
棘葦來迎抵宿廣寧石韓主簿謂余曰李成樞之知
人賢於古名將矣何謂知人曰公不聞我東有太虛
先生乎先生善談論喜文詞有素帕傳者今其不聞
歟即為余誦其傳曰

先生名某字某號某女子者明將某
又某傳曰某功道濟寧遠伯伯之在

唯者三女竊聞之謂其父曰那廝何如人曰是滿
洲羯奴也曰女觀其氣宇俊爽顧盼異常真英雄
也伯恣叱曰閨中小女子惡能知英雄女退謂人
曰吾雖女子能辨塵埃物色何可沒身處閨閣之
內耶一日夜嘗袍赤帶槍繫褶率出族中千里馬
竟不謝而去女乘健驃躡後追趕曰丈夫死矣女
與我同是英雄也錦羅願托喬木欲求夫婿
之行如松柏平明乃覺奮袂而起白其父曰是盜也

其大爲之如木入時馬疾馳五百里至長安白雲巖
六月三日帝親入射鼻如席嘯御乳女從傍坐如
本道有言帝親入射鼻如席嘯御乳女從傍坐如
死無異於生帝親入射鼻如席嘯御乳女從傍坐如
曰大人幾事無所不爲身聞其大不道其言可畏哉
蓋不之知也夫一物之貴有死後居吾葬處大人見孫
孫之貴也夫一物之貴有死後居吾葬處大人見孫
孫之貴也夫一物之貴有死後居吾葬處大人見孫

護我一身彼睡者英雄也非哥哥所能敵奈何以
千金之軀自投於不測之地莫若早去勿貽命孃
憂也如松沈吟良久擲劍而歸告于伯伯笑曰天
數也

按長白山高二百餘里綿亘千餘里峻極扶輿山
之上有潭曰闔門周八十里鴨綠混同受溱三江
之水出焉山之東有布達喀山其下有池曰布勒
瑚里相傳有天女三長曰恩音倫次曰亞古倫季

曰佛庫倫浴于池有神鶴令食米果置季女衣季女
含口中忽已入腹遂有身產一男生而能言體貌
奇異及長母告以谷米果有身之故因命之曰汝
姓愛新覺羅名察哈爾雅爾次生汝以定亂國汝
順流而往卽其地也與小知乘之母遂凌空去朝
順流至河安乃登岸其地有三姓爭雄構兵相殺
有取水而飲者其西集之曰非常人也衆遂迎至
家三姓推爲國主妻以女悉爲貝勒其亂乃定遂

居長白山北之俄朶里城國號曰滿洲是為開基
之始數世以後不善撫其衆國人叛戕害宗族有
知子遁于荒野國人追之會有神鵲止其首追者
遂望鵲棲處疑為枯木中道而返乃得免隱其身
然自此後世俱德鵲誠勿加害云傳至清太祖
時亦英勇蓋世國人咸稱聖睿貝勒先是望氣
者言滿洲將有聖人出勳業垂統一諸國而履

帝位

又按清太祖之曾祖興祖生六子第四子景祖承
先業居赫圖阿拉地其餘分築五城環衛而居並
稱寧古塔貝勒

又按蘓克素護河部圖倫城有尼堪外蘭者陰搆
明寧遠伯李成棟並言清太祖父顯祖名他失祖

景祖名叫場清太祖怒詰明邊吏曰我父祖何故
被害汝等乃我不共戴天之讐言矣日夜思復父祖
之讐年二十八征尼堪外蘭誅之時萬曆十四年

丙戌也自此與明通和好焉

又按達州指揮王果屢為邊患總兵李成樞不能

制乃乞清太祖之父率兵討果擒之李成樞相清

太祖之父狀貌不類常人請臨視火攻陰謀及機

而害之時清太祖方四歲清太祖是為明嘉靖三

年李成樞不能掩清祖父仇夫之功與之生

哀清太祖之憂置館養清太祖相繼有謀

略十六年始出達州故兵端動以自衛嘉靖

與弟厲志為說除權增自為曆四十二年以後
遂不復言權家馮凌開國方畧

余曰此可與經線傳相表裡世或疑其言不後
曾祀堯而天數二字乃所以不殺也殺沛公言無情
公亦淡悟天理者夫素怕女之仍無下殺意豈非古
之女俠歟

初十日初晴夜雪尤壯朝起視之門外雪深三尺行
旅車馬並不通何留宿

十一日賊晴車路繞通一線半飯于中安堡抵宿小
黑山

十二日既晴抵宿白旗堡提燈欲往副房間副使居
停則皆云不知適覓無處彷徨路上忽見副使下隸
過前者問副使使道何在數人皆答云副使使道留
宿於王大人宅距此五里許余曰副使使道王大人
宅豈有在此之理汝無乃誤耶下隸不辭余之所言
又對曰副使使道丁寧留住于王大人宅此蓋王姓

人現帶京官居在此地故土人咸稱王大人宅也余
仍往三房別上便次適來臨于三房與書杖僕婦余
謂書杖曰此宅何如書杖曰此宅亦甚佳也余備述下持問書杖僕
書杖曰此宅亦甚佳也余備述下持問書杖僕
昨夜可合周知亦之家萬里殊方逢著者其人其
言可知副使亦大矣矣曰難免此嘲也人熱時遇王姓
人約以回還持書三二之可以委往而雖成書之
後待其三日後又食其口味不得其者管其空口

皇帝猶不忍辱殺論之如此予何敢不欽承以
上全我宗社下保我生靈聖乎大臣協贊之遂從數
請請軍前請罪皇帝之優之以禮封之以恩一
是而推心腹賜食之恩施及後且饋罷即還我寡
民之歸城之招兵之賞也者庶幾而西撫民勸農
之知舉尊教之禮也幸歟小邦
之獲非上國之矣也
師姜功烈助兵
敗彼擒大逆
等數人餘

悉放田恩莫大焉而小邦迷不知悟丁卯歲今皇
帝命將東征本國君臣避入海島遣使請成皇帝
之親為兄弟國疆土復完切烈亦還矣自茲以
往禮遇不替射蓋交迹不幸邊議煽動搆成亂梯
小邦申飭邊臣言涉不遜而其文為使臣所得皇
帝猶寬貸之不即加兵乃先降明旨諭以師期丁
卯及復不翅耳提面命而終未竟焉則小邦君臣
之罪益無所逃矣皇帝既以大兵圍南漢而又命

偏師先陷江都宮嬪王子暨卿士眷屬俱被俘獲
皇帝戒諸將不得擾害令後官及內侍看護既而
大沛息曲小邦君臣及被獲眷屬咸歸於舊霜雪
變為陽春枯旱轉為時雨區宇旣亡而復存宗社
已絕而還續環東土數千里咸圍於生成之澤此
實古昔簡策所希觀也於戲盛哉漢水上游三田
渡之南卽皇帝駐蹕之所也壇場在焉我寡君爰
命水部就其所增而高大之又伐石而碑之垂諸

永久以彰夫皇帝之功之德直與造化而同流也
豈特我小邦世世永賴抑亦大朝之仁聲武誼無
遠不服者未嘗不基於茲也顧莫享天地之大日月
之明不足彷彿於萬一謹載其大略銘曰

天降霜露載肅載育惟帝則之並布威德皇帝東
征十萬其師殷殷轟轟如帛如旆西番窳窳暨夫
北貉執是前驅厥靈赫濯皇帝孔仁誕降恩言十
行昭回既嚴且溫始迷不知伊戚自貽帝有明命

如寐覺之我后祗服相率內歸匪惟殫威惟德之
依皇帝嘉之澤洽禮優載色載笑爰啟干予何以
錫之駿馬輕裘都人士女乃歌乃謳我后言旋皇
帝之賜皇帝班師活我赤子哀我蕩析勸我穡事
金甌依舊翠壇維新枯骨再肉寒暑復春有若魏
然大江之頭萬載三韓皇帝之麻

余曰古人過三田渡有詩曰將帥無雙言其功業之大
非人至今傳誦文章苑言其文辭之美千古難洗矣

十四日梓潼李雪晴山亭許子大方身坐柱芳家與
柱芳叙舊款款冒塵行到瀋陽城西關帝廟士女雜
選蓋為今夕觀燈蒜香也女皆靚粧盛服乘轎車華
轂爭相奔馳門下居人曰自今至十六日三夜燃燈
聚會與台城一燈三入城內結馬上副使仍向台塔
僅余與潛人為觀燈留宿城中買飯而會初旬月也
如畫畫步出通衢左右市廛各色彩燈點綴如星或樹
樹母差於燈塔端乃樹枝樹葉皆較紅燈燈如文

或於大燈一座之中許多小燈合而散散而合目不暇瞬而倏忽如電入一屋鋪鋪中懸琉璃燈百餘左右圍琉璃屏照耀炫熿如在銀海自顧其影不知為我百海觀余自謂曰我是影耶影是我耶幻界色相本自空空釋迦氏如是觀真妙諦也處處結棚張樂賽神士女之觀燈者推有盡而不可移步至三更初燈火皆滅四街無人余謂滄人曰雖未見烟火炮燁白城燈較之我東燈夕不可同日而語也戲名

十五日輕雪開東發行冒雪疾馳至十里河上副使
方到此中火飯後並行直入遼東城內是日行一百
三十里雪止月明街路定屋之懸燈男女老幼之聚
觀及勝於潘城通衢上結絲棚設劇戲歌管鳥鳥不
舞袖僂僂一環觀也遠人見我行必呼曰吉若吾燕
韓音相高韓音高高音高也燕音慢音慢慢音慢
韓也又曰朝鮮有韓姓故謂我韓也慢音慢慢音慢
比化甚馬蓋使行之留宿本城內後取印于有云
十六日晴抵宿娘子山灣府吏及通事來待安轎

軍亦自變來留已五日云見家書平安字其喜可知也

十七日卯晴寒晚雪下止午飯于甜水站將踰會嶺
首名尚嶺雪路艱險慮有身軀折軸之患由席狼洞
過四十餘里暮抵連山關此嶺路稍穩而狹隘崎
嶇殆初有也

十八日亥晴抵宿黃家莊店主之弟自稱旗人往年
交遊甚密兵時從征天津賊斬獲賊魁姓林鳳祥而歸其

言不可了。真所謂橫說豎說全無可聽。一行如得奇貨。若聞天上消息。余自笑曰。其言不過知人說夢。而譯官輩之所謂。按知中國事情。僅為聞見事件。歸奏朝廷。何以異此耶。

十九日預雪。午飯于乾子浦。夕抵柵站。入燕時留宿處也。

二十日。町陰風寒。一行困頓。又為取卜之。整理一行。並留宿飯後。隨三使往安中城。即鳳凰山前也。城

址尚存壘石磊磊研猶有城門遺墟鳳凰山三面周匝
如圍錦屏東南土屯遮惟天門真是一夫當關萬夫
莫開之地宜其唐太宗之見困於此而城內可容十
戶可藏萬兵東方保障之地真如此險而自清入中
國以後便為空虛清人之不憂朝鮮故也

二十一日

或陰大風大寒早起忽聞擊子鉦聲有如

聚軍之聲問于居人曰今日開印故用樂蓋臘月廿

一日自天子至于天下衙門舉皆封印不聽人言至

四月廿一日始開中清朝最重歲時故對中以後令
天下恣意遊讌也一行離發出柳門人皆惜其壯觀
其歡欣之狀有如脫籠解縛之禽萬里雲霄自其自
便也抵宿溫井坪設幕一如入燕時

二十二日卯陰寒大風開東離發到九連城陸見臨
江以東羣峰得耳出於雲際旣軍其浮海動於江岸意想
快豁便覺宿疾已瘳三江外堅直渡我橋村來高且闊
恍若到家古人詩曰此心安處便是家非虛語也

尹韓敬源在任總一餘日云夜深支枕回思三千里
來往正是一夢境也

編者略歷

林基中

東國大學校 文科大学 國文科 教授

韓國文學研究所 所長

『朝鮮朝의 歌辭』, 『新羅歌謠와 記述物의 研究』,

『古典詩歌의 實證的 研究』, 『우리의 옛노래』,

『우리 歲時風俗의 노래』, 『高麗歌謠의 文學社會學』,

『佛敎歌辭1-5』, 『廣開土王碑原石初期拓本集成』,

『景幾體歌 研究』, 『韓國歌辭文學 研究史』,

『歷代歌辭文學全集1-50』, 『새로 읽는 鄉歌文學』,

『韓國文學의 이삭』, 『천재적인 바보』,

『佛敎歌辭原典研究』, 『佛敎歌辭研究』,

『燕行歌辭研究(近刊)』, 『燕行錄研究(近刊)』 등의 책을 펴냈음.

燕行錄全集 94

2001年 10月 20日 初版 印刷

2001年 10月 25日 初版 發行

編者: 林基中

發行人: 宋錫球

發行處: 東國大學校 出版部



100-715 서울特別市 中区 筆洞 3街 26

Http ://home.dgu.ac.kr/~book/index.html

E-mail:book@dongguk.edu

Tel : 2260-3483~4

FAX : 2268-7851

出版登錄 第2-163号 (1973. 6. 28)

組版·印刷/龍知印刷(株) 718-3111~19

價格: 1帙 (100卷) 4,000,000원

ISBN 89-7801-204-3 93810

ISBN 89-7801-110-1 93810(세트)

